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양 선 희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Realization of extinctive pending issue on Jeju Island's Dance
culture and research of development solution to overcome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한국무용

채 형 지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양 선 희

제주도 무용문화의 消滅的 懸案에 대한
認識과 克復을 위한 방안 모색

Realization of extinctive pending issue on Jeju Island's Dance
culture and research of development solution to overcome

이 논문을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 12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한국무용

채 형 지

목차

논문요약	vi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과제	5
3. 한계설정	7
제2장 이론적 배경	8
1. 제주도 민속 문화의 특이성	8
가. 민속 문화적 관점	9
나. 향토적·역사적 특성	11
2. 제주도 무용 문화의 실체	15
가.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궁중정재와 풍류	15
나. 칠머리당영등굿에 나타난 주술과 춤 문화	22
다. 해녀춤에 나타난 민속놀이와 연희	32
3. 제주무용공연예술의 현황	36
가. 제주도립무용단의 생성배경	37
나. 제주무용 복원을 위한 정기공연	38
제3장 연구방법	57
1. 표본의 선정	57

2. 조사도구	59
3. 조사절차	60
4. 자료처리	62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63
1. 제주 민속 문화 현황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	63
가. 제주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	63
나.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식	78
다. 제주 민속무용의 보존방안	83
라.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 및 대중화 방안	92
2. 논의	104
제5장 제주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109
제6장 결론 및 제언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133
부록 2	181
부록 3	184
부록 4	194
ABSTRACT	213

표목차

표 1. 탐라순력도의 내용	18
표 2.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춤의 형태	20
표 3. 칠머리당영등굿이 문헌에 나타난 기록	25
표 4. 칠머리당영등굿의 시기 및 명칭	26
표 5-1.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초감제)	29
표 5-2.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본향뚝)	29
표 5-3.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요왕맞이)	30
표 5-4.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씨드림)	31
표 5-5.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마을도액막음)	31
표 5-6.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영감놀이)	31
표 5-7.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도진)	31
표 6. 1985-2009년 제주도립무용단 공연활동 현황	38
표 7. 제주도 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성	58
표 8. 제주도민의 일반적인 특성	58
표 9. 설문지의 구성 내용	59
표 10. 제주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동기(관광객)	63
표 11. 제주문화예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제주도민)	65
표 12. 알고 있는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관광객)	66
표 13. 알고 있는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제주도민)	67
표 14. 탐라순력도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68
표 15. 탐라순력도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69
표 16.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70

표 17. 칠머리당영등곳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71
표 18. 해녀춤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72
표 19. 해녀춤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73
표 20.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비교한 제주도 민속무용의 특징과 역할(관광객)	74
표 21.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비교한 제주도 민속무용의 특징과 역할(제주도민) ..	75
표 22.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관광객)	76
표 23.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제주도민)	77
표 24.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78
표 25.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79
표 26.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관광객)	80
표 27.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제주도민)	81
표 28. 한국무용의 공연 횟수가 급변하는 이유	82
표 29. 제주도 민속 무용의 전승 방법(관광객)	83
표 30. 제주도 민속 무용의 전승 방법(제주도민)	84
표 31.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85
표 32.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이유(관광객)	86
표 33.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이유(제주도민)	87
표 34. 탐라순력도의 복원 방법(관광객)	88
표 35. 탐라순력도의 복원 방법(제주도민)	89
표 36.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관광객)	90
표 37.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제주도민)	91
표 38.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관광객)	92
표 39.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제주도민)	93

표 40.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94
표 41.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관광객) ..	95
표 42.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제주도민)	96
표 43. 칠머리당영등굿이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	97
표 44.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관광객) ..	98
표 45.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제주도민)	99
표 46.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관광객)	100
표 47.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제주도민)	101
표 48.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축제 참여 의향(관광객)	103
표 49.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축제 참여 의향(제주도민)	107
표 50.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110
표 51. 탐라순력도의 인식내용	111
표 52. 해녀춤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113
표 53. 해녀춤의 인식내용	114
표 54-1.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1단계	116
표 54-2.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2단계	117
표 54-3.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3단계	118
표 54-4.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4단계	119
표 55. 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122
표 56. 칠머리당영등굿의 인식내용	123

그림 목차

그림 1. 칠머리당영등굿의 의식과정	27
그림 2. 연구문제	60
그림 2. 조사절차	61

논문요약

제주도 무용문화의 消滅的 懸案에 대한 認識과 克復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무용의 문화적 발달양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무용문화는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체제에서의 교류를 통한 문화적 산물로서 인식되고는 있으나 생활의 순환적 기능 측면에서 드러나는 시대착오적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제주도 무용문화의 정체와 비활성화라는 모순이 다음과 같이 소멸적 현안이라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궁중정재로서의 풍류성을 띠고 있는 탐라순력도에는 현대적으로도 복원, 계승시킬 무용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장소적 체험이나 역사적 가치의 주입에만 국한되고 있다.

둘째, 제주도 특유의 주술성과 춤 문화를 내재하고 있는 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 전승보존은 문화재 관련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뿐 대중적 확산에 대한 의지가 아주 미약한 편이다.

셋째, 해녀춤은 척박한 환경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으로 삶을 보듬어 온 제주 해녀들의 강건한 의지력의 표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해녀박물관을 통한 피상적인 어업행위의 재현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진정한 가치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고 제주도 민속 문화와 무용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민은 물론이요 제주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전반적인 인식도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민속 문화의 침체와 비활성화의 원인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관객들의 인식부족의 탓으로, 현장활동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학자들의 경우는 그 이유를 행정적 미비로 인한 시스템의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2. 제주도의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단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의 관심 및 인식부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3.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동기가 직접적인 참여, 여가선용, 지역주민과의 접촉, 흥분과 일체감 경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보존을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의 답습 또한 무서운 과오이다. 단지, 우리 것이라는 이유로 과신하지도 말 것이며 옛 것이라고 하여 도외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문화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민속 문화의 경우는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오래토록 지속되고 방치된다면 그 끝이 바로 소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자는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와 현안문제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제주도내 대학에 무용과를 시급히 신설하여 제주무용예술의 근본적인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홍보효과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대중매체로 나타남에 따

라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제주민속무용의 관광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3. 제주도민의 다양한 계층과 외부의 방문객들이 함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직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무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적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노력들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제주 전통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화하고 이것이 제주도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다양한 민속무용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제주무용의 맥을 이어야 한다.
- 4) 도내에 전문 인력 집단을 양성하여 서울로 올라간 재원들이 다시 내려와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주제어 : 민속문화 , 제주도무용문화 , 탐라순력도 , 칠머리당영등굿 , 해녀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선진 문화예술의 정책 방향은 예전의 정부나 관(官) 주도로부터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그 주체가 이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계획과 설계가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인 창의성과 독창성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동안의 고민과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유년시절부터 예술을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또한 스스로의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을 높여 나갈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이들이 잠재적 예술 관람객 또는 현장 예술전문가로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¹⁾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점차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이즈음 중앙정부는 물론이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서건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각고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어떠한 우선순위나 경중(輕重)의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대두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도시요 독특한 문화와 유산이 풍부한 도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값이면 제주도 보다는 동남아로 여행지를 택하겠다는 의견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더욱이 이러한 말이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의 입에서 더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를 자조 섞인 녀두

1) 이구슬(2006).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고찰」. 『문화경제연구』. 12월호, p. 46.

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참담할 지경이다.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로 새롭게 변화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제주도의 특성을 드러낼만한 문화관광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만한 자연풍광을 가진 곳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제주에 무슨 매력이 있어 관광객이 모여 들겠는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무속신앙, 서사무가, 제주민요, 제주방언, 유배인의 문학, 한라산의 생태계 등 어느 지역이 갖지 못한 이러한 역사문화를 지금부터라도 적극 개발하여 다가올 국제화 시대의 손님맞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목전에 보이는 이권에만 급급하지 말고 다소 전시효과는 적더라도 이러한 제주 특유의 문화 개발에 지금부터라도 투자하고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수준 높은 관광의 장래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²⁾

위의 인용구에는 지금 제주도가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독특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시행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권이나 전시에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행정이 그릇된 길로 벗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동안의 고뇌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더욱 아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하는 ‘제주의 10대 문화상징물’이 선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주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여성의 표상이며 제주여성 문화의 아이콘인 해녀, 제주문화원형의 밑바탕이자 제주인의 자산인 제주어,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이 포함됐다. 돌 문화, 제주 굿, 제주 초가, 갈옷, 꿀, 오름도 들어있다.³⁾ 이러한 일련의 시도에는 제주문화의 원형을 발굴 계승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2) 국립제주박물관(편)(2003).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p. 205.

3) 김범훈(2009). 2009년 제주문화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에 필요한 것은. 「제주예총 21」, p. 50-51.

하지만, 뒤늦은 자각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의도에 걸 맞는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본질적인 문제의 폐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무용의 문화적 발달 양상이라는 측면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되돌아 볼 때 지방과 중앙이라는 구분에서 오는 지역적 편차는 어이없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는 한때, 탐라국이라는 독립적인 형태의 국가적 위용으로서 존립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용의 원형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의 현실적 제반 문제를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추이와 연관 지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주된 관점은 제주도 무용문화의 원형부재(不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는 본인이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일찍이 무용을 접하면서 문화 예술적 깊이의 혼을 물려받았다는 극히 개인적인 의중이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누가 일부러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제주도가 갖는 가치와 위상이 독보적이라는 물적 기반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훨씬 크기에 보다 발전적인 제주문화의 미래를 위하여 그동안의 폐단과 단점을 직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선 제주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라는 원초적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문제점의 비판을 통한 자기반성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으나 이미 대다수가 공감하는 모순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존립하고 있는 무용의 흔적들이 모두 제주도 무용의 역사요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가 제주 무용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선결되어야 하나 현재 제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함을 환기시켜야 한다.
2.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광객들의 인식이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구별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부서장들의 각성이 촉구되어야 한다.
3.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 문화예술이 주로 다양한 축제의 형식으로 펼쳐지고는 있음으로 해서 각각의 성격마다 분리되고 난립되어 그 예술성과 가치성이 매몰되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4. 제주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의 문제는 지리적 독립성과 특이성, 유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재조사 및 복원을 통하여 극복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2. 연구과제

현재 제주도의 문화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그 실체의 존재적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다. 이러한 연유에는 한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에 그 치유 또한 쉽지가 않다.

특히, 지금의 제주도에는 수많은 관광업체들이 난립해 있으며 최근까지도 그들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또한 천편일률적이다. 공항에 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손에 쥐게 되는 여행안내 정보부터가 그러하다. 10여 년 전에 방문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지금 다시 이용한다고 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정책적, 행정적 결함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 하지만 전국 모든 도시가 자신의 지역경제 발전과 이윤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언제까지 정부나 관공서의 지도와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마야흐로 문화예술은 예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 예술 공급자의 역할이 부실하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모태요 절대적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논자가 전공한 무용계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제주의 풍토와 정서를 보듬고 있는 민속춤의 경우 그 수가 극히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년 안팎의 일이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무대 공연의 레퍼토리 역시 제한적이며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은 하되 예술적인 격조는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 또한 소원해 보이는 것이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소설가였던 나혜석이라는 여성을 문화인물로 발굴하고 일대기를 반복적으로 공연하면서 나혜석 거리까지 조성한 경기도의 행보는 논자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행정 관료들은 관료 나름대로 탁상을 벗어난 참신한 창의성 개발에 주력하고 제주도민들은 도민들 나름대로 ‘우리의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고취하여 다시금 부활하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방편으로 논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제주 민속 문화의 문화적 관점과 향토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특이성을 탐구한다.
2. 제주 민속 문화의 전승보존적 가치와 의의를 정립한다.
3. 탐라순력도,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의 분석을 통한 제주도 무용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4. 제주도 민속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형식 공연문화 개발의 의미를 찾아보고 현행되고 있는 행사를 조사, 검토한다.
5. 현행되는 제주도의 무용공연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무용의 향토성이 내재된 춤 원형의 복원, 계승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제주도의 전문단체인 제주도립무용단의 무용공연 현황과 공연의 성향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6. 제주 민속 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 및 좌담을 통하여 일차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7.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계 설정

본 논문은 연구의 진행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두었다.

1. 궁중정재의 풍류성을 띤 탐라순력도는 지금까지 잔존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제시, 고증이 가능한 사료와 박물관의 현행활동에 의존하여 연구되었다.
2.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제주곳의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그 미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3. 제주민중의 삶과 직결된 형태의 무용문화로서는 1967년 송근우에 의해 창작되고 양성옥, 김희숙에 의해 무대화 되면서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해녀춤 연구로 한정하였다.
4. 제주도 무용문화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도내의 유일한 전문단체이며 대부분 무용공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중심의 활동과 성향을 파악하였다.
5. 제주 민속 문화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로써 제주지역 민속 문화 전문가 9인(행정실무자 2명, 무용가 2명, 향토사학자 2명, 제주곳 전문가 2명, 학자 1명)의 좌담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일반인들의 인식도는 700명(관광객 300명, 제주도민 400명)으로 한정하였다.
6. 제주 무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시는 선행연구가 전무하므로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새로운 안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제주도 민속 문화의 특이성

제주도는 예로부터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토로 인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적으로는 내륙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내륙지역이 각자의 지역적 특색을 띠면서도 어느 정도 상호교류를 통한 연관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데 반해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립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독특한 형태의 문화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삼다(三多 - 돌, 바람, 여자)라는 환경적 특성과 유배지로서의 기능이라는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의 민속문화는 그 형태 또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중앙의 그것과 비교되어 현재 제주 문화예술의 원형부재(原形不在)라는 극단적 인식과 학문적 연구의 침체라는 부정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민속문화란 각 지역의 신앙이나 풍속, 생활양식, 관습 등을 바탕으로 자생되어진 것으로 그 가치의 경중(輕重)이 있을 수 없다. 어느 시기이든, 그리고 어느 장소이든 나름의 태생적 근거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 유산인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민속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선행 연구된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제주도의 향토적, 역사적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가. 민속 문화적 관점

민속이란 말에는 흔히 두 가지의 개념이 등치되어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종교요, 둘째는 민중이라는 단어이다. 따라서 민속과 종교, 민중이라는 세 가지에는 서로의 공통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속에는 무속으로 대표되는 종교성이 있으며 이러한 무속은 예로부터 일반 민중들이 의존해 왔던 생활의 활력소이자 근거지였던 것이다. 혹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민속을 두고 신앙, 풍속, 생활양식, 관습, 전설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인 생명체라 말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속(民俗)이란 ‘민간의 전승’ 또는 ‘민간의 풍속’이란 말의 약어로 영어의 folk-lore나, 프랑스어의 tradition populaire, 독일어의 Volkskunde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속이란 말이 처음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신라 제3대 임금인 유리왕(儒理王) 시절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민속환강(民俗歡康)’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의 민속이란 ‘민간의 풍속’이나 ‘민풍(民風)’ 내지 ‘민중의 절속(節俗)’이라는 뜻일 것이다.⁴⁾

그런데 이러한 민속이 지니는 개념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속성이다. 민속이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하나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형식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형(不定形)의 형태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 전통춤의 근본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전통춤은 원래가 한과 흥과 멋을 기반으로 하여 즉흥적으로 자생되어 온 하나의 문화로서 ‘무기교의 기교’에 이르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민속예술이라 일컬을 수 있는 민화(民畵)를 두고 정의내린 다음의 인용구는 이러한 이해를 훨씬 빠르게 한다.

한국의 미술은 민예적인 것이며, 신앙과 생활과 미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4) 김선풍 외(2002). 『우리민속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p. 5.

미술은 순전히 감상만을 위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술이 아니고 미술이자 곧 종교요, 미술이자 곧 생활이다. 말하자면 상품화된 미술이 아니므로 정치한 맛, 정돈된 맛에서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나 그 대신 질박한 맛과 순후(純厚)한 맛이 있어 으뜸간다.⁵⁾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민속은 그 ‘연속성’으로 인하여 흔히 전통의 개념과 결부되기도 한다. 민속 문화가 전통문화로, 민속춤이 전통춤으로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그러면 과연 전통이란 무엇일까?

전통이란 “지난날로의 무조건적인 복귀가 아니고 모든 변화에 적대감을 가지지 않으며,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생명력을 포착하는 자에게만 몸을 맡기는 성질의 것”⁶⁾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전통은 문화와 직접적으로 접촉되고 있다. 문화는 깨어있는 삶에서 비롯되면서 새로운 삶을 쉬지 않고 추구한다. 인류의 역사가 문화의 역사인 것은, 인간이 쉬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운명은 숙명적으로 그 삶과 상황과의 불화에 있다. 모두들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조건과 환경과 문제가 쉬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가 문화로 남게 되었다.⁷⁾ 문화란 민속의 결정체인 동시에 전통과 함께 떠받쳐 지는 기층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 문화의 일차적 가치는 역사적으로 전승되는데 있기에 지속성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전승의 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특성을 띤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 자체가 생활의 중심이 된다. 또한 자신들의 생활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반영하며, 회로애락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농축하고

5) 조요한(2003). 『예술철학』. 미술문화, pp. 331-332.

6) 조요한(2003). 위의 책, p. 348.

7)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 271.

있어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적·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창조해 가는 일상의 생활 형태이기도 하다.⁸⁾

제주의 민속 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문화의 형성은 삼다(三多)라는 특징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된 해양도서적, 전통적 고유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일찍이 한반도 본래의 문화와 중국 원(元)의 점거하의 영향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 고유문화 위의 이러한 외래적 문화의 요소도 오랜 기간 전승되는 동안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에 습합되고 동화되어 다음시대에 가서는 하나의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⁹⁾

즉, 다시 말해 제주 민속 문화의 가치는 도민의 긴 역사 속에서 외래문화와 도민의 생활이 결부됨으로써 바람직한 전통문화로 자리 잡아 온 역사적 산물이요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나. 향토적·역사적 특성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기후나 풍토, 고도 등등 어느 하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리적 특성으로 귀결되는 향토성이다.

만약,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향후의 삶은 바다를 근거로 영위될 것이며 험준한 산악이라면 사나운 맹수들과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남보다 날쌔고 굳센 기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남과 호남, 경기

8) 박진규 등(2005). 『지역문화와 축제: 기획과 연출』. 도서출판 글누리, p. 16.

9) 진성기(1986). 「제주도의 전통문화: 무속신화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9), p. 419.

와 충청을 가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인간집단에게 있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향토성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문화라는 것도 경제·사회·정치·물질적 체계들의 무수한 변수들이나 또한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과 함께 다양한 시간적 율동을 가지고 변해가는 것이다. 환경의 변수들 중에 지형, 지질, 생태적 환경 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인간집단의 역사적 배경을 규제해온 장기 지속적인 것들이다. 이런 장기 지속적인 변수들은 중기 지속적인 사회·경제조직이나 단기 지속적인 정치적 사건들과는 다르게 고금(古今)을 거쳐 거의 변함없이 우리 생활공간을 에워싸고 있다.¹⁰⁾

따라서 우리가 제주문화를 논의할 때 내륙과 동떨어진 섬이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는 환경을 도외시할 수 없다. 바다는 제주사람에게는 육지와 관계가 갈라놓는 심연과 같은 것이다. 제주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절해의 고도로서 목포와의 거리는 141.6킬로미터, 부산과의 거리는 286.5킬로미터, 일본 대마도와는 255.1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어서 제주를 중심으로 반경 600킬로미터 안에 상해와 오키나와 시모노세키 산둥반도 그리고 평양이 들어온다. 이런 극동지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은 제주의 역사문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¹¹⁾ 언어상에 있어 일본어와의 유사성이 발견된다거나 내륙의 어느 도시보다도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성시킨 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 섬이라는 고립성일 것이다.

제주도의 위치와 면적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양상을 보이고 도(道)로서 가장 좁은 면적을 보임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성과 협소성을 보인다. 특히 바다에 의지해

10) 진영일(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도서출판 보고사, p. 18.

11)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 121.

야기된 지리적 고립성은 제주도민의 생활권을 섬 안으로 한정지어 대부분의 생활을 섬 속에서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고립성과 다른 섬에 비해 큰 면적은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또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단점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제주는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으며 이처럼 불리한 생존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강한 공동체의식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 주는 매개고리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탐라국시대 주변 외국과의 활발한 교역 역시 제주민의 개척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많은 설화나 전설, 신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요소 중 제주민들이 지니는 우주 중심적 세계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주민들은 결코 제주를 고립된 변방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³⁾

그리고 이러한 향토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제주의 역사적 특성에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대륙으로부터의 소외와 멸시이다. 예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는 일찍이 일상에서 부정적인 땅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제주가 겪어야 했던 고단했던 역사적 실증들은 무수히 많다. 조선 숙종시대 목사 이형상의 미신타파정책,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만행, 해방 직후의 4.3 폭동 등 제주에는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기억의 상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이형상에 의해 저질러졌던 미신타파정책의 후유증은 형언하기 힘들만큼 큰 것이었다.

12) 박종국(2002).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13) 채형지(2001). 「제주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p. 4.

이형상의 미신타과정책은 소위 ‘당 오백 절 오백’ 전설로도 전승될 정도로 전래의 제주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준 사건임에 틀림없다. 신당(神堂)과 사찰(寺刹)을 불사르고 심방(巫堂)을 모두 귀농(歸農)시켰다는 이 사건은 민간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제주의 사찰문화재를 불사르고, 제주 불교사의 법통을 토막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¹⁴⁾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제주는 일찍부터 중앙정부와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성격의 작은 정부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제주는 독립-통합-예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과거성과 중앙정부의 한 지역으로서의 현재성이 혼류되어 도민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역사성은 “외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체제에 흡수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독자성을 잃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독자적인 문화를 고집스럽게 유지”¹⁵⁾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겠다.

14) 양순필 등(1986).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p. 50.

15)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 13.

2. 제주도 무용 문화의 실체

제주도는 내륙과 구별되는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문화예술을 영위하여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특성이 중앙의 그것과 많은 차별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가 폄하되거나 학술적 연구의 관점에서 배제되는 성향을 보여 왔다. 특히, 제주도의 무용문화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인식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탐라순력도와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 등의 역사적 근거이다.

탐라순력도는 중앙의 것과 유사한 춤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박물관까지 건립되어 있으나 현재는 단지 유물적 가치의 답습에 머물고 있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무용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칠머리당영등굿은 내륙에도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샤머니즘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의 복원과 대중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녀춤 또한 제주여성의 삶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제주의 민간무용을 활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현재 제주에 존속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무용문화의 가치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궁중정재와 풍류

제주도 민속 문화의 경우, 타 지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역사적 유물이 바로 탐라순력도이며 우리는 이미 이 탐라순력도의 고증을 통해 중앙에서 이루어진 궁중무용이 제주도에서도 연희되었고

또한 풍류 춤의 하나인 여흥무용의 존재로서 제주도에서도 중앙 춤 문화와 서로 소통하고 있었음¹⁶⁾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역사적 유물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다음에서는 이 탐라순력도가 어떠한 문화적 가치와 무용적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유일’과 ‘최초’라는 용어로 수식해도 무방할 만큼 독특하고 뛰어난 가치를 갖는 작품이다. 관찰사와 목사 등 지방관이 관내를 순회한 뒤 남긴 지도와 기행문은 드물지 않지만 이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기행문은 탐라순력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순력이란 봄과 가을에 지방관이 관할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하는 행사를 말하는데 이는 당시 제주 행정의 집행자였던 이형상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형상은 부임하지마자, 제주를 동쪽으로부터 남, 서, 북의 순서로 순회한 뒤, 이 과정을 화공 김남길의 손을 빌려 화첩으로 옮겼다. 음력 10월 29일(양력 12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2일 동안의 순회장면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도첩을 제작한 이형상은 박학다식한 학자였는데 특히 지리학에서도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저술 가운데에는 『몽고국지(蒙古國誌)』, 『일본국지(日本國誌)』, 『서행록(西行錄)』, 『북유록(北遊錄)』, 『강도지(江都誌)』, 『탐라지(耽羅誌)』, 『동이산략(東耳刪略)』, 『사이총설(四夷總說)』, 『남환박물(南宦博物)』 등 지리와 관련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도지』는 강화유수(江華留守) 민진주(閔鎭周)의 도움을 받아 1696년(숙종 22)에 완성되었다. 강화도의 채색 지도를 첨부한 강도지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6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탐라순력도도 강도지 제작의 경험과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⁷⁾

16) 양선희(2004). 제주 춤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예술단 작품 문화자원화를 위한 세미나」, p. 31.

17) 이찬(1979). 탐라순력도·남환박물 해제.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탐라순력도는 이형상이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기거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세로 55cm, 가로 35cm의 장지(壯紙) 위에 먹선으로 형태의 윤곽을 잡고 채색을 넣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 화첩의 구성형식은 맨 마지막의 <호연금서>를 제외한 40면이 모두 상단에 제목, 중단에 그림, 하단에 행사참가 인원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3단 구성방식은 16세기 전반 경의 조선 초기를 통해 정립되었던 계획도의 화면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¹⁸⁾

이러한 탐라순력도를 역사적 측면에서의 시대상황과 그에 따른 회화사적 측면에서 내용과 양식을 비교해보면 이 행사도들은 시각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지방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실용적 목적을 띠고 제작된 기록화로서 도식성과 인습성이 현저하여 회화적 가치는 미흡하지만 이 분야의 장르 관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고시적 요소들은 전 시대에 공식용으로 정착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의 양식복원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법의 경우 현존 작품이 영세한 이 방면의 화풍 전개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 그려진 이들 회화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고, 중앙과 지방의 화법 비교 고찰을 포함하여 탐라국시대 회화연구에 이들 문화재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¹⁹⁾

뿐만 아니라 탐라순력도는 무용과 관련되어서도 독특한 면을 드러낸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외부문화와 기층문화의 접촉을 통하여 독자적인 문화로 변화,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무용 또한 마찬가지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각기 자신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형태들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특히, 중앙집권화 정책이 행정의 주요 골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무용은

18) 박성배(2003). 제주 회화의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 「제주조형예술연구」, p. 68.

19) 박성배(2003). 제주 회화의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 「제주조형예술연구」, p. 79.

수도를 중심으로 한 궁중 정재라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는데 탐라순력도가 발견됨으로써 이것이 과연 제주도와 같은 지방 행정구역에서는 어떻게 흡수, 발전되었는가 하는 궁중무용의 지방 전파 행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시²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탐라순력도의 내용

제목	내용	제목	내용
1 한리장축	1702 4/15 독립된 제주도 지도	22 현폭사후	11/6 현재의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활 쏘는 장면
2 공마봉진	6/7 진상할 말을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장면	23 고원방고	11/6 고돈과원(羔屯果園)에서 풍악을 즐기는 장면
3 승보시사	6/17 이형상 목사가 시험관이 되어 선비들에게 승보시를 보이는 장면	24 산방배작	11/10 산방굴에서 배작하는 장면
4 감귤봉진	· 각 종류의 감귤과 귤껍질을 점검하여 봉진하는 장면	25 대정조점	11/10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장면
5 굴림풍악	·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 풍악을 즐기는 장면	26 대정배전	11/11 대정현에서 나라의 경사를 듣고 임금에게 하례(賀禮)하는 장면
6 성산관일	7/13 성산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27 대정양로	11/11 대정현에서의 양로연 장면
7 우도점마	7/13 우도 목장 내에 있는 말을 점검하는 장면	28 대정강사	11/12 대정현에서 시행한 활쏘는 장면
8 교래대렵	10/11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장면	29 모슬점부	11/13 모슬진 군대를 점검하는 장면
9 산장구마	10/15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그 수를 확인하는 장면	30 차귀점부	11/13 차귀진의 조련과 점검하는 장면
10 조천조점	10/20 조천진 성정군의 군사훈련과 인근 목장의 둔마를 점검하는 장면	31 명월조점	11/14 명월진 성정군의 훈련모습과 말을 점검하는 장면
11 화북성조	10/29 화북진에 소속된 성정군의 군사훈련 장면	32 명월시사	11/14 명월진성에서 활쏘기 시험장면
12 김녕관굴	10/30 김녕의 용암굴을 둘러보는 장면	33 애월조점	11/14 애월진의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장면

20) 채형지(2001). 「제주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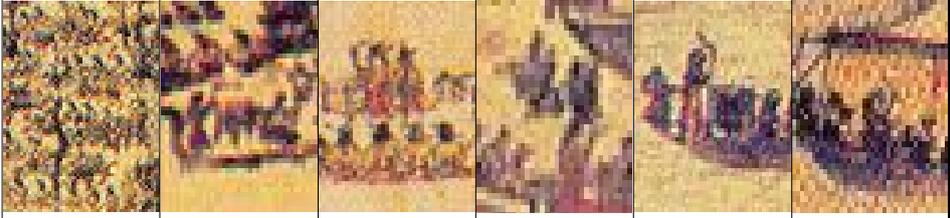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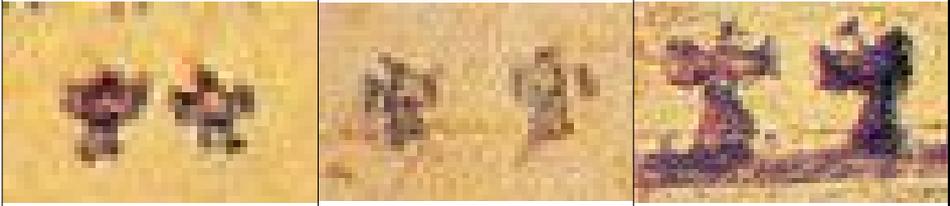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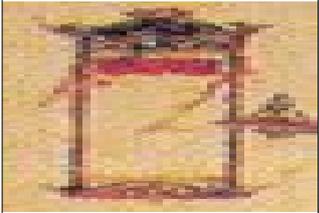
13 별방조점	10/30 별방성에서 군사훈련과 성장군, 군기, 우마 점검하는 장면	34 제주조점	11/15 제주읍성에서 성장군의 조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장면
14 별방시사	11/1 별방진에서 활쏘기 시험장면	35 제주전취	11/17 제주목사가 각 관리의 공적을 심사하는 장면
15 수산성조	11/2 정의현 수산진성에서의 성장군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장면	36 제주사회	11/18 활쏘기 장면 (사회(射會): 활쏘기하는 모임)
16 정의조점	11/2 정의현성에서의 조련(操鍊)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장면	37 제주양로	11/19 제주목 동헌 앞에서 양로연을 실시하는 장면
17 정의양로	11/3 정의현성에서 치러진 양로연 장면	38 병담범주	취병담(翠屏潭), 곧 용연에서의 뱃놀이 장면
18 정의강사	11/4 동짓날 정의현에서 시행한 강(講) 받기 시험과 활쏘기 시험 장면	39 건포배은	11/20 향품문무 300여 명이 관덕정 앞 건입포에서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배례
19 정방탐승	11/5 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탐승하는 장면	40 비양방록	1708 시습을 생포해 비양도로 옮겨 방사하는 4/28 장면
20 서귀조점	11/5 서귀진의 조련과 군기 및 말을 점검하는 장면	41 호연금서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을 담음
21 천연사후	11/6 천지연 폭포에서의 활을 쏘는 장면		

위의 <표 1>에 따르면, 탐라순력도에 춤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모두 7장면으로 5면의 굴림풍악, 17면의 정의양로, 19면의 정방탐승, 23면의 고원방고, 27면의 대정양로, 37면의 제주양로, 38면의 병담범주가 그것이다.

이 그림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궁중무용의 연희 형식(굴림풍악, 정의양노, 대정양노, 제주양노)을 갖추고 있는 것과 둘째, 풍류형식(정방탐승, 병담범주)을 갖춘 것이다.²¹⁾

21) 채형지(2001). 「제주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p. 29.

표 2.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춤의 형태

구분	춤의 형태	특이성						
공 중 무 용 연 회 형 식	무고춤		굴립풍악	정의양로	제주양로	대정양로	정방탐승	병담범주
		특이성	무고(舞鼓)는 북을 치면서 춤추는 향악정재의 하나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고춤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2명으로 고려 때의 잔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 2인무		정의양로	제주양로	정방탐승			
	특이성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남성 2인무의 의상이 일반도포가 아닌 고구려무를 출 때 입는 의상과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그 춤의 형태가 고구려무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구려무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향악정재 중 하나로 먼 옛날 고구려를 회상하며 창작한 춤으로 6명으로 구성된다.						
	포구락		특이성	제주양로에 나타난 포구문은 포구락의 필수적인 소품중의 하나로 춤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림에 나타난 배경 즉, 약사나 남성 2인이 나와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포구문을 장식적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회를 전후한 포구락이 행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양로						

풍류형식	 <p style="text-align: center;">정방탐승</p>	특이성	연희악으로 짓대 1(남성), 삼죽 상하타 북 1인(여성) 외에 4인의 기녀그룹, 무자(舞者) 2인, 그리고 2인의 남성그룹과 미확인 남성 1인의 총 12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순력을 하는데 동행한 악인(樂人)이었거나 또는 해당 고을의 민간 음악패가 동원된 경우로 사료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병담범주</p>	특이성	취병담(翠屏潭) 용연에서 뱃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배3척이 그려져 있다. 그중 한척에 2명의 짓대 악사, 1명의 북고수, 그리고 악사로 추정되는 2인의 남자와 1인의 여인, 기녀로 추정되는 4인의 여인 그룹이 있다.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뱃놀이에서 사용된 악기구성을 엿볼 수 있다.

앞의 <표 2>를 살펴보면,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대표적 춤의 형태는 무고춤, 남성 2인무, 포구락이다. 그리고 실제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양로연의 연희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의물들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포구락의 경우는 궁중정재의 하나인데 이는 왕의 위엄을 드높이고 왕실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춤이면서 동시에 놀이적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춤이 탐라순력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춤 문화와 제주도 춤 문화 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또한 “양반들의 여유로운 여흥 춤을 즐겼던 장면을 화폭에 담아 국태민안 상징과 지방관찰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려는 예술의 정치적 목적”²²⁾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탐라순력도상에 보이는 무용관련 도면은 극히 찰라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그 도면만으로 당시 행해지던 무용을 가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면들에 보이는 무용 내지는 연희장면들이 당시 치권층(治權層)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무용의 전체형태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른

22) 양선희(2004). 제주 춤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예술단 작품 문화자원화를 위한 세미나」, p. 25.

한편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부터 무용 내지 연희형식상의 특이성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할 가치는 상당하다²³⁾ 하겠다.

나. 칠머리당영등곳에 나타난 주술과 춤 문화

인류 문화의 시원은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술기법이 발달되어 무용의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술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의존과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샤머니즘과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샤머니즘이란 “신령(神靈)에 따라 흥분하여 날뛰는 사람, 곧 ‘샤먼(Shaman)’의 종교”²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속, 혹은 무당을 연상케 한다. 민속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무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인 추측은 해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의 생각에서 신을 믿고 제사한 것은 상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부터 신을 믿었고 또 언제부터 신을 제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중국의 고전인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위서(魏書)』, 『진서(晉書)』 등의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부여, 마한, 예(濊)에서는 정월, 오월, 또는 시월(十月)에 천신(天神)을 제사하는 제천의식이 거행되었고, 이때에 귀신도 함께 제사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무속의식의 일종이었고 이와 같은 제사를 주재한 사람은 무당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²⁵⁾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한국의 무속은 곧 한국의 샤머니즘을 뜻하는 용어로 이해

23) 장효순(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연희에 관한 연구.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제주시 탐라순력도 연구회, p. 427.

24) 김영민(2005). 『우리 조상신앙 바로알기』. 새문사, p. 16.

25) 임동권(2003). 『민속문화의 현장』. 민속원, p. 81.

되어 진다. 그리고 무속과 샤머니즘은 같은 의미의 용어이지만,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종교사적 맥락에서는 샤머니즘을, 그것의 한국적 전개와 특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무속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무속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무당은 언제나 접신을 위하여 특수한 방식의 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굿이다. 굿은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곧 나약함의 극복과 풍요로움에 대한 기원의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전통문화로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인 동시에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민속 문화로 꼽힌다. 물론 제주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굿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굿 문화를 통한 제주도의 특성과 일반 민중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무속이 기원전 7, 8세기경에 ‘제천의식’이라는 제례의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의 형태는 노래와 춤을 동반한 의식행사로 철저한 자연숭배와 협동과 단결을 유도하고 개인의 소망과 부락의 평안을 기원하며 영혼의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사된 주술적인 개념의 무속이었다.²⁷⁾ 그리고 종합예술적 성격으로서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띤다.

이러한 한국무속을 지역별로는 제주도형·영동형·호남형·중부형·영남형·관서형·관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력과 관계없이 조상 대대로 혈통을 이어 사제권을 행사하여(인간의 운명을 제의를 통해) 인간의 자격으로 신께 기원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세습무가 주축인 다른 지역의 무속과는 달리, 제주도형 무속은 무병을 앓고 신의 혼력을 얻어 그 영역에 의해 신의 자격으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26)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2009).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p. 347.

27) 진수이(1995). 「무속의식제차 과정 중에 내포된 춤 형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p. 4.

강신무를 근원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 외에도 제주도의 무의식은 생산의례적인 촌락 공동제의로 민속 축제에 뿌리를 두고 전승되었으며 동시에 주술적 문화예술로 형성되었고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신앙이 성행했던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과 자연적 환경이 그들의 생업과 떼어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혈연적, 지연적 집단생활을 통하여 민속 신앙으로 발전되어 왔다.²⁹⁾ 그 대표적인 것이 칠머리당영등굿이다.

제주 칠머리당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보호, 전승되다가 2006년 6월19일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제주에서 음력 2월을 서북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오시는 달’, ‘영등이 드는 달’이라 하여 영등달이라 한다. 이 영등달에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하고, 바로 이 영등바람을 맞이하여 마을의 신당에서 벌이는 곳을 영등굿이라 하는 것이다. 바다 생활을 하는 제주민들에서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람이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영등굿은 필수적인생활의 일부였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이 굿은 “최상의 의지처였으며, 때로는 온 마을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의 큰 놀이로서 최대의 위안”³⁰⁾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굿에는 민중적 정서는 물론이요 역사성·생산성·신명성, 그리고 민중성·지역성·예술성·기능성·문학성 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

2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1988). 『제주문화예술백서』, p.193.

29) 장효순(1996).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의식에 내재된 무용미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p. 112.

30) 채형지(2001). 「제주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p. 10.

의 역사와 문화에서 무속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전통적 민족문화의 계승자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영등굿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써 여러 문헌들을 통해 그 오래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칠머리당영등굿이 문헌에 나타난 기록

년도	저자	문헌명	원문 및 해석	
1530	노사신 등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원문	又於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採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
1653	이원진	탐라지 耽羅志		
1800말	남만리	탐라지 耽羅志	해석	2월 초하룻날 귀덕(歸德)·금녕(金寧) 등지에서 나무 장대 열두 개를 세워놓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중략) 보름날에 이르러 끝내니, 이를 연등(燃燈)이라 한다. 이 달에는 승선(乘船)을 금한다.
1849	홍석모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1918	김석익	해상일사 海上逸史	원문	煙燈節 諺傳大唐商人潭沒州境者 四體分解 頭骨入於漁登浦 手足入於高內涯 明月月等浦 故每年正月晦時 百風自西海來則謂之降矣 沿邊居民聚群 巫作野祀 夜以繼晝 造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二月旬望又造舟形具帆檣汎于浦口 謂之送神 是時風自東北來則謂之煙燈去矣 自二月初吉至于望後絕不放船 又俚語以爲燃神每於正月晦日入牛島 採食海族 翌日登陸至于十六日 復自牛島出去而所過沿邊蚌蛤螺蠣之屬 盡爲空殼乃燈神所採食者云.
				해석

1954	담수계	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원문	諺傳에 大唐商人이 潭沒州境者 四體分解 하여 頭骨은 於漁登浦하고 手足은 入於高內涯 明月月等浦라. 故고 每年正月에 有風이 自西海來則謂之燈神이 降이라하여 作野祀하니 槎形降이 如馬頭者를 飾以彩帛하여 作躍馬戲하여 以娛神하고 至二月旬望하여는 又造船形하여 具帆檣하여 泛于浦口하여 謂之送神이라하다 是時에 禁乘船하다.
			해석	지독하게 귀신에 대한 제사를 숭상한다. 표해록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선인들은 최공의 바다에 표류한 것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탓으로 돌렸는데 민속이 음사를 숭상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이러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발생하여 행해지며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년 두 차례 행해지는데, 하나는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다른 하나는 영등신이 제주도를 떠나기 전날인 음력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표 4. 칠머리당영등굿의 시기 및 명칭

구분	영등환영제	영등송별제
시기	음력 2월 1일(영등신이 들어오는 날)	음력 2월 14일(영등신이 떠나는 전날)
목적	- 우순풍조(雨順風調) - 해녀 채취물 풍등(海女採取物豐登)	

위에서 나타나는 환영제와 송별제 중 더 큰 규모로 치러지는 것은 후자이다. 환영제 때는 큰 배를 부리는 집안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들만 모여서는 간소하게 굿을 하고 대개 오전 중에 굿이 끝나는데 비하여, 송별제는 어업 관계자와 해녀, 그 밖의 신앙민들이 크게 모인 가운데 하루 종일 큰 굿으로 놀아진다.³¹⁾

제주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을 모신 본향당(本鄉堂)이 있

31) 조홍윤 등(2001).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 312.

다. 그리고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한다. 이러한 명칭이 유래하게 된 것은 본향당이 있는 곳의 지명이 ‘칠머리’이기 때문이다. 이 당곳의 의식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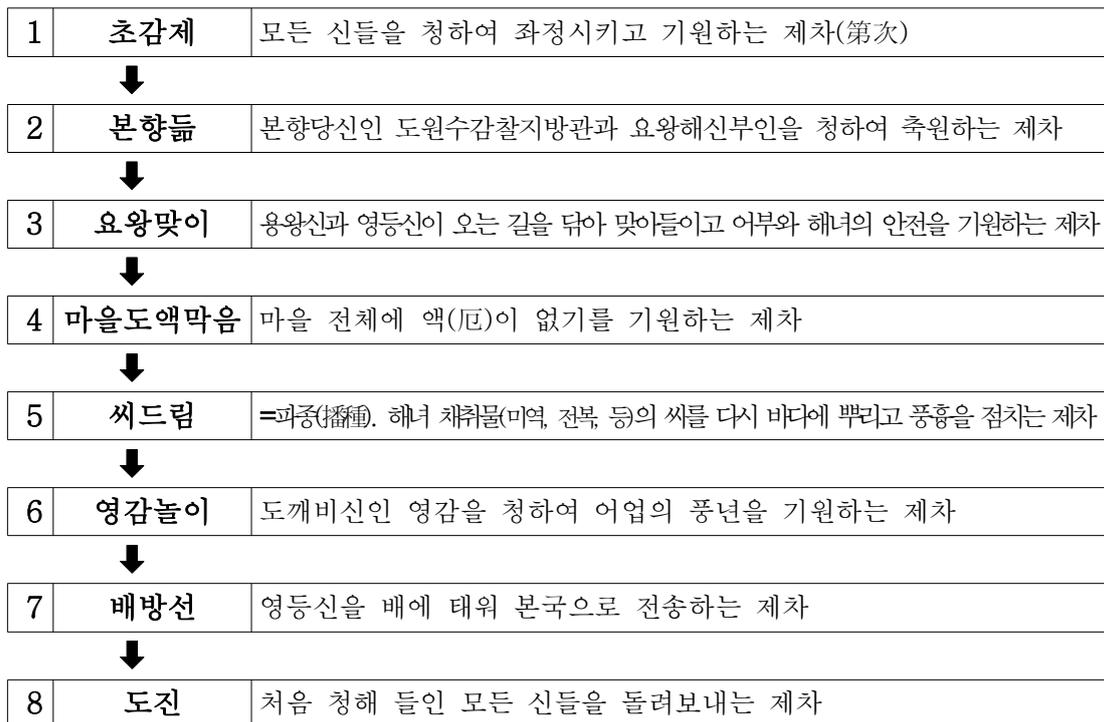


그림 1. 칠머리당영등곳의 의식과정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칠머리당영등곳은 초감제로 시작하여 본향듬, 요왕맞이, 마을도액막음, 씨드림, 영감놀이를 거쳐 배방선, 도진 순으로 제의가 차례대로 진행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영등곳을 구성하고 있다.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인 배방선에 앞서 연출되는 영감놀이는 근래에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곳 중 놀이곳으로 삼입³²⁾

32) 문무병(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곳』. 도서출판 황금알, p. 35.

되었다고 한다.

한편, 제주도의 무용도 이러한 무속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 일컬어지는 무당의 춤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또한 함께 춤을 춤으로써 고난을 타파하고 예방하며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 것이다. 따라서 그 춤의 형태 또한 수렴, 목축, 육아, 가사 등 생활노동의 동작을 표현하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주술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적인 힘에 대한 욕구이자 의식(儀式)이며 의지로서 굿의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관습 속에서 제주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인간을 보살피준다고 믿고 굿을 행하여 온 것이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신들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칠머리당영등굿에서 나타나는 연행과정을 각 절차별로 나누고 이를 의식적인 행위와 춤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의 <표 5-1>부터 <표 5-7>와 같다.

표 5-1.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초감제)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초감제	초감제	베포도업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서서 사방천지를 열어 나가는 춤	
		날과 국 섬김	-	
		연유답음	-	
	신청제	군문열림	신들의 하강을 위한 신공의 문을 여는 과정	손등을 꺾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손춤 노래와 함께 요란한 도랑춤
		분부사뵐	신의 뜻을 심방의 입을 빌어 인간에게 전달하는 과정	-
		새드림	물을 통해 제장의 부정을 쫓고 정화하는 의례	물그릇의 정화수를 댕값까지 감상가에 적셔 뿌리며 부정을 씻는 노래와 함께 추는 춤
신청제	신청제	신(諸神)을 청해 들이는 과정	심방이 요령을 흔들다 신칼로 쌀을 몇 차례 뿌리고 나서 제상 앞에서 춤을 춤	
	정대우	신들의 자리를 배정하여 앉히는 과정	-	

표 5-2.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본향뚬)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본향뚬	본향뚬	본향뚬	쌀을 뿌리며 반복되는 춤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도랑춤	
		삼헌관 절시킴	-	
		자손들 소자올림	-	
		정대우	-	
		도산 받아 분부 사뵐	-	
	공연	석살뵐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곳	술잔 들고 추는 춤 향로 들고 추는 춤
		추물공연	제장에 좌정한 신들을 모시고 온갖 재물을 신에게 대접하는 과정	-
		금벼리잔	초감제에 청한 신들에게 잔을 권함	-
		나카시리 놀림	-	낙하(落下)하는 시루떡을 놀리는 신소미(小巫)들의 춤
		지장본풀이	심방이 무악에 맞춰 <지장본풀이>를 노래함	-

표 5-3.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요왕맞이)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초 감 제	베포도업침	생략	생략	
	날과국 섬김	생략	생략	
	제청신도업	굿하는 연유를 신에게 고하여 어부와 해녀들의 땃힌 곳을 풀어냄	-	
	군문열림	용궁비다발의 문과 어업과 관련된 문들을 여는 과정	손등을 꺾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손춤 노래와 함께 요란한 도량춤	
	심방아 분부시킴	심방이 신이 내린 분부의 말씀들 자손들에게 전달함	-	
	새드림	굿판의 부정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정화의례(淨化儀禮)	물그릇의 정화수를 땃았는지 감상가에 적서 뿌리며 부정들을 씻는 노래와 함께 추는 춤	
	신청례	신들을 안내하여 제장 안에 모셔 들이는 청신의례	신칼로 쌀을 떠서 시방에 뿌리며 신들을 안내하는 춤	
	정대우	신들의 자리를 배정하여 좌정하게 하는 과정	-	
요 왕 맞 이	자손들 절시킴	자손들이 차례로 좌정한 신들에게 절하는 과정	-	
	방광침(기원)	심방이 징을 치며 신에게 기원하여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	-	
	추물공연(공연)	제장에 좌정한 신들을 모시고 온갖 제물을 신에게 대접하는 과정	-	
	요 왕 질 친	수장구길 돌아봄	-	요왕문 사이를 돌아보는 춤
		언월도로 베기	-	신칼을 들어 해초를 베는 시늉의 춤
		작태기로 치우기	-	땃가지를 들어 치우는 시늉의 춤
		은따비로 파기	-	따비로 파는 시늉의 춤
		발로 고르기	-	발로 밟아 고르는 시늉의 춤
		물메로 깨기	-	요령을 흔들며 돌을 깨는 시늉의 춤
		삼태기로 치우기	-	해녀들이 나와 돌을 치우는 동작 재현
		마레갯대로 고르기	-	신칼을 들어 평평하게 밟아 닦는 시늉의 춤
		이슬다리 놓기	술을 뺏어 이슬다리를 놓음	-
		미룬다리 놓기	띠를 한줌 뿌려 놓음	-
		내비다리 놓기	중이조각을 요왕다리 중심 공중에 뿌림	-
		요왕다리 놓기	요왕길 사이로 무명 길게 깔아 놓음	-
차사다리 놓기		요왕다리 옆으로 무명을 깔아 놓음	-	
울구멍 메우기		무명 위에 쌀을 뿌림	-	
시루다리 놓기	시루떡 조각을 뿌림	-		
흥미음다리 놓기	요령을 흔들	-		
요왕문 열림	요왕문으로 꽃이놓은 땃가지를 하나씩 뺏어나감	-		

표 5-4.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씨드림)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씨드림	씨드림	해녀 채취물(미역 전복 등)의 씨를 바다에 뿌려 많이 번식하게 하는 과정(播種)의례	요리한 장단에 맞추어 해녀들이 나와서 한친동안 광적인 춤은 춤
	씨점	풍흉을 짐치는 과정	-

표 5-5. 칠머리당영등굿의 연행과정(마을도액막음)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마을도액막음	마을 도액막음	사람 목숨 대신 닭을 잡아기라고 수탉을 바깥으로 내던져 액을 막음	-
	각산받음	초감제 때 열명 한 모든 집안의 자손들의 한 해 운수를 봐주는 과정	-

표 5-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연행과정(영감놀이)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영감놀이	영감칭함	-	향로와 요령을 들고 바깥을 향하여 신을 맞이하는 춤을 춤
	서우젓소리	-	서우젓소리에 맞추어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춤을 춤
	배방선	제물을 실은 짚배를 바다 멀리 띄워 보냄	-

표 5-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연행과정(도진)

제차(第次)		의식적 행위	춤적 의식
도진		모든 신들을 돌려세워 원래의 자리로 보내는 과정	-

이상의 <표 5-1>부터 <표 5-7>까지 살펴본 결과, 칠머리당영등굿의 절차 중에서 춤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요왕맞이, 초감제, 본향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해녀춤에 나타난 민속놀이와 연희

민속놀이란 민간의 세속에서 기층 민중들에 의해 행해지며 전해져 온 것을 뜻한다. 그만큼 유구한 역사성은 물론 각 지역마다의 특성과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민속놀이는 민중들의 감정적 공감대를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삼는다. 이는 다시 말해 민속놀이가 민중들 삶의 고뇌와 애환을 해소하고 동질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간혹 놀이형태가 아닌 것, 말하자면 노동의 형태나 의례형태, 또는 일반 민속과 관련되는 경우를 민속놀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예컨대 평사냥놀이, 달구짓기놀이, 모래뽕질),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속놀이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민속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놀이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즉 서로간의 유희적인 즐거움을 전제로 하거나 이러한 것을 상당부분 포함하는 민속만을 민속놀이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³³⁾

이러한 민속놀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를 바탕으로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르는 자유로운 삶의 한 가운데 정제(整齊)되고, 제도화되고, 정형성을 띠면서 전승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술성이 내재하므로 ‘민속예술’에 포함되는데 각 지방마다 민속의 특수성과 향토의 특색을 갖춘 것들이다. 이것은 향토색이 짙기 때문에 ‘향토예술’이라 하고, 전승집단이 민중이고 전승매개체가 민간이므로 ‘민속예능’, ‘민간예능’, ‘민간기예’, ‘민중예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대대로 전해진 자연발생적 예능으로서 민중생활에 규범적 의의를 가지고, 민간의식에 깊이 작용하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⁴⁾

33)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2001). 『제주의 놀이문화』. 경원인쇄사, p. 6.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멋과 흥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녀가 한 곳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가 밤낮을 이어 몇 날이고 계속되었으며 손짓, 어깨짓, 다리짓이 모두 가락에 어울렸다. 2, 3세기의 중국인들이 우리 선조들의 이와 같은 멋과 흥에 넘치는 생활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들에게도 그런 생활이 매우 특이하게 느껴지고 부럽게까지 생각되었던 듯하다. 부여의 영고(迎鼓), 예(禮)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 삼한의 제사 따위를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멋과 흥과 가락은 오랜 세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우리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민속이 되었으며 탈춤이나 민요, 농악이나 놀이의 형태로 정착되어 오늘날 우리가 즐기게 된 것이다.³⁵⁾

제주의 민속놀이 또한 신화를 비롯한 모든 무형적인 민속과 함께 독특한 향토색을 띠고 있는데 “그 소재 면에서 종교의식이 곁들인 집단적이요, 고대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본토와는 판이한 놀이의 보고(寶庫)”³⁶⁾라고 인정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는 제주도가 내륙과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교류가 활발치 못했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풍토적 조건에 맞게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 고유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의 민속놀이는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척박한 생활환경 탓으로 한가한 농한기나 계절이 바뀔 때 등의 시기만 다소간의 놀이문화가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파악되는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때 ‘제주도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꼽히던 것이 해녀였다. 그만큼 제주도는 해녀와의 연관성이 깊고 그에 따라 제주해녀들의 이미지는 ‘제주의 어머니’로 상징되어 왔다. 그리고 제주해녀들은 “일

34) 장정룡 등(2002). 『우리 민속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p. 351.

35) 김광언(1996). 『민속놀이』. 주식회사 대원사, p. 68.

36) 진성기(1975). 『남국의 민속놀이』. 흥인문화사, p. 7.

본 아마(海女)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드문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 각처와 일본 등지로 출가문질 가셔도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바다어장을 일구면서 돈을 벌어 제주 경제의 주역을 담당³⁷⁾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제주해녀들의 삶 언저리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극복을 위한 아픔이 배어있다. 예로부터 바닷일은 너무 거칠고 힘들어 여자들로서는 금기시된 직업이었지만 제주도의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생활고를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다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열악한 토양, 과중한 부역으로 인한 남성 수의 감소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제주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변화가 심하며 바람과 돌이 많은 화산섬으로서 지형구조는 화산섬 특유의 현무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않아 논농사가 잘되지 않고 밭농사를 위주로 하였으며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으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근거리 어업인 해산물 채취와 집안일, 밭농사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육지 여성에 비해 생활력이 강인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해녀 역사의 근본³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되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해녀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해녀춤이며 따라서 이 춤은 제주 전통춤의미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제주의 해녀춤은 제주무용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송근우에 의해 그 학술적 가치와 전승보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송근우는 1960, 1970년대 제주무용계의 독보적인 인물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前국립무용단장 송범에게 무용을 사사했으며 귀향하여 제주북교, 제주사범학교, 제주여고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양

37) 좌혜경(2009).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회문화프로그램 개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8, p. 89.

38) 손영수(2000). 탐라순력도를 이용한 관광 상품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제주시 탐라순력도 연구회, p. 367.

성하고 제주도 고유의 민속무용을 발굴·재창조하는 작업을 하였다.³⁹⁾ 특히 그에 의해 춤사위가 정립된 해녀춤은 이후 <해녀놀이>라는 이름으로 1967년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1971년 제2회 아시아 국제예술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1980년, 송근우가 작고한 후에는 제주도립예술단 초대 안무자였던 송근우의 제자 김희숙에 의해 그 맥을 잇고 있다. 또한 학창시절 송근우 제자였던 양성옥이 제주도립예술단 안무자(2004-2007)로 활동하면서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역동성을 가미하여 해녀춤을 무대화로 승화시켰다⁴⁰⁾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시무용이 모방에서 비롯되었듯이 해녀춤은 생활 양태에서의 놀이적인 형상을 예술로써 조형적으로 동작화 하였고, Proscenium Arch(액자무대)의 무대 구조에 적용되는 춤의 자세로 미적으로 동작이 구성된 춤사위임을 밝힌다. 무보에 의한 춤사위는 규격화 되어 있지만 실연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춤의 선이 다르고 또는 감정이입에 따라 춤의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류(과)별로 춤의 기법과 표현양식이 다르고 실연자의 예술과정에 따라 다른 특성의 춤을 받아들일 때 이질감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춤이 획일성을 갖지 못하는 연유이다.⁴¹⁾ 그러나 춤의 형식은 내용을 가시적으로 조형해 낸 내면적 요소 즉, 내용에 대한 하나의 표현방법이며 조형해 내는 사람의 의식세계를 작용하는 한 시대의 문화·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나의 미의식으로 조형 된다⁴²⁾는 측면에서 제주 해녀춤의 가치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적인 무용예인이 없었기에 타지방의 무용과는 달리 특징적인 무용을 찾기 힘들다는 척박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 2』. 제주특별자치도, p.153.

40) 고춘식(2008). 「제주 해녀춤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41) 양성옥(2005). 『해녀춤·물허벅춤』. 제주도문화진흥원, p. 12.

42)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6). 『제주도지: v6 문화·예술』, 제주도, p.305.

3. 제주무용공연예술의 현황

제주도의 문화예술은 내륙과 동떨어져 있는 고립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예술적, 학문적 연구의 측면에서 외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민속 문화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용문화의 경우,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순력도,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 등에 그 실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에 따라 이의 전승, 보전을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는 제주도의 유일한 전문무용단체인 제주도립무용단의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립무용단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노력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립무용단의 존재 여부조차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지 아주 모호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대두되는 현안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적지 않다. 공연 내용 자체가 일관된 체계성 없이 행사위주로 치러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탐라순력도에 내재된 춤의 형태나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 등의 형태와 가치를 복원, 발전시키기에 요원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립무용단의 생성배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공연내용과 예술적 성향을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향후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의 무용문화를 보존, 육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인 동시에 제주도 무용의 원형을 확립하는 첩경이라 여겨진다.

가. 제주도립무용단의 생성배경

제주도립무용단은 1964년 4월20일, 제주민속예술단이란 이름으로 처음 창단되었다. 제주 전래의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이를 예술로서 승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성화를 이룬 것은 초창기에 지도교사로 참여했던 송근우가 단장을 맡으면서 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송근우가 단장을 맡은 이래 10년이 넘는 동안 제주도를 대표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최고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로를 세웠고 상설 민속극장을 개설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950회의 공연을 가진바 있다. 하지만 1980년 갑작스런 그의 급서로 인하여 이러한 대부분의 활동은 중단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85년 9월 16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관립예술단체이며 제주도립예술단의 모태인 제주시립민속예술단이 창단되었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청에서는 예술단체로서 제주시립 관현악단, 제주시립 합창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정적으로 아주 빈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토속적인 민속공연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7년에 재단법인 제주도민속예술단이 설립 등록, 마침내 1990년 3월2일에 제주도립민속예술단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은 무용부, 민요부, 놀이부 등 3개부를 두고 각부마다 1명의 수석단원 등 정원 50명의 단원으로 직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시는 27명의 단원으로 발족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주도민은 제주도립예술단을 무용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창단의 목적은 종합예술단으로 무용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예술 성격의 포괄적인 작품을 소화할 수 있게 하여 폭넓고 다양한 공연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⁴³⁾

이후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은 1997년 제주도립예술단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그동안

4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 2』. 제주특별자치도, p.160.

소외되었던 제주민속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계승,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제주관광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공연, 제주민속을 알리는 해외교류 공연, 수많은 국제 행사, 그리고 도 내외 행사에 참여하여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문화예술사절단으로서의 한 몫을 담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제주무용 복원을 위한 정기공연

제주도의 민속무용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대내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제주시립민속예술단이 창단되면서부터이다. 이 단체는 현 제주도립예술단의 모태인 동시에 나라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제주도 최초의 관립단체였다. 결국, 이 시기부터 무용단은 민요단이나 무속단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나름의 영역을 구축한 것인데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1985-2009년 제주도립무용단 공연활동 현황

번호	공연일자	작품명	구분	스텝	출연인원	소요시간	정기공연
1	85. 7. 20	물허벅춤	소작품	대본: 정수환(원작) 김택근(재구성)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8	7	
2		해녀춤			6	7	
3		연물놀이			13	10	
4	88. 8. 25	탐라개벽	대작품	대본: 김택근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20	50	
5	90. 8. 25	생불화	대작품	구성: 조영배 안무: 김희숙 작곡: 조영배	35	50	1
6	90. 10. 3	무속의 군무	소작품	대본: 조영배 안무: 김희숙	15	13	
7		사물놀이	소작품		8	15	

				작곡: 조영배			
8	91. 4. 30	영감놀이	소작품	기획: 김택근	28	30	2
9		입춘굿놀이	소작품	안무: 김희숙 작곡: 한상일	23	20	
10	91. 12. 22-23	만덕송가	대작품	대본: 정수환 안무: 장효순 작곡: 한상일	41	50	3
11	92. 6. 4	제주판굿	대작품	구성: 고영일 안무: 김희숙 작곡: 김영동	32	40	4
12	92. 12. 10	신방덕이	대작품	대본: 정수환 안무: 김희숙 작곡: 조영배	30	50	5
13	93. 5. 22	김녕사굴제	대작품	대본: 예술단공동 안무: 김희숙	32	30	6
14		연물과 사물의 만남	소작품	작곡: 고영일			
15	93. 12. 4	설운아기의 배꼽덕	대작품	대본: 고영일 안무: 김희숙 작곡: 고영일	28	50	7
16	94. 4. 30	제주굿놀이	소작품	대본: 김택근	31	40	8
17		풍물모음 굿놀이		안무: 김희숙 작곡: 김택근	31	20	
18	94. 12. 10	탐라세시기	대작품	대본: 정수환 안무: 김희숙	41	60	9
19	95. 5. 18	오들또기		작곡: 자체/조영배	41	50	10
20	95. 8. 13	함성	대작품	대본: 김택근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35	50	
21	95. 12. 16	사또놀이	대작품	대본: 고영일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35	50	11
22	96. 4. 27	삼다도 이야기	대작품	대본: 조영배 안무: 김희숙 작곡: 조영배	43	50	12
23	96. 12. 21	자청비연	대작품	대본: 김택근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36	50	13
24		무속악의 어울림	소작품	대본: 고영일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8	10	
25	97. 6. 28	산호수의 전설	대작품	대본: 조영배, 정수환	36	45	14

				안무: 김희숙 작곡: 한재준			
26	97. 7. 10	삼다꽃 춤	소작품	대본: 김택근	15	50	
27		퇴송군무		안무: 김희숙 작곡: 한재준			
28	97. 12. 20	하늘의 울음	소작품	대본: 김택근	36	50	15
29		땅의 소리	소작품	안무: 김희숙			
30	98. 6. 11	한라 영산	소작품	대본: 조영배 안무: 김희숙	34	50	16
31		신명		대본: 김형진 안무: 김희숙			
32		너른바당		대본: 오성찬 안무: 김희숙			
33	98. 11. 27	서천꽃밭	대작품	대본: 강용준 안무: 장효순 작곡: 원일	35	43	17
34	99. 3. 30	시의 음악과 무용의 만남	소작품	대본: 조영배 안무: 김희숙 외 3 작곡: 오승식 외 4	40	50	
35	99. 7. 30	탐라 그 민속무전	대작품	대본: 장일홍 안무: 김희숙 작곡: 안성복	35	50	18
36	99. 11. 26	바다의 침묵	소작품	대본: 고영일	35	50	19
37		탐라의 맥박	소작품	안무: 김희숙 작곡: 자체			
38	00. 4. 28	생불화	대작품	대본: 조영배 안무: 김희숙 작곡: 조영배	29	50	20
39	00. 12. 22	제주섬 연가	대작품	대본: 김정학 안무: 김정학 작곡: 홍동기	34	60	21
40	01. 5. 16	제주의 새 몸짓 2001 '춤·춤·춤'	대작춤	대본: 김정학 안무: 김정학 작곡: 홍동기	40	40	22
41	01. 11. 30	제주의 새 몸짓 2001 '연(緣)과 혼(魂)'	대작품	대본: 정인수 안무: 김정학 작곡: 강문철	40	50	23

42	02. 4. 25-26	도약의 새 몸짓 '제주섬 연가'	대작품	대본: 김정학(재구성) 안무: 김정학 작곡: 홍동기	40	60	24
43	02. 11. 28-29	도약의 새 몸짓 '붉은 영혼'	대작품	대본: 조홍동 안무: 김정학 작곡: 홍동기	40	80	25
44	03. 7. 23	세계로 향한 제주춤 I '바람의 나라'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홍동기	40	80	26
45	03. 11. 30	세계로 향한 제주춤 II '들의 무늬'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이경섭, 김태완, 김성국	40	80	27
46	04. 5. 28	세계로 향한 제주춤 III '한국 그 춤의 향기'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이경섭, 김성국	30	100	28
47	04. 10. 29	세계로 향한 제주춤 IV '들의 무늬 II'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이경섭, 김성국	26	70	29
48	05. 7. 25-26	세계로 향한 제주춤 V '오름의 바람-평화'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고춘식 작곡: 홍진표	33	100	30
49	05. 11. 24	세계로 향한 제주춤 VI '비넌 2005'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김백찬	34	60	31
50	06. 7. 28	세계로 향한 제주춤 VII '해류(海流)'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자체	24	90	32
51	06. 11. 25-26	세계로 향한 제주춤 VIII '풍뎡-바람의 꿈'	대작품	대본: 김기원 안무: 양성옥 작곡: 김백찬	44	100	33
52	07. 7. 13-14	세계로 향한 제주춤 IX '설·화-그 근간을 찾아'	대작품	대본: 조주현 안무: 김정희 작곡: 임진영	39	80	35
53	07. 11. 24-25	세계로 향한 제주춤 X '단장 물과 사람의 노래'	대작품	대본: 조주현 안무: 김정희 작곡: 임진영	41	80	35
54	08. 7. 25-26	세한연후(歲寒然後) -추사의 삶과 여백...	대작품	대본: 조주현 안무: 김정희 작곡: 임진영	41	80	36
55	08. 11. 21	탐라순력도 -상상과 변용을 엮는다	대작품	대본: 강용준 안무: 김정희	31	90	37

				작곡: 이익성			
56	09. 5. 20	오름의 바람-평화Ⅱ	대작품	대본: 김기원(재구성) 안무: 고춘식 작곡: 자체	35	90	38
57	09. 10. 23-24	탐라 천년의 舞·樂 -탐라향	대작품	대본: (재구성) 안무: 양성옥 작곡: 이경섭	30	110	39

위의 <표 6> 제주도립무용단 공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85년부터 2009년까지 39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총 57회의 공연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 무용의 향토성이 내재된 춤 원형의 복원, 계승을 위한 노력이 제주의 전문단체인 제주도립무용단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9년 39회까지 이루어진 정기공연의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회 정기공연 <생불화>

1990년 8월 30일 제주도립민속예술단 창단공연으로 무용극 <생불화>가 무대에 올려졌다. 이 작품은 제주도의 전통 무속의례에서 구설로 전해지는 불도맞이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극으로 생불화로 상징되는 삼승할망과 악의 꽃으로 상징되는 저승할망의 갈등구조를 그린 것으로 제주도의 토속적 신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창작극이다. 안무는 김희숙, 연출은 이창훈, 음악은 조영배가 담당하였고, 지도위원인 김정학(前 제주도립예술단 민속무용단 상임안무자)을 대동하여 한 달 동안 창단 공연 안무를 지도한 작품이다.

2. 제2회 정기공연 무용극<입춘굿놀이>, 마당극<영감놀이>

이 두 작품은 제주도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전승하며 보존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입춘굿놀이>는 입춘날 제주목 관아에서 관과 민이 함께 치르던 굿놀이이고,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무속의례인 무당굿에서 펼쳐진 놀이로 제주도 무형문

화제 제 2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영감놀이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복합적인 종합예술로 학술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제3회 정기공연 <만덕송가>

제주의 역사적인 인물 김만덕의 일대기를 무대 작품화 하면서 그 가룩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시키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에서 사실적으로 형상화함에 앞서 역사적 기록 뒤에 내재된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내면성과 시대적 상황을 표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장감 있는 무대 예술기법을 최대한 활용한 작품이다.

4. 제4회 정기공연 <제주판굿>

풍물굿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곳으로 영감놀이, 무속의 군무, 해녀춤, 물허벅춤 등 제주 토속적 이미지인 소 작품을 함께 무대에 올렸다.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이 정기공연 외에 특별공연 해외공연이 잦아지면서 대작위주의 작품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소 작품 개발에 힘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5. 제5회 정기공연 <산방덕이-백록의 처녀>

이 작품은 산방산에 얽힌 내력을 소재로 하여 무대화한 작품으로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무대구성을 고집하지 않고 예술단원들의 역량과 작품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시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총 3막 10장의 구성으로 백록의 춤, 선녀의 춤, 결혼축제의 춤, 이별의 춤, 바람과 파도의 춤 등등 총 10가지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제6회 정기공연 <김녕사굴제>, <연물과 사물의 만남>

김녕사굴제는 전설가운데 뱀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부분과 이러한 지역적 약습을 없애는 과정 등을 형상화 하였다. 연물과 사물의 만남은 육지부의 모든 타

악기와 제주도 무속에 쓰는 연물들이 만나 육지부의 빠른 박자인 휘모리, 이채, 다드래기와 제주의 둥글마게 장단이 어울려 제주연물 가락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독특한 가락과 장단의 특출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7. 제7회 정기공연 <설운아기 배꼽덕>

마당극형식의 작품으로 해학성에 중점을 두고 연희형태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둔 작품이다. 특히 제주민요를 단원들이 직접 부르며 춤을 추고 곡도 7분박 체계를 처음 시도하는 한편 제주굿을 이해시키고 즐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작품 의도를 둔 작품이다.

8. 제8회 정기공연 <제주굿놀이>, <풍물모듬굿놀이>

제주전례의 무속제의 절차, 공동체의 건강한 노동과 놀이 모습을 연계해 보여준 작품으로 제주굿 놀이는 신을 청해 들이는 과정, 입춘맛이 본풀이 과정, 삼공맛이 본풀이 과정 각종비년과정(퇴송군무)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풍물모듬굿 놀이는 제주무속에 쓰이는 연물악기와 사물의 독특한 가락과 장단의 맛을 강조한 작품으로 척박한 제주의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힘 있는 탈춤으로 표현하고 군무를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삶의 보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9. 제9회 정기공연 <탐라세시기>

우리조상의 미풍양속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1부는 화반놀이 2부는 세시모음 3부는 백중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대본을 집필한 정인수는 새로운 소재와 공연형태의 무대화에 대한 모험적 도전에 우려했지만 예술가에게 있어 실험 정신은 현실에 안주했을 때 보다 10년 이상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 제10회 정기공연 <오돌또기>

제주에 널리 알려진 제주민요 오돌또기를 소재로한 작품으로 서민적이고 애절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추상적인 무대기법을 접목시킨 공연이다. 작품은 말뚝과 노랫말의 전형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오돌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중에서 여사당 임춘향과 김복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상징적인 춤사위로 내용을 풀었다. 제주민요의 우수성을 무대 위에 형상화하는데 무용극 오돌또기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 제11회 정기공연 <사또놀이>

지역에 따라<원님놀이>, <관가모심>, <원님모시기> 라고도 하는 사또놀이는 제주에만 있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산북지역에서는 오래전에 없었고 산남지역에 70년대 말까지 놀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 사또놀이의 민요적 측면에서의 의식요인 꽃불염이든가 진도굿소리, 행상소리, 야오소리, 달구소리 등을 통하여 통과 의례 중 하나인 장례에 대한 제주민의 의식을 살필 수 있으며 슬프고 힘들기만 한 장례 끝에 놀이를 계기로 마을 공동체의 힘을 궁극적으로 모으는 즐거움을 볼 수 있으며, 마을 내에 있던 구원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자치력과 풍자, 해학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12. 제12회 정기공연 <삼다도 이야기>

제주에 삼다는 여자, 바람, 돌, 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주의 상징이다. 총 3부로 1부에는 탄생춤, 푸다시춤, 신랑각시춤, 2부에는 도랑춤, 바닷바람 춤, 가락거리와 서웃거리 춤, 돌의 춤, 노동의 춤 3부에는 저승사자 춤, 영계울림의 춤, 환생의 춤 등 각 장에서 독립적인 형태의 춤들이 유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13. 제13회 정기공연 <무속악(巫俗樂)의 어울림>, <자청비연>

이 작품은 제주도립 민속예술단이 해왔던 무용극에서 탈피한 작품으로 무용, 합창, 연극이 한데 어우러져 종합 뮤지컬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청비던은 자청비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하여 제주 무속신화 뮤지컬로 본다는 타이틀로 내세운 작품으로 언론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로 평하였던 작품이다.

14. 제 14회 정기공연 <산호수의 전설>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의 마지막 공연으로 상군 줌녀라는 인물을 매개로 제주인이 살아왔던 삶을 생생하게 표출해 내면서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5. 제15회 정기공연 <하늘의 울음>, <땅의 소리>

1997년 제주도립 민속예술단의 무용부가 확대 개편되어 제주도립예술단 민속무용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무용단체가 되었던 해에 첫 작품으로 전통무속의례 중 초공맞이 제의절차에서 심방이 구설로 푸는 애기씨 신의 내력을 무용극화한 것이다. 당시 공영일 단무장은 제주 땅의 소리는 극중 내용에서 탄생한 연물이라는 약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1부와 2부의 연계적 구성이 돋보였고 타 지역에 없는 장고와 북, 연물의 생성 영원 전설을 무용극과 연주로 해석해냄으로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6. 제16회 정기공연 <한라영산 신명 너른바당>

조영배 예술감독 영입 후 첫 번째로 기획된 작품이다. 당시 경제위기인 IMF 로 인한 예산삭감과 제주 섬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와 겹치는 상황으로 인적 시간적 부족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올려진 작품이다. 안무는 상임 안무자의 추천 하에 4명의 단원이 공동안무를 함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안무를 시도했고 사물

놀이 구성을 악보화하여 체계화하는 시도였다.

17. 제17회 정기공연 <서천꽃밭>

객원 안무자 장효순에게 의뢰한 작품으로 강용준의 대본 ‘서천꽃밭’을 무용적인 시각에서 각색하여 한국적 창작무용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서천꽃밭이라는 설화 속에 드러나는 제주인의 정신, 즉 척박한 자연환경과 투쟁에서 생명보존에의 강인한 도전의지를 춤사위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특히 서천꽃밭은 창단 9년을 맞아 도립예술단의 첫 유료공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지나친 현대성과 지나친 추상성이 제주의 향기를 앗아가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을 내린 작품이다.

18. 제18회 정기공연 <탐라, 그 민속무전 일이여, 놀이여, 춤이여>

이 공연은 그동안의 무용극 형식에서 벗어나 제주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놀이와 노동을 제주민요와 춤으로 담아냈다. 특히 무대미술연구소의 고증을 거친 소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제주의 전통의 무속악기인 무속장고(말명장고), 돌투성이 땅을 갈고 파는데 쓰였던 따비와 곶배, 집줄놓기 할 때 쓰였던 호랭이, 풀무걸 용구 등이 그것이다.

19 제19회 정기공연 <바다의 침묵, 탐라의 맥박>

이 작품은 제주도 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인 김윤수 심방이 특별출연과 지도를 맡아 관심을 끌었다. 이 작품은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석이 된 고씨 처녀의 전설을 다루고 있는 절부암 이야기와 제주무속을 고리 굿 형태로 재해석하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소리굿 탐라의 맥박은 제주의 굿을 문화를 예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고 굿의 원형을 발견 하는데서 부터 무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김윤수 심방이 직접 무대에 출연해 제주 연물을 중심으로 한 소리로 터를 닦고 부정한 것을 씻어

내는 신맛이 과정을 풀어냈다. 이 공연에는 무의탁 노인과 환경미화원 200명이 무료로 관람해 문화를 통한 정 나누기를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 제20회 정기공연 <생불화>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립예술단 창단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예술단이 개발한 작품들을 재정립 하고 이를 도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예술단과 도민들 간의 거리를 좁힌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립예술단 민속무용단 레파토리화 작업의 첫 작품으로 김기원 제2대 제주도립 예술감독이 기획 연출을 맡았고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초연 무대 재연에 충실했다. 한편 창단 공연 때에 심혈을 기울려 개발된 전통 춤사위의 표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제주민속예술단의 자부심을 심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주민속무용의 세계화 작업의 기폭제 역할에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1. 제21회 정기공연 <제주섬 연가>

2000년 김정학을 정기공연 작품 객원 안무자로 선임하여 무대화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관객들과 도내 예술인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지켜보고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당시 언론보도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로 평하고 있다. 흥윤애와 조정철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예감케 하는 타악기의 불협화음으로 막을 연 이번 공연은 안무와 극의 구성 면에서 이전의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작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세월의 흐름을 연상케 하는 학춤과 역새춤을 비롯해 극의 마지막 부분에 흥윤애의 한을 달래는 군무는 따로 소품으로 공연해도 좋을 만한 안무적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22. 제22회 정기공연 <새천년 제주의 몸짓 2001 - 춤 춤 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한국 전통 레파토리와 제주자연을 소재로 한 창작춤

개발에 역점을 두는 등 새 몸짓의 제주도립예술단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 작품의 구성은 1부 <한국의 전통의 몸짓>에서 태평무, 회상, 장고춤, 진쇠춤 부채춤 2부 <비상! 제주 2001>에서는 겨울. 눈과 동백 그리고 노루, 봄. 유채꽃의 유혹, 여름. 바다의 여인들, 가을. 조랑말의 함성으로 꾸몄다. 이전까지의 제주의 민속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보여주었던 무대가 제주도민들과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립 예술단의 역할이었다면 이 작품은 국제자유도시의 중추적 예술단체로서의 제주도립 예술단의 역할이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23. 제23회 정기공연 <제주의 새 몸짓 2001 - 연(緣)과 혼(魂)>

당초 예정했던 작품 이어도를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공연이 촉박하게 이루어져 결국 공연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2부로 구성된 공연은 각기 독립된 무대로 1부는 새서방 바꾼 잔치라는 제주의 민담을 소재로 한 무용극이고 2부는 전통 타악춤을 새롭게 구성하여 공연 하였다. 2부는 혼의 열림은 북춤 등 풍부한 볼거리로 관객의 호응을 높였으나 당초 제주의 독특한 가락과 춤사위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얼마나 살아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4. 제24회 정기공연 <도약의 새 몸짓 - 제주섬 연가>

21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올렸던 제주춤 연가를 새롭게 재탄생 시킨 작품으로 초연 당시 제주도립예술단을 탈바꿈시킨 작품이면서 도민들이 관심과 호응도가 좋았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만남, 사랑, 이별을 춤의 언어로 형상화한 무용극으로 군무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단원들의 기량이 향상을 확인시켜준 무대였다. 하지만 학춤, 역새춤, 봉황춤 등 주제에 상관없는 군무에 치중함으로써 작품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이다.

25. 제25회 정기공연 <도약의 새 몸짓 - 붉은 영혼>

조흥동 대본의 김정한 안무로 무대에 올려졌다. 붉은 영혼은 일제 징용, 종군 위안부, 제주 현대사의 최대 참극 4.3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현대적 감각의 한국창작무용이다. 언론 보도에 붉은 영혼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민속과 설화, 자연을 소재로 한 춤사위에 익숙한 몸짓을 현대사에 잘 융해해 놓았다고 전했다. 조명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투입시켜 작품의 질을 높여주었고 특히 생체실험 마루타의 처절함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일본군의 폭력을 깃발로 보여준 깃발춤, 다랑쉬 동굴의 참상 등은 조명 효과가 컸다고 한다.

26. 제26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I - 바람의 나라>

2003년 3월 제주출신 무용인 양성옥이 비상임으로 위촉되어 올려진 이번 작품은 제주춤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번 작품의 소재는 프롤로그부터 제주무속, 신화와 전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주문화예술의 뿌리로서 무속, 신화, 전설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작품 ‘초원’과 신에 대한 염원을 함축하는 ‘비념’에서는 제주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신화와 전설 속 상상의 꽃 이야기를 엮은 ‘한라꽃춤’ ‘학과 나비’는 춤사위가 단아하고 화려했다. 에필로그의 ‘말의춤’은 말을 형상화한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몸짓이 관객을 매료시켰다는 평이다. 제주춤 미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제주형 작품으로 특별히 선정되어 공연된 만큼 무용수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이 충분히 보여진 무대였다고 한다.

27. 제27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II - 돌의 무늬>

세계로 향한 우리춤 두 번째 시리즈다. 돌의 무늬는 안무자가 제주형 작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손길을 더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돌의 무늬는 참꽃의 속삭임, 해녀춤, 오색조, 허벅놀이 등 모두 4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참꽃의 속삭임은 제주상징 꽃으로 참꽃의 흐드러진 무리를 한편의 서정시로 묘사했고 향발춤은 꽃수술과 번식을 위해 날아드는 벌과 나비와의 속삭임을 그렸다. 해녀춤은 지금껏 해녀

춤이라 불리는 춤사위가 있었으나 기본틀이 없이 난무함으로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춤의 전통적인 흐름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정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녀춤은 새벽녘 집을 나와 해질녘까지 이뤄지는 고된 물밑작업을 그렸으며 전통해녀복장을 복원하였다. 허벅춤 또한 해녀춤과 함께 기본틀을 마련하여 한국 전통춤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포부였다. 오색조는 제주섬을 지키는 새로 제주오색딱따구리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재해의 의미로 뱀을 설정했다. 뱀을 기다리는 암 오색조를 유린하는 뱀의 만행, 이를 안 수오색조의 슬픔과 뒤따른 광풍을 예고하는 광란의 춤, 뱀과 수오색의 처절한 싸움, 딱따구리를 신으로 추도하는 진혼제 등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허벅놀이는 다양한 허벅을 이용하여 타악과 접목해 응을 돋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소리춤, 물허벅춤, 대바지춤, 허벅합주로 구성되었다.

28. 제28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III - 한국, 그 춤의 향기>

세계로 향한 춤 세 번째 시리즈로 7개의 우리 전통춤이 올려 졌는데, 태평무, 처용무, 장고춤, 봉산탈춤, 살풀이 춤, 승무, 오고무 등이 그것이다. 한국 전통춤만으로 정기공연 레파토리화한 것은 이 공연이 처음이었다. 기존의 전통춤과 차별화를 위해 춤 음악을 새롭게 작·편곡했다. 작·편곡자는 김성옥이었으며,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이경섭이 지휘를 맡았고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단원들이 연주하였다. 작품 구성도 달리하여 전통춤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하되 제주라는 지역성을 부각시켜 나름대로 제주형 민속춤을 만들려고 했다. 특히, 장고춤을 제주민요 ‘오돌또기’와 ‘느영나영’을 삽입해 한층 흥겹고 정겨운 춤사위를 만들어 냈다.

29. 제29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IV - 돌의 무늬 II>

돌의 무늬는 이미 초연되었던 작품이지만 서울공연에 대비해 무대에 드러난 미비점 등 보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의 애환과 강인한 삶의 질곡을 표현

한 해녀춤, 제주민요 오돌또기를 배경음악으로 재구성 창작한 오돌또기 장고춤, 물허벅놀이 춤이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객지에서 타향살이 하는 재경도민들은 공연 도중 탐라 특유의 토속적인 향기가 배어나올 때마다 향수에 젖어 들기도 했다. 안무자 양성옥은 이 작품에 대해 제주춤의 기본 틀을 정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주춤의 맥락을 찾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해녀춤과 허벅놀이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작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30. 제30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V - ‘오름의 바람 - 평화’>

창단 15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세계를 향한 제주춤 오름의 바람-평화를 주제로 한 북의 대합주를 제주화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문화차원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의 정체성 부각에 역점을 둔 작품이다. 또한 한국 전통춤의 제주문화 자원화를 위한 공연의 차별화와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의 승화와 공연의 가치창출 등도 함께 꾀한다는 의도에서 공연 되었다. 무용수 40명이 출연한 역동적인 제주형 북의 대합주는 신영을 통해 제주인에게 긍지를 심어준 무대였다.

31. 제31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VI - ‘비념 2005’>

이 작품은 제주문화 자원화를 위한 ‘굿’을 무대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도로 기획되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김윤수가 특별출연해 작품의 깊이를 더 해주었던 작품으로 ‘비념’은 축원과 기원의 의미를 지닌 제주방언으로 제주인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기위한 해원의식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작품 구성은 삶과 죽음 2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32. 제32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VII - ‘해류(海流)’>

제주춤 문화자원화를 목표삼아 도립예술단이 2003년 바람의 나래를 시작으로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제주춤 시리즈의 일곱 번째 작품이다. 동시에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무대로 제주인의 강한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관객들에게 펼쳐 보였다. 기존에 개발된 작품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묶어 재창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해류 그 시작’, ‘해류 그 중심’, ‘해류 그 요동’ 등 세 개의 주제로 구성돼 11개의 작품을 엮었다. 첫 번째 테마 ‘해류, 그 시작’은 우리춤의 근원을 이루는 춤의 세계로 태평무, 처용무, 봉산탈춤의 세계로 안내했다. ‘해류 그 중심’에서는 참꽃의 속삭임, 해녀춤, 대바지춤, 푸는재춤 등 제주의 자연과 민속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창작춤으로 제주민속의 문화자원화와 제주춤의 세계화를 춤사위로 전했다. ‘해류, 그 요동’은 모듬북과 설장고, 오고무, 소고춤 등 역동적인 춤사위 세계 속으로 비상하기 위한 화합의 의미를 전했다.

33. 제 33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춤 VIII - ‘풍뎡 - 바람의 꿈’>

이 작품은 구성에서 의상, 무대, 안무까지를 새롭게 기획한 순수창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양의 12지신 전설과 전통춤, 전통예술인 굿과 현대춤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나 갈등, 삶과 죽음을 형상화해 보여주었다. 특히 12지신 왕무당, 무당, 해녀, 농부 등 여러 캐릭터에 맞춰 1인 5역을 했다. 독립예술단 단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독립예술단 관계자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송희영 교수(서울예대)는 “제주 굿과 제주춤과의 만남이란 발상이 신선했다. 다만 음악, 조명이 무대공연의 긴장감을 반감시킨 느낌이다. 이점만 보완한다면 뛰어난 공연물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영희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도 “놀랍다. 향토무용으로 출발한 제주도립예술단이 나날이 발전하는 느낌이다”라고 평하였다.

34. 제34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제주춤IX - ‘설·화 그 근간을 찾아’>

제주도립예술단은 지난 몇 년간 제주의 향토적인 민속춤과 전통춤을 레퍼토리로 개발, 매만지고 정립시키는 작업을 해왔기에 이 무대 역시 제주의 고유한 설화를

소재로 제주 춤의 근간을 더듬는 것으로 김정희 제주도립예술단 상임 안무자가 지난 3월 위촉된 이후 첫 무대라는 데 관심이 남다르다. 이번 작품은 제주도 창제설화인 설문대할망과 제의적 성격이 짙은 본풀이, 민간설화 등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35. 제35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제주춤X - '단장 물과사람의 노래'>

제주의 척박한 환경, 예로부터 제주민을 괴롭혔고 반복적인 수난의 역사는 오랜 세월 그들의 자리로 잡게 되었다 그러한 제주의 특수한 환경적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 민요는 물의 민요에 비해 매우 독창적이고 색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같은 한국 민요임에도 절해고도라는 환경적, 문화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다른 성격의 노래들이 불리어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생활풍습에서 비롯된 여인들의 억압된 심경이 많은 민요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과 농사에 사용할 경작지가 적고 잦은 바람과 온난 다습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노동요'가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요는 풍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제주도는 사람들의 삶을 민요에 투영시켜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36. 제36회 정기공연 <세한연후(歲寒然後) - 추사의 삶과 여백>

이 작품은 제주도 유배지에서의 추사의 삶의 역정과 인간적 고뇌, 그리고 부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로, 추사의 곧은 절개와 예술혼, 그의 자유로운 삶의 여백들을 춤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추사의 유배생활, 차(茶)를 매개로 이어지는 추사와 초의선사 간의 간곡한 우애, 부인'예안 이씨'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 고독하고 외로운 말년에 유배지를 찾은 지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준 세한도의 이미지 등을 춤으로 풀어 무대를 장식한다.

37. 제37회 정기공연 <탐라순력도 - 상상과 변용을 엮는다>

이 작품은 보물 제652-6호 탐라순력도를 재조명한 창작무용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선인들의 멋과 풍류를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또 외세침입에 대한 강인한 정신과 노인을 공경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통해 제주인의 화합 지혜 등 문화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는 탐라순력도 ‘굴림풍악(楡林風樂)’, ‘제주양로(濟州養老)’, ‘정방탐승(正方探勝)’ 등이 조선후기 제주춤의 고증과 재현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주목한 것으로 공연은 도립무용단이 이들 탐라순력도 그림에서 전통춤을 추정하고 이를 오늘날 미적 감성에 맞게 변용하고 재창조한 작품이라 하겠다.

38. 제38회 정기공연 <오름의 바람 - 평화Ⅱ>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제주의 상징인 오름과 오름에 피어나는 들꽃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4.3의 원혼을 달래고 화해와 상생,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춤사위로 표현했다. 또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제주사람들의 숭고한 의지와 슬기를 작품 속에 승화시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춤이라 할 수 있다.

39. 제39회 정기공연 <탐라 천년의 舞·樂 - 탐라향>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섬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물허벅’, ‘푸는채’, ‘고소리’ 등 제주의 전통생활용구를 춤사위에 담아낸 공연이 펼쳐진다. 과거 제주사람들의 생명수를 운반했던 허벅으로 흥을 돋우는 ‘허벅놀이’와 여자 어린이용 허벅 ‘대마지’를 활용한 ‘대마지춤’, 타작작업의 애환을 그린 ‘푸는채 춤’, 술을 빚을 때 사용했던 옹기 ‘고리’를 타악기로 활용한 ‘고소리춤’ 등 제주의 전통춤을 재창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의 주제는 크게 제의적, 문학적, 토속적, 자연적, 인물 등의 5가지로 나뉜다. 그 중 제의적 성향의 작품이 총 12작품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속적 성향의 작품이 11작품, 문학적 성향의 작품이 5작품, 인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 4작품, 자연적 성향의 작품이 3작품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들의 예술적 성향을 살펴볼 때 상당수의 작품들이 극(劇)이든, 악(樂)이든, 무용이든 간에 무속적인 형상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 문화예술의 전반에서 제주 굿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도립무용단의 공연이 너무 무속을 소재로 한 작품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는 또 다른 관점에 있어 제주를 대표하는 작품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하여 다양한 무대가 올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를 상징하면서도 그 정서가 흠뻑 담긴 해녀춤, 허벅놀이, 참꽃의 속삭임, 오색조, 조랑말춤, 연물놀이 등등의 전통춤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창작의지는 더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제주무용문화 원형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어야만 보다 많은 제주무용의 문화재 지정은 물론, 제주 고유의 무용사적 토대가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연구방법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제주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인식과 현황을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한 연구 I의 <좌담 및 대담>과 이를 토대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 II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I(부록 참고)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 9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회의를 통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 II의 조사방법은 신속한 정보를 얻기 위해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과 제주도 관광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응답자가 기재한 후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2010년 7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36부를 제외한 664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7>과 <표 8>과 같다.

표 7. 제주도 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성

범주	연령					총합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성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총합
	59명 22.01%	32명 11.94%	11명 4.10%	26명 9.70%	2명 0.75%	130명 48.51%
남	41명 15.3	57명 21.27	14명 5.22	21명 7.84	5명 1.87	138명 51.49%
	100명 37.31%	89명 33.21%	25명 9.33%	47명 17.54%	7명 2.61%	268명 100%
여	100명 37.31%	89명 33.21%	25명 9.33%	47명 17.54%	7명 2.61%	268명 100%
	100명 37.31%	89명 33.21%	25명 9.33%	47명 17.54%	7명 2.61%	268명 100%

표 8. 제주도민의 일반적인 특성

범주	연령					총합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성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총합
	10명 2.53%	20명 5.05%	60명 15.15%	31명 7.83%	16명 4.04%	137명 34.60%
남	23명 5.81%	38명 9.60%	78명 19.70%	85명 21.46%	35명 8.84%	259명 65.40%
	33명 8.33%	58명 14.65%	138명 34.85%	116명 29.29%	51명 12.88%	396명 100%
여	33명 8.33%	58명 14.65%	138명 34.85%	116명 29.29%	51명 12.88%	396명 100%
	33명 8.33%	58명 14.65%	138명 34.85%	116명 29.29%	51명 12.88%	396명 100%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7> 제주도 관광객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20세 이상~30세 미만’이 각각 37.31%, 33.2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학을 맞이하여 제주도로 여행 온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8> 제주도민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34.6%, 여성이 65.4%이며,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과 ‘40세 이상~50세 미만’이 각각 34.85%, 29.2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는 제주도 여행객 268명(40.36%), 제주도민 396명(59.64%) 총 664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하였으며, 설문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표 9. 설문지의 구성 내용

항목	구성 내용	문항 수
일반적인 사항	성별, 연령, 방문 목적	3
제주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관광객의 문화예술 참여동기,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 인식, 제주 민속무용, 탐라순력도, 칠머리당 영등굿, 해녀춤에 대한 인식, 민속무용을 관람하지 않는 이유	8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식	제주도립무용단 인지여부, 현실적 어려움, 불규칙적 한국무용 공연의 이유	3
제주 민속무용의 보존방안	민속무용의 전승방법, 효과적 전승여부, 전승이 잘 되지 않는 이유, 탐라순력도의 적합한 복원형태, 복원을 위한 선행과제	5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 및 대중화방안	대중화노력의 중요성, 정책적 노력, 상품화에 대한 애로사항, 칠머리당영등굿의 발전방안, 해녀춤의 대중화 방안, 효과적인 홍보수단, 행사 참여의향	7
계		19

3.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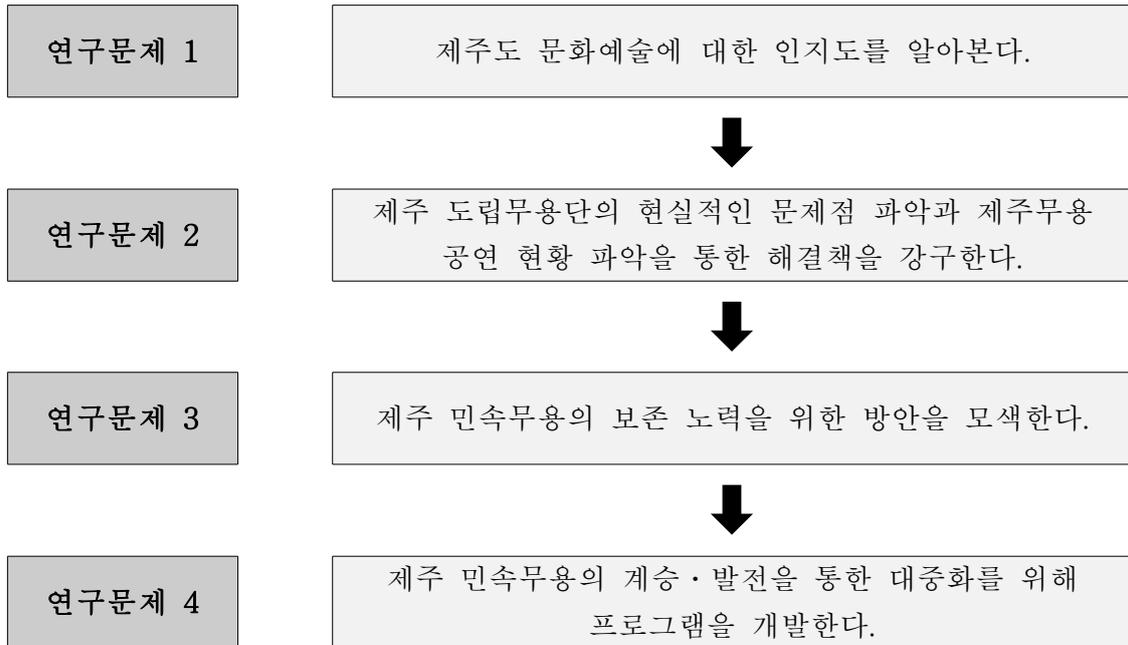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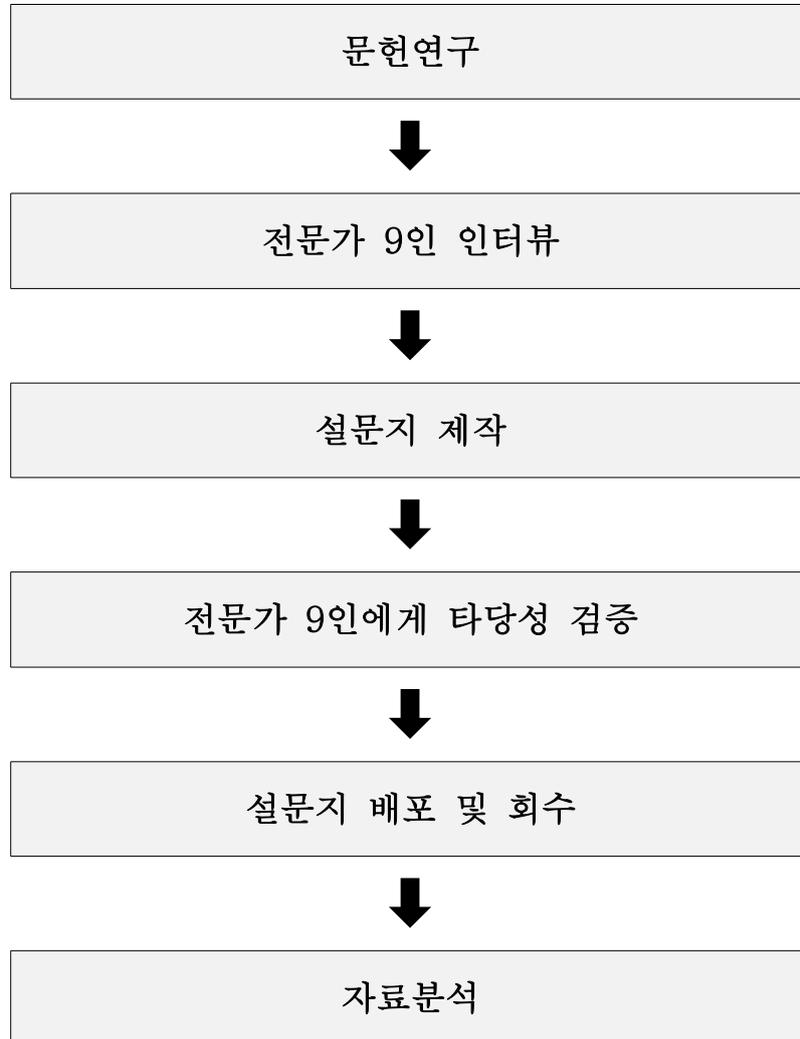


그림 3. 조사절차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은 모두 사회현상에서의 일반적인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1. 제주 민속 문화 현황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

가. 제주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

표 10. 제주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동기(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9	22	6	6	10	73	12.7059 (자유도: 4) 0.0128
		편차	0.3214	6.7296	-5.173	2.2755	-4.153		
		퍼센트	14.8	11.22	3.06	3.06	5.1	37.24	
	여	빈도수	48	19	24	4	28	123	
		편차	-0.321	-6.73	5.1735	-2.276	4.1531		
		퍼센트	24.49	9.69	12.24	2.04	14.29	62.76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9	6	10	4	22	61	58.7993 (자유도:12) <.0001
		편차	-4.964	-6.76	0.6633	0.8878	10.173		
		퍼센트	9.69	3.06	5.1	2.04	11.22	31.12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29	33	15	2	7	86	
		편차	-4.786	15.01	1.8367	-2.388	-9.673		
	30세 이상- 40세 미만	퍼센트	14.8	16.84	7.65	1.02	3.57	43.88	
		빈도수	16	0	1	2	0	19	
		편차	8.5357	-3.974	-1.908	1.0306	-3.684		
	40세 이상	퍼센트	8.16	0	0.51	1.02	0	9.69	
		빈도수	13	2	4	2	9	30	
		편차	1.2143	-4.276	-0.592	0.4694	3.183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77	41	30	10	38	196	
퍼센트		39.29	20.92	15.31	5.1	19.39	100		

(미응답자수 72명)

<표 10>과 같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타 지역의 문화예술과 차별성을 지닌 제주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타 지역의 의식, 축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가 39.29%로 가장 높고 ‘방문지의 사회에 섞여 그곳의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해보고자 하는 탐험적 동기’가 20.92%, ‘직접 참여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동기’가 19.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p: 0.0128$)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방문지의 사회에 섞여 그곳의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해보고자 하는 동기’와 ‘행사의 예술적인 내용을 즐기고자 하는 예술 향수의 동기’가 높고(편차: 각각 6.7296, 2.2755), 여성의 경우 ‘즐거운 분위기나 집단적 흥분감, 일체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와 ‘직접 참여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편차: 각각 5.1735, 4.1531), 일반적으로 제주지역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는 갖고 있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제주 문화에 대한 깊이를 더 느껴보고 싶어 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깊이보다는 제주 문화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제주문화예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8	43	11	33	10	125	23.3150 (자유도: 4) 0.0001
		편차	6.5053	5.6323	-4.212	7.537	-15.46		
		퍼센트	7.41	11.38	2.91	8.73	2.65	33.07	
	여	빈도수	37	70	35	44	67	253	
		편차	-6.505	-5.632	4.2116	-7.537	15.463		
		퍼센트	9.79	18.52	9.26	11.64	17.72	66.9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8	4	3	6	5	26	20.1463 (자유도: 12) 0.0644
		편차	3.5291	-3.772	-0.164	0.7037	-0.296		
		퍼센트	2.12	1.06	0.79	1.59	1.32	6.88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8	22	5	9	7	51	
		편차	-0.77	6.754	-1.206	-1.389	-3.389		
		퍼센트	2.12	5.82	1.32	2.38	1.85	13.49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4	40	18	36	20	138	
		편차	0.2698	-1.254	1.2063	7.8889	-8.111		
		퍼센트	6.35	10.58	4.76	9.52	5.29	36.51	
	40세 이상	빈도수	25	47	20	26	45	163	
		편차	-3.029	-1.728	0.164	-7.204	11.796		
		퍼센트	6.61	12.43	5.29	6.88	11.9	43.12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65	113	46	77	77	378		
	퍼센트	17.2	29.89	12.17	20.37	20.37	100		

(미응답자수 18명)

<표 11>과 같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타 지역의 문화예술과 차별성을 지닌 제주 문화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 고유의 문화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활용’이 29.89%로 가장 많았고,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창조’가 20.37%로 많이 나타났다. 즉, 제주도민들은 제주문화예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표 12. 알고 있는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관광객)

범주		분류	그러한 것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없다	조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6	47	54	23	0	130	31.3115 (자유도: 4) <0.0001
		편차	-15.83	2.8582	12.769	0.6866	-0.485		
		퍼센트	2.24	17.54	20.15	8.58	0	48.51	
	여	빈도수	39	44	31	23	1	138	
		편차	15.828	-2.858	-12.77	-0.687	0.4851		
		퍼센트	14.55	16.42	11.57	8.58	0.37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24	27	44	5	0	100	60.8090 (자유도: 12) 0.0644
		편차	7.209	-6.955	12.284	-12.16	-0.373		
		퍼센트	8.96	10.07	16.42	1.87	0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7	47	19	15	1	89	
		편차	-7.944	16.78	-9.228	-0.276	0.6679		
		퍼센트	2.61	17.54	7.09	5.6	0.37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	2	12	9	0	25	
		편차	-2.198	-6.489	4.0709	4.709	-0.093		
		퍼센트	0.75	0.75	4.48	3.36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12	15	10	17	0	54	
		편차	2.9328	-3.336	-7.127	7.7313	-0.201		
		퍼센트	4.48	5.6	3.73	6.34	0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45	91	85	46	1	268		
	퍼센트	16.79	33.96	31.72	17.16	0.37	100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를 살펴보면 33.96%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며, 31.72%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16.79%이며 오직 0.37%(1명)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별 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p < 0.0001$)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인지도가 더 낮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편차: 15.828).

표 13. 알고 있는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제주도민)

범주	분류	그러한 것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없다	조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5	25	55	42	0	10.8725 (자유도: 4) 0.028		
		편차	1.8535	0.0909	8.9874	-6.78	-4.152			
		퍼센트	3.79	6.31	13.89	10.61	0		34.6	
	여	빈도수	23	47	78	99	12		259	
		편차	-1.854	-0.091	-8.987	6.7803	4.1515			
		퍼센트	5.81	11.87	19.7	25	3.03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8	7	9	8	1	55.7654 (자유도: 12) <0.0001		
		편차	4.8333	1	-2.083	-3.75	0			
		퍼센트	2.02	1.77	2.27	2.02	0.25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1	24	10	13	0		58	
		편차	5.4343	13.455	-9.48	-7.652	-1.758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4	19	58	52	5		138	
		편차	-9.242	-6.091	11.652	2.8636	0.8182			
	40세 이상	빈도수	15	22	56	68	6		167	
		편차	-1.025	-8.364	-0.088	8.5379	0.9394			
		퍼센트	3.79	5.56	14.14	17.17	1.52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8	72	133	141	12		396	
		퍼센트	9.6	18.18	33.59	35.61	3.03		100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5.61%로 가장 많으며 ‘조금 알고 있다’가 33.59%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3.03%로 적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p: 0.028)가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편차: 각각 6.7803, 4.1515) 또한,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p<0.0001)는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편차: 4.8333, 13.455, 11.652, 8.5379).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탐라순력도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별	남	빈도수	27	32	52	13	6	130	31.2144 (자유도: 4) <0.0001
		편차	-10.84	-10.2	17.075	1.3582	2.6045		
		퍼센트	10.07	11.94	19.4	4.85	2.24	48.51	
	여	빈도수	51	55	20	11	1	138	
		편차	10.836	10.201	-17.07	-1.358	-2.604		
		퍼센트	19.03	20.52	7.46	4.1	0.37	51.49	
연령	20세 미만	빈도수	34	27	30	9	0	100	43.6641 (자유도: 12) <0.0001
		편차	4.8955	-5.463	3.1343	0.0448	-2.612		
		퍼센트	12.69	10.07	11.19	3.36	0	37.31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20	41	24	3	1	89	
		편차	-5.903	12.108	0.0896	-4.97	-1.325		
		퍼센트	7.46	15.3	8.96	1.12	0.37	33.21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4	9	6	6	0	25	
		편차	-3.276	0.8843	-0.716	3.7612	-0.653		
		퍼센트	1.49	3.36	2.24	2.24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20	10	12	6	6	54	
		편차	4.2836	-7.53	-2.507	1.1642	4.5896		
		퍼센트	7.46	3.73	4.48	2.24	2.24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78	87	72	24	7	268		
	퍼센트	29.1	32.46	26.87	8.96	2.61	100		

탐라순력도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도를 보면 ‘모른다’가 32.46%로 가장 많았고, 내용이라도 조금 들어본 경우가 26.87%,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29.1%로 많았다. 성

별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1, 편차: 각각 10.836, 10.2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편차: 4.8955, 12.108, 3.7612, 4.5896).

표 15. 탐라순력도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별	남	빈도수	28	33	42	34	0	137	11.4797 (자유도: 4) 0.0217
		편차	5.1667	-6.439	9.4798	-6.823	-1.384		
		퍼센트	7.07	8.33	10.61	8.59	0	34.6	
	여	빈도수	38	81	52	84	4	259	
		편차	-5.167	6.4394	-9.48	6.8232	1.3838		
		퍼센트	9.6	20.45	13.13	21.21	1.01	65.4	
연령	20세 미만	빈도수	20	7	2	4	0	33	104.6549 (자유도: 12) <0.0001
		편차	14.5	-2.5	-5.833	-5.833	-0.333		
		퍼센트	5.05	1.77	0.51	1.01	0	8.33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21	19	3	15	0	58	
		편차	11.333	2.303	-10.77	-2.283	-0.586		
		퍼센트	5.3	4.8	0.76	3.79	0	14.65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11	28	50	49	0	138	
		편차	-12	-11.73	17.242	7.8788	-1.394		
		퍼센트	2.78	7.07	12.63	12.37	0	34.85	
	40세 이상	빈도수	14	60	39	50	4	167	
		편차	-13.83	11.924	-0.641	0.2374	2.3131		
		퍼센트	3.54	15.15	9.85	12.63	1.01	42.17	
각 범주별	빈도수	66	114	94	118	4	396		
합계	퍼센트	16.67	28.79	23.74	29.8	1.01	100		

탐라순력도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9.8%로 가장 많았고, ‘모른다’가 28.79%, ‘약간 안다’가 23.74%순으로 많았다.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1, 편차: 각각

5.1667, 6.8232),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1$, 편차: 4.8955, 12.108, 3.7612, 4.5896).

표 16. 칠머리당영등곶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별	남	빈도수	20	52	47	11	0	130	34.8938 (자유도: 4) <0.0001
		편차	-14.44	7.8582	14.5	-5.978	-1.94		
		퍼센트	7.46	19.4	17.54	4.1	0	48.51	
	여	빈도수	51	39	20	24	4	138	
		편차	14.44	-7.858	-14.5	5.9776	1.9403		
		퍼센트	19.03	14.55	7.46	8.96	1.49	51.49	
연령	20세 미만	빈도수	25	37	33	5	0	100	50.6541 (자유도: 12) <0.0001
		편차	-1.493	3.0448	8	-8.06	-1.493		
		퍼센트	9.33	13.81	12.31	1.87	0	37.31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23	37	20	9	0	89	
		편차	-0.578	6.7799	-2.25	-2.623	-1.328		
		퍼센트	8.58	13.81	7.46	3.36	0	33.21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4	5	6	10	0	25	
		편차	-2.623	-3.489	-0.25	6.7351	-0.373		
		퍼센트	1.49	1.87	2.24	3.73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19	12	8	11	4	54	
		편차	4.694	-6.336	-5.5	3.9478	3.194		
		퍼센트	7.09	4.48	2.99	4.1	1.49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71	91	67	35	4	268		
	퍼센트	26.49	33.96	25	13.06	1.49	100		

칠머리당 영등곶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도를 보면 ‘모른다’가 33.96%로 가장 많았고, ‘처음 들어본다’가 26.49%, ‘약간 안다’가 25%순으로 많았다.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의 인지도보다는 극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p < .0001$, 편차: 14.44

와 5.9776, 7.8582와 14.5).

표 17. 칠머리당영등곳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별	남	빈도수	22	16	63	27	9	137	32.6836 (자유도: 4) <0.0001
		편차	9.1995	1.8157	13.874	-22.13	-2.763		
		퍼센트	5.56	4.04	15.91	6.82	2.27	34.6	
	여	빈도수	15	25	79	115	25	259	
		편차	-9.199	-1.816	-13.87	22.126	2.7626		
		퍼센트	3.79	6.31	19.95	29.04	6.31	65.4	
연령	20세 미만	빈도수	15	6	4	8	0	33	125.4595 (자유도: 12) <0.0001
		편차	11.917	2.5833	-7.833	-3.833	-2.833		
		퍼센트	3.79	1.52	1.01	2.02	0	8.33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13	13	19	13	0	58	
		편차	7.5808	6.9949	-1.798	-7.798	-4.98		
		퍼센트	3.28	3.28	4.8	3.28	0	14.65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8	10	61	54	5	138	
		편차	-4.894	-4.288	11.515	4.5152	-6.848		
		퍼센트	2.02	2.53	15.4	13.64	1.26	34.85	
	40세 이상	빈도수	1	12	58	67	29	167	
		편차	-14.6	-5.29	-1.884	7.1162	14.662		
		퍼센트	0.25	3.03	14.65	16.92	7.32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7	41	142	142	34	396		
	퍼센트	9.34	10.35	35.86	35.86	8.59	100		

칠머리당 영등곳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를 보면 '약간 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5.86%로 많았고, '모른다'가 10.35%순으로 많았다.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의 인지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0001, 편차: 9.1995와 13.874, 22.126과 2.7626).

표 18. 해녀춤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2	39	58	21	0	130	10.0529 (자유도: 4) 0.0395
		편차	-5.463	4.5597	5.6119	-2.769	-1.94		
		퍼센트	4.48	14.55	21.64	7.84	0	48.51	
	여	빈도수	24	32	50	28	4	138	
		편차	5.4627	-4.56	-5.612	2.7687	1.9403		
		퍼센트	8.96	11.94	18.66	10.45	1.49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7	30	46	5	2	100	45.7645 (자유도: 12) <0.0001
		편차	3.5672	3.5075	5.7015	-13.28	0.5075		
		퍼센트	6.34	11.19	17.16	1.87	0.75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0	30	26	23	0	89	
		편차	-1.955	6.4216	-9.866	6.7276	-1.328		
		퍼센트	3.73	11.19	9.7	8.58	0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	9	6	9	0	25	
		편차	-2.358	2.3769	-4.075	4.4291	-0.373		
		퍼센트	0.37	3.36	2.24	3.36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8	2	30	12	2	54	
		편차	0.7463	-12.31	8.2388	2.1269	1.194		
		퍼센트	2.99	0.75	11.19	4.48	0.75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6	71	108	49	4	268		
	퍼센트	13.43	26.49	40.3	18.28	1.49	100		

해녀춤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도를 보면 ‘약간 안다’가 40.3%, ‘모른다’가 26.49%,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18.28%순으로 많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인지도 보다는 극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p: 0.0395, 편차: 4.5597과 5.6119).

표 19. 해녀춤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범주	분류	처음 들어 본다	모른다	약간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1	20	62	34	0	137	36.1697 (자유도: 4) <0.0001
		편차	9.5833	2.702	11.836	-17.89	-6.227		
		퍼센트	5.3	5.05	15.66	8.59	0	34.6	
	여	빈도수	12	30	83	116	18	259	
		편차	-9.583	-2.702	-11.84	17.894	6.2273		
		퍼센트	3.03	7.58	20.96	29.29	4.55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1	9	6	7	0	33	80.4455 (자유도: 12) <0.0001
		편차	8.25	4.8333	-6.083	-5.5	-1.5		
		퍼센트	2.78	2.27	1.52	1.77	0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2	12	15	19	0	58	
		편차	7.1667	4.6768	-6.237	-2.97	-2.636		
		퍼센트	3.03	3.03	3.79	4.8	0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9	10	63	51	5	138	
		편차	-2.5	-7.424	12.47	-1.273	-1.273		
		퍼센트	2.27	2.53	15.91	12.88	1.26	34.85	
	40세 이상	빈도수	1	19	61	73	13	167	
		편차	-12.92	-2.086	-0.149	9.7424	5.4091		
		퍼센트	0.25	4.8	15.4	18.43	3.28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3	50	145	150	18	396		
	퍼센트	8.33	12.63	36.62	37.88	4.55	100		

해녀춤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7.88%, ‘약간 안다’가 36.62%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p<0.0001, 편차: 9.5833과 11.836, 17.894와 6.2273),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p<0.0001 편차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알고 있는 쪽으로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비교한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관광객)

범주		분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8	8	82	32	130	17.2838 (자유도: 3) 0.0006	
		편차	-2.672	-7.037	16.03	-6.321			
		퍼센트	2.99	2.99	30.6	11.94	48.51		
	여	빈도수	14	23	54	47	138		
		편차	2.6716	7.0373	-16.03	6.3209			
		퍼센트	5.22	8.58	20.15	17.54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8	4	55	33	100	17.5324 (자유도: 9) 0.041	
		편차	-0.209	-7.567	4.2537	3.5224			
		퍼센트	2.99	1.49	20.52	12.31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0	13	48	18	89		
		편차	2.694	2.7052	2.8358	-8.23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	4	13	7	25		
		편차	-1.052	1.1082	0.3134	-0.369			
	40세 이상	빈도수	3	10	20	21	54		
		편차	-1.433	3.7537	-7.403	5.0821			
		퍼센트	1.12	3.73	7.46	7.84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22	31	136	79	268		
		퍼센트	8.21	11.57	50.75	29.48	100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여타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인식도 조사에서 관광객의 경우 ‘그렇다’가 50.75%, ‘매우 그렇다’가 29.48%로 나타나 약 80%정도가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는 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06).

표 21.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비교한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제주도민)

범주		분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	27	62	47	137	14.7462 (자유도: 3) 0.002
		편차	-0.73	8.6641	8.0303	-15.96		
		퍼센트	0.25	6.82	15.66	11.87	34.6	
	여	빈도수	4	26	94	135	259	
		편차	0.7298	-8.664	-8.03	15.965		
		퍼센트	1.01	6.57	23.74	34.09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0	2	20	11	33	16.2043 (자유도: 9) 0.0627
		편차	-0.417	-2.417	7	-4.167		
		퍼센트	0	0.51	5.05	2.78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0	13	20	25	58	
		편차	-0.732	5.2374	-2.848	-1.657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3	20	57	58	138	
		편차	1.2576	1.5303	2.6364	-5.424		
	40세 이상	빈도수	0.76	5.05	14.39	14.65	34.85	
		편차	2	18	59	88	167	
		퍼센트	-0.109	-4.351	-6.788	11.24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5	53	156	182	396	
		퍼센트	1.26	13.38	39.39	45.96	100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여타 다른 장르의 무용들과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인식도 조사에서 제주도민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45.96%, ‘그렇다’가 39.39%로 나타나 약 85%정도가 제주도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는 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02).

표 22.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0	28	52	43	5	128	17.2986 (자유도: 4) 0.0017	
		편차	-6.375	-2.897	0.5057	7.1992	1.567			
		퍼센트	0	10.73	19.92	16.48	1.92	49.04		
	여	빈도수	13	35	53	30	2	133		
		편차	6.3755	2.8966	-0.506	-7.199	-1.567			
		퍼센트	4.98	13.41	20.31	11.49	0.77	50.96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5	17	43	28	0	93	93.5927 (자유도: 12) <0.0001	
		편차	0.3678	-5.448	5.5862	1.9885	-2.494			
		퍼센트	1.92	6.51	16.48	10.73	0	35.6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4	23	37	25	0	89		
		편차	-0.433	1.5172	1.1954	0.1073	-2.387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	2	15	0	7	25		
		편차	-0.245	-4.034	4.9425	-6.992	6.3295			
	40세 이상	빈도수	3	21	10	20	0	54		
		편차	0.3103	7.9655	-11.72	4.8966	-1.448			
		퍼센트	1.15	8.05	3.83	7.66	0	20.69		
	각 범주별	빈도수	13	63	105	73	7	261		
	합계	퍼센트	4.98	24.14	40.23	27.97	2.68	100		

(미응답자수 7명)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40.23%, ‘문화적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가 27.97%,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가 24.14%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한 교육과 대중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하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의 비율이 각각 16.48%, 14.18%, 5.75%로 각 그룹에서 가장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23.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	10	60	65	0	137	10.9296 (자유도: 4) 0.0274
		편차	-0.076	-2.455	11.566	-5.576	-3.46		
		퍼센트	0.51	2.53	15.15	16.41	0	34.6	
	여	빈도수	4	26	80	139	10	259	
		편차	0.0758	2.4545	-11.57	5.5758	3.4596		
		퍼센트	1.01	6.57	20.2	35.1	2.53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	1	12	19	0	33	22.1506 (자유도: 12) 0.0359
		편차	0.5	-2	0.3333	2	-0.833		
		퍼센트	0.25	0.25	3.03	4.8	0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0	10	17	28	3	58	
		편차	-0.879	4.7273	-3.505	-1.879	1.5354		
		퍼센트	0	2.53	4.29	7.07	0.76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	7	63	62	4	138	
		편차	-0.091	-5.545	14.212	-9.091	0.5152		
		퍼센트	0.51	1.77	15.91	15.66	1.01	34.85	
	40세 이상	빈도수	3	18	48	95	3	167	
		편차	0.4697	2.8182	-11.04	8.9697	-1.217		
		퍼센트	0.76	4.55	12.12	23.99	0.76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6	36	140	204	10	396		
	퍼센트	1.52	9.09	35.35	51.52	2.53	100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문화적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가 51.52%로 가장 높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35.35%,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가 9.09%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민속무용을 알아가는 시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0.0274).

나.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식

표 24.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지도(관광객)

범주	분류	처음 들어본다	모른다	조금 안다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0	27	53	30	130	14.5641 (자유도: 3) 0.0022	
		편차	-4.254	-10.35	12.254	2.3507			
		퍼센트	7.46	10.07	19.78	11.19	48.51		
	여	빈도수	30	50	31	27	138		
		편차	4.2537	10.351	-12.25	-2.351			
		퍼센트	11.19	18.66	11.57	10.07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23	22	41	14	100	33.7107 (자유도: 9) 0.0001	
		편차	4.3433	-6.731	9.6567	-7.269			
		퍼센트	8.58	8.21	15.3	5.22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7	33	19	20	89		
		편차	0.3955	7.4291	-8.896	1.0709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	2	15	7	25		
		편차	-3.664	-5.183	7.1642	1.6828			
	40세 이상	빈도수	9	20	9	16	54		
		편차	-1.075	4.4851	-7.925	4.5149			
		퍼센트	3.36	7.46	3.36	5.97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50	77	84	57	268		
		퍼센트	18.66	28.73	31.34	21.27	100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조금 안다’가 31.34%, ‘모른다’가 28.73%, ‘알고 있다’가 21.27%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p: 0.0022, 남성의 편차는 안다가 양, 여성의 편차는 모른다가 양의 방향이다).

표 25.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지도(제주도민)

범주	분류	처음 들어본다	모른다	조금 안다	알고 있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1	39	56	31	137	5.4978 (자유도: 3) 0.1388
		편차	0.2753	7.1717	1.3384	-8.785		
		퍼센트	2.78	9.85	14.14	7.83	34.6	
	여	빈도수	20	53	102	84	259	
		편차	-0.275	-7.172	-1.338	8.7854		
		퍼센트	5.05	13.38	25.76	21.21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3	13	2	5	33	113.5375 (자유도: 9) <0.0001
		편차	10.417	5.3333	-11.17	-4.583		
		퍼센트	3.28	3.28	0.51	1.26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0	27	13	8	58	
		편차	5.4596	13.525	-10.14	-8.843		
		퍼센트	2.53	6.82	3.28	2.02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	16	68	52	138	
		편차	-8.803	-16.06	12.939	11.924		
		퍼센트	0.51	4.04	17.17	13.13	34.85	
	40세 이상	빈도수	6	36	75	50	167	
		편차	-7.073	-2.798	8.3687	1.5025		
		퍼센트	1.52	9.09	18.94	12.63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1	92	158	115	396		
	퍼센트	7.83	23.23	39.9	29.04	100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조금 안다’가 39.9%, ‘알고 있다’가 29.04%, ‘모른다’가 23.23%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나이 30세를 전후로 30세 이상의 경우가 30세 이하의 경우보다 인지도가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p < 0.0001$, 편차: 30세 이상의 경우 ‘안다’가 양의 방향이며 ‘모른다’가 음의 방향이다).

표 26.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8	29	46	39	8	130	20.4233 (자유도: 4) 0.0004
		편차	2.1353	0.1654	13.256	-15.25	-0.308		
		퍼센트	3.01	10.9	17.29	14.66	3.01	48.87	
	여	빈도수	4	30	21	72	9	136	
		편차	-2.135	-0.165	-13.26	15.248	0.3083		
		퍼센트	1.5	11.28	7.89	27.07	3.38	51.1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	11	37	43	8	100	53.7162 (자유도: 12) <0.0001
		편차	-3.511	-11.18	11.812	1.2707	1.609		
		퍼센트	0.38	4.14	13.91	16.17	3.01	37.59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	21	21	39	7	89	
		편차	-3.015	1.2594	-1.417	1.8609	1.312		
		퍼센트	0.38	7.89	7.89	14.66	2.63	33.46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	14	1	8	0	25	
		편차	0.8722	8.4549	-5.297	-2.432	-1.598		
		퍼센트	0.75	5.26	0.38	3.01	0	9.4	
	40세 이상	빈도수	8	13	8	21	2	52	
		편차	5.6541	1.4662	-5.098	-0.699	-1.323		
		퍼센트	3.01	4.89	3.01	7.89	0.75	19.5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2	59	67	111	17	266		
	퍼센트	4.51	22.18	25.19	41.73	6.39	100		

(미응답자수 2명)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관광객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관심과 지원 및 홍보 부족’이 41.73%, ‘전문 인력과 재정 부족’이 25.19%, ‘제주도적인 소재 발굴을 통한 작품 개발의 미흡’이 22.18%로 나타나 관심과 지원,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7.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1	19	31	69	7	137	5.0622 (자유도: 4) 0.2810
		편차	0.2208	-3.254	7.3553	-2.282	-2.041		
		퍼센트	2.79	4.82	7.87	17.51	1.78	34.77	
	여	빈도수	20	45	37	136	19	257	
		편차	-0.221	3.2538	-7.355	2.2817	2.0406		
		퍼센트	5.08	11.42	9.39	34.52	4.82	65.2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0	5	2	19	7	33	33.8470 (자유도: 12) <0.0007
		편차	-2.596	-0.36	-3.695	1.8299	4.8223		
		퍼센트	0	1.27	0.51	4.82	1.78	8.38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4	8	7	34	5	58	
		편차	-0.563	-1.421	-3.01	3.8223	1.1726		
		퍼센트	1.02	2.03	1.78	8.63	1.27	14.72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9	27	26	58	8	138	
		편차	8.1421	4.5838	2.1827	-13.8	-1.107		
		퍼센트	4.82	6.85	6.6	14.72	2.03	35.03	
	40세 이상	빈도수	8	24	33	94	6	165	
		편차	-4.982	-2.802	4.5228	8.1497	-4.888		
		퍼센트	2.03	6.09	8.38	23.86	1.52	41.88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1	64	68	205	26	394		
	퍼센트	7.87	16.24	17.26	52.03	6.6	100		

(미응답자수 2명)

제주도립무용단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제주도민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관광객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과 지원 및 홍보 부족’이 52.0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인력과 재정 부족’이 17.26%, ‘제주도적인 소재 발굴을 통한 작품 개발의 미흡’이 16.24%로 나타나 관심과 지원,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8. 한국무용의 공연 횟수가 급변하는 이유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3	129	61	54	10	267	23.9794 (자유도: 4) <0.0001
		편차	-13.14	-0.479	11.541	9.366	-7.291		
		퍼센트	1.96	19.43	9.19	8.13	1.51	40.21	
	여	빈도수	52	193	62	57	33	397	
		편차	13.137	0.4789	-11.54	-9.366	7.2907		
		퍼센트	7.83	29.07	9.34	8.58	4.97	59.7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3	84	31	11	4	133	45.171 (자유도: 12) <0.0001
		편차	-10.02	19.503	6.363	-11.23	-4.613		
		퍼센트	0.45	12.65	4.67	1.66	0.6	20.0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6	74	24	25	8	147	
		편차	1.6099	2.7139	-3.23	0.4262	-1.52		
		퍼센트	2.41	11.14	3.61	3.77	1.2	22.14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7	70	24	43	9	163	
		편차	1.0437	-9.045	-6.194	15.752	-1.556		
		퍼센트	2.56	10.54	3.61	6.48	1.36	24.55	
	40세 이상	빈도수	29	94	44	32	22	221	
		편차	7.366	-13.17	3.0617	-4.944	7.6883		
		퍼센트	4.37	14.16	6.63	4.82	3.31	33.28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65	322	123	111	43	664		
	퍼센트	9.79	48.49	18.52	16.72	6.48	100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한국무용의 공연 횟수가 변하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중의 관심 부족’이 48.49%,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행사의 일시적 효과’가 18.52%,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부족’이 16.72%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제주 민속무용의 보존방안

표 29. 제주도 민속 무용의 전승 방법(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4	47	27	30	2	130	38.7879 (자유도: 4) <0.0001	
		편차	-20.47	12.789	8.9173	-2.256	1.0226			
		퍼센트	9.02	17.67	10.15	11.28	0.75	48.87		
	여	빈도수	67	23	10	36	0	136		
		편차	20.474	-12.79	-8.917	2.2556	-1.023			
		퍼센트	25.19	8.65	3.76	13.53	0	51.1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42	15	23	20	0	100	61.6822 (자유도: 12) <0.0001	
		편차	7.7895	-11.32	9.0902	-4.812	-0.752			
		퍼센트	15.79	5.64	8.65	7.52	0	37.59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37	21	7	24	0	89		
		편차	6.5526	-2.421	-5.38	1.9173	-0.669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9	10	5	1	0	25		
		편차	0.4474	3.4211	1.5226	-5.203	-0.188			
	40세 이상	빈도수	3	24	2	21	2	52		
		편차	-14.79	10.316	-5.233	8.0977	1.609			
		퍼센트	1.13	9.02	0.75	7.89	0.75	19.5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91	70	37	66	2	266		
		퍼센트	34.21	26.32	13.91	24.81	0.75	100		

(미응답자수 2명)

제주도 민속 무용의 원형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어야 좋은지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은 ‘예능 보유자’의 경우가 34.21%로 가장 많았고, ‘제도적인 장치’가 26.32%, ‘시대적인 변화’가 24.81%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볼때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제도나 행정상의 규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편차: 20.474, 12.789와

8.9173).

표 30. 제주도 민속 무용의 전승 방법(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4	42	16	55	0	137	7.7817 (자유도: 4) <0.0999	
		편차	-4.513	-0.074	-1.038	8.4061	-2.782			
		퍼센트	6.09	10.66	4.06	13.96	0	34.77		
	여	빈도수	58	79	33	79	8	257		
		편차	4.5127	0.0736	1.0381	-8.406	2.7817			
		퍼센트	14.72	20.05	8.38	20.05	2.03	65.2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5	4	4	19	1	33	66.7281 (자유도: 12) <0.0001	
		편차	-1.868	-6.135	-0.104	7.7766	0.3299			
		퍼센트	1.27	1.02	1.02	4.82	0.25	8.38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1	14	5	28	0	58		
		편차	-1.071	-3.812	-2.213	8.2741	-1.178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3	71	17	33	2	136		
		편차	-15.3	29.234	0.0863	-13.25	-0.761			
	40세 이상	빈도수	53	32	23	54	5	167		
		편차	18.244	-19.29	2.231	-2.797	1.6091			
		퍼센트	13.45	8.12	5.84	13.71	1.27	42.39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82	121	49	134	8	394		
		퍼센트	20.81	30.71	12.44	34.01	2.03	100		

(미응답자수 2명)

제주도 민속 무용의 원형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어야 좋은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시대적인 변화’의 경우가 34.01%로 가장 많았고, ‘제도적인 장치’가 30.71%, ‘예능 보유자’가 20.81%순으로 많았다.

표 31.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범주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	96	118	44	260	18.4294 (자유도: 3) 0.0004
		편차	-11.22	7.0632	8.2311	-4.074		
		퍼센트	0.31	14.79	18.18	6.78	40.06	
	여	빈도수	31	126	156	76	389	
		편차	11.22	-7.063	-8.231	4.074		
		퍼센트	4.78	19.41	24.04	11.71	59.9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3	48	51	14	126	35.1209 (자유도: 9) <0.0001
		편차	6.5932	4.8998	-2.196	-9.297		
		퍼센트	2	7.4	7.86	2.16	19.4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0	49	62	24	145	
		편차	2.6271	-0.599	0.7827	-2.81		
		퍼센트	1.54	7.55	9.55	3.7	22.34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4	36	77	44	161	
		편차	-4.186	-19.07	9.0277	14.231		
		퍼센트	0.62	5.55	11.86	6.78	24.81	
	40세 이상	빈도수	6	89	84	38	217	
		편차	-5.034	14.772	-7.615	-2.123		
		퍼센트	0.92	13.71	12.94	5.86	33.44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3	222	274	120	649		
	퍼센트	5.08	34.21	42.22	18.49	100		

(미응답자수 15명)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42.22%, ‘그렇지 않다’가 34.21%, ‘매우 그렇다’가 18.49%, ‘전혀 그렇지 않다’가 5.08%로 나타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이유(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3	31	27	0	59	130	13.7525 (자유도: 4) 0.0081
		편차	3.0763	6.1908	1.6947	-3.473	-7.489		
		퍼센트	4.96	11.83	10.31	0	22.52	49.62	
	여	빈도수	7	19	24	7	75	132	
		편차	-3.076	-6.191	-1.695	3.4733	7.4885		
		퍼센트	2.67	7.25	9.16	2.67	28.63	50.38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2	15	22	2	56	97	77.5983 (자유도: 12) <0.0001
		편차	-5.405	-3.511	3.1183	-0.592	6.3893		
		퍼센트	0.76	5.73	8.4	0.76	21.37	37.02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7	10	16	5	50	88	
		편차	0.2824	-6.794	-1.13	2.6489	4.9924		
		퍼센트	2.67	3.82	6.11	1.91	19.08	33.59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1	5	2	0	7	25	
		편차	9.0916	0.229	-2.866	-0.668	-5.786		
		퍼센트	4.2	1.91	0.76	0	2.67	9.54	
	40세 이상	빈도수	0	20	11	0	21	52	
		편차	-3.969	10.076	0.8779	-1.389	-5.595		
		퍼센트	0	7.63	4.2	0	8.02	19.85	
각 범주별		빈도수	20	50	51	7	134	262	
합계		퍼센트	7.63	19.08	19.47	2.67	51.15	100	

(미응답자수 6명)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 ‘대중의 관심 및 인식의 부족’이 51.15%로 가장 많았고 ‘제도상의 문제’가 19.47%, ‘전수체계의 미비’가 19.08%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심과 인식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전수에 대해 잘 이루어져야 전승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p: 0.0081).

표 33.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이유(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30	28	13	17	49	137	2.935 (자유도: 4) 0.5688
		편차	3.8877	-3.12	-2.739	2.6919	-0.721		
		퍼센트	7.83	7.31	3.39	4.44	12.79	35.77	
	여	빈도수	43	59	31	23	90	246	
		편차	-3.888	3.1201	2.7389	-2.692	0.7206		
		퍼센트	11.23	15.4	8.09	6.01	23.5	64.2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8	3	1	3	16	31	24.7722 (자유도: 12) <0.0159
		편차	2.0914	-4.042	-2.561	-0.238	4.7493		
		퍼센트	2.09	0.78	0.26	0.78	4.18	8.09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8	12	4	5	25	54	
		편차	-2.292	-0.266	-2.204	-0.64	5.4021		
		퍼센트	2.09	3.13	1.04	1.31	6.53	14.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7	40	23	16	40	136	
		편차	-8.922	9.107	7.376	1.7963	-9.358		
		퍼센트	4.44	10.44	6.01	4.18	10.44	35.51	
	40세 이상	빈도수	40	32	16	16	58	162	
		편차	9.1227	-4.799	-2.611	-0.919	-0.794		
		퍼센트	10.44	8.36	4.18	4.18	15.14	42.3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73	87	44	40	139	383		
	퍼센트	19.06	22.72	11.49	10.44	36.29	100		

(미응답자수 13명)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대중의 관심 및 인식의 부족’이 36.29%로 가장 많았고, ‘전수 체계의 미비’가 22.72%, ‘전수자의 부족’이 19.06%순으로 많았다. 즉, 제주도민들도 관광객과 같이 대중의 관심과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수가 잘 되어야 전승이 잘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표 34. 탐라순력도의 복원 방법(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50	80	130	1.6814 (자유도: 1) 0.1947
		편차	-5.226	5.2256		
		퍼센트	18.8	30.08	48.87	
	여	빈도수	63	73	136	
		편차	5.2256	-5.226		
		퍼센트	23.68	27.44	51.13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36	64	100	11.6068 (자유도: 3) <0.0089
		편차	-6.481	6.4812		
		퍼센트	13.53	24.06	37.59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40	49	89	
		편차	2.1917	-2.192		
		퍼센트	15.04	18.42	33.46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8	7	25	
		편차	7.3797	-7.38		
		퍼센트	6.77	2.63	9.4	
	40세 이상	빈도수	19	33	52	
		편차	-3.09	3.0902		
		퍼센트	7.14	12.41	19.55	
각 범주별	빈도수	113	153	266		
합계	퍼센트	42.48	57.52	100		

(미응답자수 2명)

탐라순력도의 복원방법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계승, 발전의 형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57.52%, ‘전승, 보존의 형태로 ‘원형 그대로를 지키며 답습’이 42.48%로 변화를 바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표 35. 탐라순력도의 복원 방법(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65	72	137	0.6164 (자유도: 1) 0.4324
		편차	3.6829	-3.683		
		퍼센트	16.62	18.41	35.04	
	여	빈도수	110	144	254	
		편차	-3.683	3.6829		
		퍼센트	28.13	36.83	64.96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0	23	33	4.2766 (자유도: 3) <0.2331
		편차	-4.77	4.7698		
		퍼센트	2.56	5.88	8.44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23	35	58	
		편차	-2.959	2.9591		
		퍼센트	5.88	8.95	14.83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66	71	137	
		편차	4.6829	-4.683		
		퍼센트	16.88	18.16	35.04	
	40세 이상	빈도수	76	87	163	
		편차	3.046	-3.046		
		퍼센트	19.44	22.25	41.69	
각 범주별	빈도수	175	216	391		
합계	퍼센트	44.76	55.24	100		

(미응답자수 5명)

탐라순력도의 복원방법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계승, 발전의 형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55.24%, ‘전승, 보존의 형태로 ‘원형 그대로를 지키며 답습’이 44.76%로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바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표 36.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4	42	26	20	18	130	9.7326 (자유도: 4) 0.0452
		편차	6.0522	-1.172	0.291	-8.134	2.9627		
		퍼센트	8.96	15.67	9.7	7.46	6.72	48.51	
	여	빈도수	13	47	27	38	13	138	
		편차	-6.052	1.1716	-0.291	8.1343	-2.963		
		퍼센트	4.85	17.54	10.07	14.18	4.85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9	19	36	17	9	100	47.6974 (자유도: 12) <0.0001
		편차	5.194	-14.21	16.224	-4.642	-2.567		
		퍼센트	7.09	7.09	13.43	6.34	3.36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7	35	13	22	12	89	
		편차	-5.287	5.444	-4.601	2.7388	1.7052		
		퍼센트	2.61	13.06	4.85	8.21	4.48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6	9	2	3	5	25	
		편차	2.5485	0.6978	-2.944	-2.41	2.1082		
		퍼센트	2.24	3.36	0.75	1.12	1.87	9.33	
	40세 이상	빈도수	5	26	2	16	5	54	
		편차	-2.455	8.0672	-8.679	4.3134	-1.246		
		퍼센트	1.87	9.7	0.75	5.97	1.87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7	89	53	58	31	268		
	퍼센트	13.81	33.21	19.78	21.64	11.57	100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통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재구성’이 33.21%, ‘작품기획 등 시스템의 점검’이 21.64%,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정립’이 19.7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통무용에 대한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작품기획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p:0.0452, 편차: 6.0522, 8.1343).

표 37.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5	58	37	33	4	137	15.5091 (자유도: 4) 0.0038
		편차	-7.109	10.949	1.7121	0.1338	-5.687		
		퍼센트	1.26	14.65	9.34	8.33	1.01	34.6	
	여	빈도수	30	78	65	62	24	259	
		편차	7.1086	-10.95	-1.712	-0.134	5.6869		
		퍼센트	7.58	19.7	16.41	15.66	6.06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3	7	18	3	2	33	35.6654 (자유도: 12) 0.0004
		편차	0.0833	-4.333	9.5	-4.917	-0.333		
		퍼센트	0.76	1.77	4.55	0.76	0.51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2	20	11	21	4	58	
		편차	-3.126	0.0808	-3.939	7.0859	-0.101		
		퍼센트	0.51	5.05	2.78	5.3	1.01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0	41	44	30	13	138	
		편차	-2.197	-6.394	8.4545	-3.106	3.2424		
		퍼센트	2.53	10.35	11.11	7.58	3.28	34.85	
	40세 이상	빈도수	20	68	29	41	9	167	
		편차	5.2399	10.646	-14.02	0.9369	-2.808		
		퍼센트	5.05	17.17	7.32	10.35	2.27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35	136	102	95	28	396	
		퍼센트	8.84	34.34	25.76	23.99	7.07	100	

- ① 전통무용에 대한 교육
- ② 전통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재구성
- ③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정립
- ④ 작품기획 등 시스템의 점검
- ⑤ 재정적인 지원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과 비슷하게 ‘전통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재구

성'이 34.34%로 가장 많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정립'이 25.76%, '작품기획 등 시스템의 점검'이 23.99%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성 및 정체성의 재구성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 및 대중화 방안

표 38.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61	18	25	8	18	130	10.3114 (자유도: 4) 0.0355
		편차	5.7015	-8.679	5.597	-0.246	-2.373		
		퍼센트	22.76	6.72	9.33	2.99	6.72	48.51	
	여	빈도수	53	37	15	9	24	138	
		편차	-5.701	8.6791	-5.597	0.2463	2.3731		
		퍼센트	19.78	13.81	5.6	3.36	8.96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36	19	24	5	16	100	29.2669 (자유도: 12) 0.0036
		편차	-6.537	-1.522	9.0746	-1.343	0.3284		
		퍼센트	13.43	7.09	8.96	1.87	5.97	37.31	
	20세 이상~30세 미만	빈도수	32	19	15	7	16	89	
		편차	-5.858	0.7351	1.7164	1.3545	2.0522		
		퍼센트	11.94	7.09	5.6	2.61	5.97	33.21	
	30세 이상~40세 미만	빈도수	18	5	0	2	0	25	
		편차	7.3657	-0.131	-3.731	0.4142	-3.918		
		퍼센트	6.72	1.87	0	0.75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28	12	1	3	10	54	
		편차	5.0299	0.9179	-7.06	-0.425	1.5373		
		퍼센트	10.45	4.48	0.37	1.12	3.73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14	55	40	17	42	268		
	퍼센트	42.54	20.52	14.93	6.34	15.67	100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로서 고유의 재산이 될 수 있다’가 42.54%, ‘문화산업의 하나로써 상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가 20.52%, ‘지역과 국제간 문화교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가 15.67%순으로 나타났다. 즉, 약 63%가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9.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37	39	20	24	17	137	5.3053 (자유도: 4) 0.2574
		편차	0.6742	5.096	-2.141	3.2424	-6.871		
		퍼센트	9.34	9.85	5.05	6.06	4.29	34.6	
	여	빈도수	68	59	44	36	52	259	
		편차	-0.674	-5.096	2.1414	-3.242	6.8712		
		퍼센트	17.17	14.9	11.11	9.09	13.13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8	8	3	6	8	33	23.7551 (자유도: 12) 0.022
		편차	-0.75	-0.167	-2.333	1	2.25		
		퍼센트	2.02	2.02	0.76	1.52	2.02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9	16	8	9	6	58	
		편차	3.6212	1.6465	-1.374	0.2121	-4.106		
		퍼센트	4.8	4.04	2.02	2.27	1.52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4	40	33	22	19	138	
		편차	-12.59	5.8485	10.697	1.0909	-5.045		
		퍼센트	6.06	10.1	8.33	5.56	4.8	34.85	
	40세 이상	빈도수	54	34	20	23	36	167	
		편차	9.7197	-7.328	-6.99	-2.303	6.9015		
		퍼센트	13.64	8.59	5.05	5.81	9.09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05	98	64	60	69	396		
	퍼센트	26.52	24.75	16.16	15.15	17.42	100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제주도민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로서 고유의 재산이 될 수 있다’가 26.52%, ‘문화산업의 하나로써 상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가 24.75%, ‘지역과 국제간 문화교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가 17.42%순으로 드러나 관광객과 동일한 순위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1%가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0.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51	45	69	48	54	267	26.4095 (자유도: 4) <0.0001
		편차	5.5617	8.8102	-3.38	13.419	-24.41		
		퍼센트	7.68	6.78	10.39	7.23	8.13	40.21	
	여	빈도수	62	45	111	38	141	397	
		편차	-5.562	-8.81	3.3795	-13.42	24.411		
		퍼센트	9.34	6.78	16.72	5.72	21.23	59.7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6	10	52	22	43	133	54.1624 (자유도: 12) <0.0001
		편차	-16.63	-8.027	15.946	4.7741	3.9413		
		퍼센트	0.9	1.51	7.83	3.31	6.48	20.0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24	19	40	19	45	147	
		편차	-1.017	-0.925	0.1506	-0.039	1.8298		
		퍼센트	3.61	2.86	6.02	2.86	6.78	22.14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51	24	36	15	37	163	
		편차	23.261	1.9066	-8.187	-6.111	-10.87		
		퍼센트	7.68	3.61	5.42	2.26	5.57	24.55	
	40세 이상	빈도수	32	37	52	30	70	221	
		편차	-5.61	7.0452	-7.91	1.3765	5.0979		
		퍼센트	4.82	5.57	7.83	4.52	10.54	33.28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13	90	180	86	195	664		
	퍼센트	17.02	13.55	27.11	12.95	29.37	100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조사한 결과 ‘축제의 개

최 등 적극적인 홍보'가 29.37%,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27.11%, '문화 자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17.02%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가 남성 에 비해 축제나 체험 등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001$, 편차: 3.3795, 24.411).

표 41.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5	23	43	28	21	130	6.4211 (자유도: 4) 0.1698
		편차	0.9328	-2.709	8.5597	-3.53	-3.254		
		퍼센트	5.6	8.58	16.04	10.45	7.84	48.51	
	여	빈도수	14	30	28	37	29	138	
		편차	-0.933	2.709	-8.56	3.5299	3.2537		
		퍼센트	5.22	11.19	10.45	13.81	10.82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7	16	36	19	22	100	64.2504 (자유도: 12) <0.0001
		편차	-3.821	-3.776	9.5075	-5.254	3.3433		
		퍼센트	2.61	5.97	13.43	7.09	8.21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7	26	15	23	18	89	
		편차	-2.631	8.3993	-8.578	1.4142	1.3955		
		퍼센트	2.61	9.7	5.6	8.58	6.72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1	1	0	5	8	25	
		편차	8.2948	-3.944	-6.623	-1.063	3.3358		
		퍼센트	4.1	0.37	0	1.87	2.99	9.33	
	40세 이상	빈도수	4	10	20	18	2	54	
		편차	-1.843	-0.679	5.694	4.903	-8.075		
		퍼센트	1.49	3.73	7.46	6.72	0.75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29	53	71	65	50	268	
		퍼센트	10.82	19.78	26.49	24.25	18.66	100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 '안내 및 해설 체계의 미흡'이 26.49%로 가장 많았고, '행사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및 차별성의 부재'가 24.25%,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의 미비'가 19.78%순으로 많았다. 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보이며 안내 및 해설 등 홍보의 필요성도 보이고 있다.

표 42.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17	42	17	35	26	137	20.5212 (자유도: 4) 0.0004
		편차	-10.68	13.285	-7.563	0.75	4.2045		
		퍼센트	4.29	10.61	4.29	8.84	6.57	34.6	
	여	빈도수	63	41	54	64	37	259	
		편차	10.677	-13.29	7.5631	-0.75	-4.205		
		퍼센트	15.91	10.35	13.64	16.16	9.34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2	9	11	10	1	33	29.4509 (자유도: 12) 0.0034
		편차	-4.667	2.0833	5.0833	1.75	-4.25		
		퍼센트	0.51	2.27	2.78	2.53	0.25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2	13	7	15	11	58	
		편차	0.2828	0.8434	-3.399	0.5	1.7727		
		퍼센트	3.03	3.28	1.77	3.79	2.78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38	26	31	28	15	138	
		편차	10.121	-2.924	6.2576	-6.5	-6.955		
		퍼센트	9.6	6.57	7.83	7.07	3.79	34.85	
	40세 이상	빈도수	28	35	22	46	36	167	
		편차	-5.737	-0.003	-7.942	4.25	9.4318		
		퍼센트	7.07	8.84	5.56	11.62	9.09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80	83	71	99	63	396		
	퍼센트	20.2	20.96	17.93	25	15.91	100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행사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및 차별성의 부재'가 25%로 가장 많았고,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의 미비'가 20.96%, '지나친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만

을 고려'가 20.2순으로 많았다. 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보이며, 대중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도 보이고 있다.

표 43. 칠머리당영등굿이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72	49	55	25	66	267	2.8482 (자유도: 4) 0.5835
		편차	-1.184	-1.666	7.9533	-1.941	-3.163		
		퍼센트	10.84	7.38	8.28	3.77	9.94	40.21	
	여	빈도수	110	77	62	42	106	397	
		편차	1.1837	1.6657	-7.953	1.9413	3.1627		
		퍼센트	16.57	11.6	9.34	6.33	15.96	59.7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41	21	29	9	33	133	30.3753 (자유도: 12) 0.0025
		편차	4.5452	-4.238	5.5648	-4.42	-1.452		
		퍼센트	6.17	3.16	4.37	1.36	4.97	20.0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27	26	22	20	52	147	
		편차	-13.29	-1.895	-3.902	5.1672	13.922		
		퍼센트	4.07	3.92	3.31	3.01	7.83	22.14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45	41	18	20	39	163	
		편차	0.3223	10.069	-10.72	3.5527	-3.223		
		퍼센트	6.78	6.17	2.71	3.01	5.87	24.55	
	40세 이상	빈도수	69	38	48	18	48	221	
		편차	8.4247	-3.937	9.0587	-4.3	-9.247		
		퍼센트	10.39	5.72	7.23	2.71	7.23	33.28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82	126	117	67	172	664		
	퍼센트	27.41	18.98	17.62	10.09	25.9	100		

칠머리당영등굿이 문화유산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조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인의 참여 기회 확대'가 27.41%,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가 25.9%,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이용한 새로운 매력의 창출'이 18.98%순으로 많았다. 이는 칠머리당영등굿이 일반 대중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가야 문화유산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표 44.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44	24	44	16	2	130	19.8029 (자유도: 4) 0.0005
		편차	13.44	-11.9	0.3433	-0.978	-0.91		
		퍼센트	16.42	8.96	16.42	5.97	0.75	48.51	
	여	빈도수	19	50	46	19	4	138	
		편차	-13.44	11.896	-0.343	0.9776	0.9104		
		퍼센트	7.09	18.66	17.16	7.09	1.49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5	30	49	5	1	100	49.2298 (자유도: 12) <0.0001
		편차	-8.507	2.3881	15.418	-8.06	-1.239		
		퍼센트	5.6	11.19	18.28	1.87	0.37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9	23	27	19	1	89	
		편차	-1.922	-1.575	-2.888	7.3769	-0.993		
		퍼센트	7.09	8.58	10.07	7.09	0.37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2	9	4	0	0	25	
		편차	6.1231	2.097	-4.396	-3.265	-0.56		
		퍼센트	4.48	3.36	1.49	0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17	12	10	11	4	54	
		편차	4.306	-2.91	-8.134	3.9478	2.791		
		퍼센트	6.34	4.48	3.73	4.1	1.49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63	74	90	35	6	268		
	퍼센트	23.51	27.61	33.58	13.06	2.24	100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 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대중화 방안에 관한 관광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해녀 박물관과 해녀문화축제의 적극적인 홍보’가 33.58%,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가 27.61%, ‘정형화된 해녀춤의 정립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의 도입’이 23.51%로 많았다. 많은 관광객들이 해녀춤이 정착

되기 위해서는 해녀 축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9	48	21	34	5	137	17.746 (자유도: 4) 0.0014
		편차	3.7449	1.9874	-11.87	10.475	-4.341		
		퍼센트	7.32	12.12	5.3	8.59	1.26	34.6	
	여	빈도수	44	85	74	34	22	259	
		편차	-3.745	-1.987	11.866	-10.47	4.3409		
		퍼센트	11.11	21.46	18.69	8.59	5.56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2	9	8	8	6	33	15.9475 (자유도: 12) 0.1937
		편차	-4.083	-2.083	0.0833	2.3333	3.75		
		퍼센트	0.51	2.27	2.02	2.02	1.52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3	17	15	11	2	58	
		편차	2.3081	-2.48	1.0859	1.0404	-1.955		
		퍼센트	3.28	4.29	3.79	2.78	0.51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29	47	28	26	8	138	
		편차	3.5606	0.6515	-5.106	2.303	-1.409		
		퍼센트	7.32	11.87	7.07	6.57	2.02	34.85	
	40세 이상	빈도수	29	60	44	23	11	167	
		편차	-1.785	3.9116	3.9369	-5.677	-0.386		
		퍼센트	7.32	15.15	11.11	5.81	2.78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73	133	95	68	27	396		
	퍼센트	18.43	33.59	23.99	17.17	6.82	100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 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대중화 방안에 관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가 33.59%, ‘해녀 박물관과 해녀문화축제의 적극적인 홍보’가 23.99%, ‘정형화된 해녀춤의 정립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의 도입’이 18.43%로 많았다. 제주도민의 경우에도 해녀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녀 축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26	27	65	12	0	130	7.0966 (자유도: 4) 0.1319
		편차	1.2612	4.6866	-3.396	-0.127	-2.425		
		퍼센트	9.7	10.07	24.25	4.48	0	48.51	
	여	빈도수	25	19	76	13	5	138	
		편차	-1.261	-4.687	3.3955	0.1269	2.4254		
		퍼센트	9.33	7.09	28.36	4.85	1.87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8	15	43	19	5	100	50.965 (자유도: 12) <0.0001
		편차	-1.03	-2.164	-9.612	9.6716	3.1343		
		퍼센트	6.72	5.6	16.04	7.09	1.87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27	16	40	6	0	89	
		편차	10.063	0.7239	-6.825	-2.302	-1.66		
		퍼센트	10.07	5.97	14.93	2.24	0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3	7	15	0	0	25	
		편차	-1.757	2.709	1.847	-2.332	-0.466		
		퍼센트	1.12	2.61	5.6	0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3	8	43	0	0	54	
		편차	-7.276	-1.269	14.59	-5.037	-1.007		
		퍼센트	1.12	2.99	16.04	0	0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51	46	141	25	5	268		
	퍼센트	19.03	17.16	52.61	9.33	1.87	100		

지역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 ‘TV나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가 52.61%, ‘사람들의 입소문’이 19.03%, ‘길거리의 광고나 포스터’가 17.16%순으로 많았다. 즉, 관광객에게 제주도 민속무용을 홍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은 ‘TV나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38	15	76	8	0	137	5.7234 (자유도: 4) 0.2208
		편차	6.5177	-0.914	-6.684	2.1187	-1.038		
		퍼센트	9.6	3.79	19.19	2.02	0	34.6	
	여	빈도수	53	31	163	9	3	259	
		편차	-6.518	0.9141	6.6843	-2.119	1.0379		
		퍼센트	13.38	7.83	41.16	2.27	0.76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13	4	9	5	2	33	52.2697 (자유도: 12) <0.0001
		편차	5.4167	0.1667	-10.92	3.5833	1.75		
		퍼센트	3.28	1.01	2.27	1.26	0.51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12	5	37	4	0	58	
		편차	-1.328	-1.737	1.9949	1.5101	-0.439		
		퍼센트	3.03	1.26	9.34	1.01	0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44	14	76	4	0	138	
		편차	12.288	-2.03	-7.288	-1.924	-1.045		
		퍼센트	11.11	3.54	19.19	1.01	0	34.85	
	40세 이상	빈도수	22	23	117	4	1	167	
		편차	-16.38	3.601	16.21	-3.169	-0.265		
		퍼센트	5.56	5.81	29.55	1.01	0.25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91	46	239	17	3	396		
	퍼센트	22.98	11.62	60.35	4.29	0.76	100		

지역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관광객과 비슷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TV나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가 60.35%, '사람들의 입소문'이 22.98%, '길거리의 광고나 포스터'가 11.62%순으로 많았다.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민속무용은 'TV나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축제 참여 의향(관광객)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8	21	43	52	6	130	6.3489 (자유도: 4) 0.1746
		편차	1.694	4.9925	-6.963	-0.873	1.1493		
		퍼센트	2.99	7.84	16.04	19.4	2.24	48.51	
	여	빈도수	5	12	60	57	4	138	
		편차	-1.694	-4.993	6.9627	0.8731	-1.149		
		퍼센트	1.87	4.48	22.39	21.27	1.49	51.49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6	16	38	39	1	100	45.0382 (자유도: 12) <0.0001
		편차	1.1493	3.6866	-0.433	-1.672	-2.731		
		퍼센트	2.24	5.97	14.18	14.55	0.37	37.31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4	6	43	27	9	89	
		편차	-0.317	-4.959	8.7948	-9.198	5.6791		
		퍼센트	1.49	2.24	16.04	10.07	3.36	3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0	7	11	7	0	25	
		편차	-1.213	3.9216	1.3918	-3.168	-0.933		
		퍼센트	0	2.61	4.1	2.61	0	9.33	
	40세 이상	빈도수	3	4	11	36	0	54	
		편차	0.3806	-2.649	-9.754	14.037	-2.015		
		퍼센트	1.12	1.49	4.1	13.43	0	20.15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13	33	103	109	10	268		
	퍼센트	4.85	12.31	38.43	40.67	3.73	100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관광객의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40.67%, ‘아직은 생각 없다’가 38.43%순으로 많았다. 약 44%는 제주 민속무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어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의 활성화가 가져다주는 참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9.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축제 참여 의향(제주도민)

범주	분류	①	②	③	④	⑤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성 별	남	빈도수	0	8	78	48	3	137	5.0853 (자유도: 4) 0.2787
		편차	-0.692	-1.341	9.154	-5.278	-1.843		
		퍼센트	0	2.02	19.7	12.12	0.76	34.6	
	여	빈도수	2	19	121	106	11	259	
		편차	0.6919	1.3409	-9.154	5.2778	1.8434		
		퍼센트	0.51	4.8	30.56	26.77	2.78	65.4	
연 령	20세 미만	빈도수	0	2	22	9	0	33	28.7562 (자유도: 12) 0.0043
		편차	-0.167	-0.25	5.4167	-3.833	-1.167		
		퍼센트	0	0.51	5.56	2.27	0	8.33	
	20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수	0	10	31	16	1	58	
		편차	-0.293	6.0455	1.8535	-6.556	-1.051		
		퍼센트	0	2.53	7.83	4.04	0.25	1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수	1	2	76	52	7	138	
		편차	0.303	-7.409	6.6515	-1.667	2.1212		
		퍼센트	0.25	0.51	19.19	13.13	1.77	34.85	
	40세 이상	빈도수	1	13	70	77	6	167	
		편차	0.1566	1.6136	-13.92	12.056	0.096		
		퍼센트	0.25	3.28	17.68	19.44	1.52	42.17	
각 범주별 합계	빈도수	2	27	199	154	14	396		
	퍼센트	0.51	6.82	50.25	38.89	3.54	100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아직은 생각 없다’가 50.25%,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38.89%순으로 많았다. 약 43%는 제주 민속무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어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의 활성화가 가져다주는 참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논의

오늘날은 새로운 문화혁명의 주도아래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치적, 사회적 변혁에 의한 문화의 탄생, 재창조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예술에서 기반이 형성되며 전통예술은 한 나라의 문화적 척도이고 그 민족의 사상, 감정, 의식구조 등을 나타내며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바탕으로 문화가 인류의 보편적 문화로 규합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통무용은 문화의 독창성이란 면에서 민족 고유의 정신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술인 것이다. 이것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으로 더욱더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되고는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에 걸 맞는 보존, 전승의 형태에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문화발전의 기틀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의 민속무용의 경우 현재 제주의 풍토와 정서를 보듬고 있는 민속무용의 수가 극히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안팎의 일이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무대 공연의 레퍼토리 역시 제한적이며 관광상품으로서 개발은 하되 예술적인 격조는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 또한 소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 첫째는 현재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제주도 민속 문화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자 또는 예능인, 학자 등 9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민속 문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와 좌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차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민속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내외적인 인식도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전문가집단의 좌담 및 인터뷰를 통한 검토 결과, 행정을 담당하

고 있는 실무자와 민속 문화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예능인, 학자들 간의 입장이 극명히 다르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민속 문화의 침체와 비활성화의 원인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관객들의 인식부족의 탓으로 여겼다. 반면에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학자들의 경우는 그 이유를 행정적 미비로 인한 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적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민속 문화에 대한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제주도의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관광객의 경우 전체의 17.53%만이 제주도의 민속무용 작품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어느 정도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의 경우에는 38.64%가 인지(어느 정도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 민속 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관광객의 경우 ‘대중의 관심 및 인식 부족’이 51.15%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민의 경우에도 ‘대중의 관심 및 인식 부족’이 36.29%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축제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참여할 의향이 있다(매우 있다)’가 각각 44.4%, 42.43%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할 의향이 없다(전혀 없다)’는 각각 17.16%, 7.33%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의 관심 및 인식 부족은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 및 인식 부족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문화예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제주 문화예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관광객들은 ‘타 지역의 의식, 축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문화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제주 문화예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3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지의 사회에 섞여 그곳의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해보고자 하는 탐험적 동기’ 20.92%, ‘직접 참여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동기’ 19.39%,

‘즐거운 분위기나 집단적 흥분감, 일체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가 15.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고유의 문화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창조’와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이 각각 20.37%, ‘관광시즌을 연장하고 관광지를 확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들의 참여욕구를 바탕으로 관심 및 인식을 재고시켜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면 ‘축제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중의 인식 재고’가 29.37%로 높게 나타났고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27.11%,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17.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제주 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홍보측면, 프로그램 개발 측면,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상품은 문화적 욕구를 가진 관광객을 가진 대상으로 하므로 타 관광형태보다는 역사적, 교육적, 체험적 효과가 강하며, 전통적인 경승관광에 비하여 체제기간이 길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또한 문화관광상품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공연장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므로 계절적 제한이 없으며 자연경승관광상품에 비하여 이동성, 가변성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 민속무용의 공연예술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취급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춤 공연에 대한 기획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예술행정을 목적으로 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의 모색과 공연장 지역의 특성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마케팅의 전략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 민속무용에 대하여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사람들의 기억

에 가장 잘 남을 수 있는 경로는 ‘TV나 신문광고 등의 대중매체(59.3%)’이므로, TV 및 Radio에서 광고를 하며,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국 관광정보(file data base system) 등도 도입하여 제주 민속무용의 관광 참여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제주 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민속무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취약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전통 무용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 극복의 방안으로서 정적인 공연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세심한 수립과 참여자가 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오락성이 있어야 하고, 제주 민속무용의 창조적 문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층과 젊은이, 여성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지역 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또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제주도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요소를 통일된 이미지로 특화하여 프로그램의 구심점 형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지역의 상품화 및 수익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무대공연화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제주 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계승 주체자인 신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선상에서 무용 대중화 문제를 조기교육 문제와 연관 지어 고려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의 무용 특활 활동을 적극 확산해야 하며, 또한 학교 및 스포츠센터, 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용 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이 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제주도가 청소년층에게는 모험과 교육 그리고 문화의 장,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민속 문화가 숨 쉬는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통예능의 보유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무용공연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연예술경영 측면에서 보완, 예술적 가치 상승과 더불어 관객의 관심유도 방안을 관객의 예술적 성향과 욕구에 만족하는 작품생산, 연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객의 이해도 상승 작업, 관객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소외된 관객의 유치 역시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 민속무용의 대중적 활성화 전략은 무용 전공자나 무용 예술인 등 특정 집단의 의식적 개혁이나 춤 형식의 모색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전통예술의 생활화와 대중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5장 제주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본 연구자는 제주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탐라순력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탐라순력도와 함께하는 제주 전통 문화 예술 체험교실’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우기→감상하기→체험하기의 연계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하여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회가 되며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한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50.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탐라순력도와 함께하는 제주전통문화예술체험교실	
대상	청소년	
장소	탐라순력도박물관	
성격 및 목표	<p>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가 관할지역을 순력하면서 글과 그림으로 남긴 최초의 기행 문으로써 18세기 초 제주도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 있는 역사적 유물이다. 또한 그 당시 제주도 춤의 연희 형태를 추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는 제주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서양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운영내용	<p>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탐라순력도의 도면들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제주전통문화에 입문시킬 수 있도록 배우기→감상하기→체험하기의 연계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p>	
	배우기	<p>총 41면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동일한 춤의 형태가 나타난 그림들을 구분한다.</p>
	감상하기	<p>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춤의 형태를 재현한 실제 공연 혹은 영상으로 감상한다.</p>
	체험하기	<p>과거 조선시대 제주도로 돌아가 그 당시 춤 문화를 놀이와 함께 몸소 체험한다.</p>
기대효과	<p>가. 제주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p>	

표 51. 탐라순력도의 인식내용

구분	내용	
경위	1702년(조선 숙종 28)	제작
	1703년 8월	완성
	1979년 2월 8일	제주보물 652-6호로 지정
	1998년 12월부터	제주시 소장
	현재	국립제주박물관 전시
제작자	제 작: 병와 (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 그 립: 제주목 소송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 글 씨: 오씨 노인	
목적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순력을 마친 후, 이를 기르기 위함	
구성	한라장축	제주도 지도 1면
	행사기록도	제주도 행사장면 39면
	호연금서	제주도를 떠나는 장면 1면
	화기(畵記)	이형상의 기록 2면
	총	43면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화사적 측면-의궤반차도식(儀軌班次圖式) 기록화 민족지(民族誌)적인 기록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관료가 글과 그림으로 남긴 최초의 기행문 독립된 지방정부로서의 제주도 위상 정립 지방에서의 궁중무용 연희 형태 추론 	
춤의 형태	무고	굴림풍악, 정의양로, 제주양로, 대정양로, 정방탐승, 병담범주
	남성 2인무	정의양로, 제주양로, 정방탐승
	포구락	제주양로
소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가치의 인식도 부족 내재된 춤의 형태 복원 미흡 공연으로의 활성화 노력 상실(급조성, 일회성) 	

2. 해녀춤 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해녀춤 프로그램은 문화체험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해녀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녀 문화 체험여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체험하기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인 해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며 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면서 제주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2. 해녀춤을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해녀문화체험여행					
대상	일반인(제주도민, 관광객)					
장소	해녀박물관					
성격 및 목표	<p>제주 고유의 민속무용을 발굴·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창작된 해녀춤은 제주민요에 맞추어 생활모습에서의 놀이적인 형상을 동작화한 것으로 물질장면, 불턱장면, 귀가장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해녀춤은 제주 전통춤의미를 가장 잘 간직한 형태로써 이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운영내용	<p>본 프로그램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32 1111 1334 1364"> <tr> <td data-bbox="432 1111 560 1234">이해하기</td> <td data-bbox="560 1111 1334 1234">박물관 관람 전 영상실에서 해녀의 삶을 춤으로 형상화 한 해녀춤을 간단한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td> </tr> <tr> <td data-bbox="432 1234 560 1364">체험하기</td> <td data-bbox="560 1234 1334 1364">감상 후 해녀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면서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td> </tr> </table>		이해하기	박물관 관람 전 영상실에서 해녀의 삶을 춤으로 형상화 한 해녀춤을 간단한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체험하기	감상 후 해녀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면서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
이해하기	박물관 관람 전 영상실에서 해녀의 삶을 춤으로 형상화 한 해녀춤을 간단한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체험하기	감상 후 해녀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면서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					
기대효과	<p>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인 해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진다. 나. 해녀문화가 갖는 가치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그 소중함을 일깨운다.</p>					

표 53. 해녀춤의 인식내용

구분	내용		
경위	1964년	송근우	해녀놀이 안무
	1967년		영감놀이, 영등굿놀이, 입춘굿놀이와의 접목
	1969년		해녀놀이 독자적으로 구성
	1990년	김희숙	해녀놀이→해녀춤으로 재구성, 무대화
	2004년	양성옥	해녀춤의 재창조, 정형화
경력	1964년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녀놀이 장려상
	1967년	제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녀놀이+ 영감놀이 종합최우수상
	1968년	제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녀놀이+ 영등굿놀이 국무총리상
	1969년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녀놀이 문화공보부장관상
	1972년	아세아 국제경연대회	해녀놀이 최고상
	1973년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녀놀이+ 입춘굿놀이 장려상
목적	1960년대 중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놀이 부분에 출연하기 위해 제주도 고유의 민속무용을 발굴·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창작되어짐		
구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해녀노래(물질장면) → 불턱장단(불턱장면) → 오돌또기(귀가장면) </div>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양태에서의 놀이적인 형상을 동작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에서 단 둘뿐인 해녀(일본의 아마) 제주 여성의 정신적 의지 함양과 표출 제주 일상생활의 모습을 반영한 독특한 춤사위 		
춤의 형태	구성	추가 되는 춤사위	
	물질장면	태왁 놀림 사위, 물질사위, 숨비사위, 감돌아드는 사위 등	
	불턱장면	불턱장단 치는 사위	
귀가장면	감돌아드는 사위, 노을사위, 태왁 들 사위, 둥그레 당실 사위 등		
소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녀들의 소멸 해녀들의 역사적 활동 연구 빈약 의상, 도구, 제작 기술 등의 전승보존 체계 미약 		

두 번째,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중 하나인 해녀춤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단계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1단계, 제주도 해녀 박물관 직접 체험하기

2단계,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

3단계, 해녀춤사위 익히기

4단계,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춤의 대중화

제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해녀를 모티브로 하여 무대화된 무용으로 실제 해녀가 물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놀이의 형태인 아쿠아로빅 댄스와 접목시켜 현장학습 프로그램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54-1. 제주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1단계

대상: 성별분류- 어린이 및 청소년		일시: 2010 5월 15일	장소: 제주 해녀박물관
주제	제주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도 해녀박물관 직접 체험하기 2.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3. 해녀춤 익히기 4.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해녀춤 대중화 		
준비	지도자	간편한복장, 마이크	
	체험자	간편한복장, 메모장	
지도과정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해녀박물관 직접관람 - 모임(제주시 구좌읍 하도읍 3204-1/tel064)782-9898) - 관람점 에티켓 설명하기 - 해녀에 대한 기초상식 이야기하기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전시실 해녀의 삶 관람 2. 제2 전시실 해녀의 일터 관람 3. 바다 관람 4. 어린이 해녀체험관 관람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실 관람 2. 유물 검색 	
	정리	해녀의 삶과 문화에 대한 토론	
기대효과	<p>아동 및 청소년기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으로써 직접적인 문화체험을 통해 제주도 문화를 이해하고 제주도만이 독특한 생활방식과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삶이 곧 문화라는 문화인식을 키울 수 있다.</p>		

표 54-2. 제주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2단계

대상: 성별분류- 어린이 및 청소년		일시: 2010 5월 15일	장소: 제주도 문화회관
주제	제주 해녀춤 문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목표	1. 제주도 해녀박물관 직접 체험하기 2.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3. 해녀춤 익히기 4.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해녀춤 대중화		
준비	지도자	장구,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음악준비	
	체험자	간편한복장 , 장구	
지도과정	단계	1. 2단계 - 제주민요 익히기/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장단익히기 /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도입	1. 이어도 사나 노래 들려주기 2. 오돌또기 노래 들려주기	
	전개	1. 이어도사나 노래 익히기 2, 오돌또기 노래 익히기- 굿거리장단 3. 불턱장단 익히기- 자진모리 장단	
	정리	1. 노래 부르면서 장단 쳐보기	
기대효과	제주도 민요의 생성배경과 노래를 들려주고 익힘으로 해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기본 춤 장단과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을 비교하며 익힘으로 해녀춤에 나타난 민요를 통해 제주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표 54-3. 제주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3단계

대상: 성별분류 어린이 및 청소년		일시: 2010 5월 15일	장소: 제주도 문화회관
주제	제주 해녀춤 문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목표	1. 제주도 해녀박물관 직접 체험하기 2.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3. 해녀춤 익히기 4.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해녀춤 대중화		
준비	지도자	태악, 장구,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음악준비	
	체험자	연습복, 슈즈, 태악(소품)	
지도과정	단계	1. 3단계 - 몸풀기 - 해녀춤사위 익히기(물질사위, 습비사위 등)	
	도입	1. 몸풀기 2. 소품 및 의상 설명하기 3. 해녀춤 시청각 자료 관람하기	
	전개	1. 이어도사나 민요를 통한 해녀춤 기본사위 익히기 2. 오돌또기 민요를 통한 해녀춤 기본사위 익히기 3. 불턱장단에 해녀춤 기본사위 익히기	
	정리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연결하고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춤사위를 반복 연습하며 익힌다.	
기대효과	몸풀기 동작을 함으로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며 해녀춤에 나타난 춤사위를 장단별로 습득함으로써 한국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제주춤의 역사를 인지할 수 있다.		

표 54-4. 제주 해녀춤 현장학습 프로그램 4단계

대상: 성별분류- 어린이 및 청소년		일시: 2010 5월 15일	장소: 제주도 문화체육관
주제	제주 해녀춤 문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목표	1. 제주도 해녀박물관 직접 체험하기 2.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3. 해녀춤 익히기 4.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해녀춤 대중화		
준비	지도자	수영복 , 수영모, 수경,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음악준비	
	체험자	수영복 , 수영모, 수경	
지도과정	단계	1. 4단계 - 몸풀기 - 수영장에서 해녀춤을 활용한 놀이형식의 아쿠아로빅 체험하기	
	도입	1. 스트레이칭을 통한 몸풀기 2. 물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연습 3. 물안에서 주동작 몇가지 익히기- 물질사위, 숨비사위, 전복 따는사위, 태왁망사채우는사위, 태왁던지는사위 등	
	전개	실제 수영장 안에 모형 해산물을 놓고 주동작을 하면서 해녀 간접 경험하기	
	정리	음악과 함께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기	
기대효과	해녀춤을 활용한 아쿠아로빅은 어린이 및 청소년기에 중요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형해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놀이형식으로 접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제주도 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표 54-1>부터 <표 54-4>까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해녀박물관 직접 체험하기’는 제주해녀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기의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문화체험을 직접하게 함으로써 제주도 문화를 좀 더 이해함은 물론 삶이 곧 문화라는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 익히기-이어도사나, 오돌또기’는 제주도 민요의 생배경과 노래를 들려주고 장단을 익힘으로써 우리나라 기본 춤 장단과 해녀춤에 나타난 장단을 비교하여 제주민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제주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한다.

셋째, ‘해녀춤 익히기’는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민요를 통한 주된 몇 가지 기본 사위를 익히되, 특히 불턱장단(자진모리)에 나타난 주된 사위를 익힘으로써 제주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시에 제주춤의 역사를 인지도시킬 수 있다.

넷째, ‘wellness 아쿠아로빅을 활용한 해녀춤의 대중화’는 해녀춤을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에 중용한 도움을 주고, 모형해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하는 놀이형식의 접목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제주도 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3. 칠머리당영등굿 문화 체험 프로그램

칠머리당영등굿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주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체험하는 과정으로는 이해하기→체험하기로 칠머리당영등굿에 나타난 서우젯소리, 연물, 굿춤 등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일반인이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종교인 무속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표 55. 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소리, 몸짓으로 제주문화를 대표하다					
대상	일반인(제주도민, 관광객)					
장소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성격 및 목표	<p>제주의 민속문화에 대해 말할 때에는 굿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새 봄을 여는 계절적 축제로 우리나라 특유의 해녀신앙,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유일한 해녀굿이라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 속에 녹아있는 형태미를 탐구하여 일반인들에게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으로 전통문화 기예능인에 대한 재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운영내용	<p>본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들을 차례로 모시는 의례로 구성된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한 이해와 이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35 1272 1337 1451"> <tr> <td data-bbox="435 1272 560 1361">이해하기</td> <td data-bbox="560 1272 1337 1361">8제차로 구성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감상한다.</td> </tr> <tr> <td data-bbox="435 1361 560 1451">체험하기</td> <td data-bbox="560 1361 1337 1451">감상 후 제차에 나타나는 서우젯소리, 연물, 굿춤 등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td> </tr> </table>		이해하기	8제차로 구성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감상한다.	체험하기	감상 후 제차에 나타나는 서우젯소리, 연물, 굿춤 등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
이해하기	8제차로 구성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감상한다.					
체험하기	감상 후 제차에 나타나는 서우젯소리, 연물, 굿춤 등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한다.					
기대효과	<p>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종교인 무속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나.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된다.</p>					

표 56. 칠머리당영등굿의 인식내용

구분	내용					
경위	1980년 11월 17일	제주 칠머리당굿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				
	2006년 6월 19일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으로 명칭 변경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전승	전승자	<table border="1"> <tr> <td>보유자</td> <td>김윤수</td> </tr> <tr> <td>진수교육조교</td> <td>고순안, 이용순</td> </tr> </table>	보유자	김윤수	진수교육조교	고순안, 이용순
	보유자	김윤수				
진수교육조교	고순안, 이용순					
전승지역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일원					
시기	영등환영제	음력 2월 1일(영등신이 들어오는 날)				
	영등송별제	음력 2월 14일(영등신이 떠나는 전날)				
목적	해녀 채취물(미역, 전복 등)들의 풍등(豊登)과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					
구성	1 초감제	집안에 행운을 비는 제차				
	2 본향똥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비는 제차				
	3 요왕맞이	어부, 해녀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차				
	4 마을도액막음	마을 전체에 액(厄)이 없기를 기원하는 제차				
	5 씨드림	해녀 채취물의 씨를 다시 바다에 뿌리고 풍흉을 점치는 제차				
	6 영감놀이	도깨비신인 영감을 청하여 어업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차				
	7 배방선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전송하는 제차				
	8 도진	처음 청해 들인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음 • 생산의례적인 촌락 공동제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 전통 민간신앙의 보고(寶庫) •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굿(학술적 가치) 					
춤의 형태	수렵, 목축, 육아, 가사 등 생활노동의 동작을 표현하는 다양성을 보임					
소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 • 일정한 형식과 체계의 부재 • 절대적인 홍보 부족 					

제6장 결론 및 제언

원래가 문화란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바탕이 된다. 어렵게 살았던 과거에 우리에게서 고유한 개인, 가정, 마을 공동체의 문화가 있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가 각기 그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마을에 산다하더라도 갖가지 집의 형태나 마당, 부엌, 음식, 의복 등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자기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모두가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문화의 부재인 동시에 의식의 소멸이요 민족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전통의 보존을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의 답습 또한 무서운 과오이다. 우리 것이라는 이유로 과신하지도 말 것이며 옛 것이라고 하여 도외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문화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민속 문화의 경우는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오래토록 지속되고 방치된다면 그 끝이 바로 소멸로 직결되는 것이다.

단,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다. 지역 문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자연스레 생성, 성장하는 자생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현재에 있어 활성화 되어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산물이요 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도 무용문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의 민속 문화는 정치, 사회적으로 독특하고 독립적인 형태를 띠면서도 중앙의 양식을 받아들여 융화, 발전시켜온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서 탐라순력도는 궁중정제가 지니고 있는 풍류성을, 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특유의 주술성과 춤 문화를, 해녀춤은 민속놀이이면서 동시에 연회적 성격이라는 미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셋째, 제주도 무용문화의 활동을 대표하는 제주도립무용단은 1964년에 출범한 제주민속예술단을 뿌리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양한 작품 활동에서도 제주 곳을 상징화한 무속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민속 문화와 무용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제주도 민속 문화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민은 물론이요 제주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전반적인 인식도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민속 문화의 침체와 비활성화의 원인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관객들의 인식부족의 탓으로,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예능인이나 학자들의 경우는 그 이유를 행정적 미비로 인한 시스템의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2. 제주도의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단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의 관심 및 인식부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3.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동기가 직접적인 참여, 여가선용, 지역주민과의 접촉, 흥분과 일체감 경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있어 대중의 인식재고,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제주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제주도내 대학에 무용과를 시급히 신설하여 제주무용예술의 근본적인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홍보효과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대중매체로 나타남에 따라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제주민속무용의 관광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3. 제주도민의 다양한 계층과 외부의 방문객들이 함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직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무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적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노력들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제주 전통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화하고 이것이 제주도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다양한 민속무용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제주무용의 맥을 이어야 한다.
- 4) 도내에 전문 인력 집단을 양성하여 서울로 올라간 재원들이 다시 내려와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1세기 제주무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양성의 교육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여 이를 위해서는 제주정책 담당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 국립제주박물관(2003).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 김병택(2010). 『제주예술의 사회상. 상』, 보고사.
- 김상헌(저), 김희동(옮김)(1992). 『남사록(1601)』, 영가문화사.
- 김선풍 외(2002). 『우리민속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 김영돈(저).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영민(2005). 『우리 조상신앙 바로알기』, 새문사.
- 김영일, 최재남(2004). 『한국의 민속과 전통의 이해』, 세종출판사.
- 남제주군(2006). 『(60주년) 남제주군지.1권-3권』, 남제주군.
-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 문무병, 국립문화재연구소(편)(2008),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제 제71호』, 민속원.
- 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도서출판 황금알.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편)(1985). 『중요무형문화재해설: 놀이와 의식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0).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4).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74). 『한국 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민족문화추진회(옮김)(2007). 『신편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학술정보.

- 박진규, 정철상(공저)(2005). 『지역문화와 축제: 기획과 연출』, 도서출판 글누림.
- 배영동 외(저)(2001). 『한국민속학 새로읽기_물질경제생활』, 민속원.
-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2006).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 양성옥(2005). 『해녀춤·물허벅춤』, 제주도문화진흥원.
- 양순필, 김순택 외(저)(1986).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 이영권(2005).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원진(저), 오수정(역)(2002). 『역주 탐라지(1653)』, 푸른역사.
- 이형상, 김남길(1979).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동권(2003). 『민속문화의 현장』, 민속원.
- 임동권(2007). 『민속문화의 전승』, 민속원.
- 용호성(2010). 『예술경영』, 김영사.
- 제주도(2003). 『문화예술현황: 문화·예술·문화재』, 제주도.
- 제주도(2003).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서』, 제주도.
-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6). 『제주도지: v6. 문화·예술』, 제주도.
- 제주도립예술단편찬위원회(2002). 『제주도립예술단사: 1990-2001 화보,자료집』, 제주도문화진흥원
- 제주문화예술육십년사편찬위원회(2008).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예술육십년사편찬위원회(2008). 『제주문화예술 60년사. 3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원(편)(2005). 『역주 증보탐라지(1954)』, 제주문화원.
- 제주발전연구원(편)(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전』, 도서출판 보고서.
- 제주시50년사편찬위원회(2005). 『제주시오십년사』, 제주시.
- 제주신문오십년사편찬위원회(1995). 『제주신문오십년사: 1945-1995』, 제주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2007). 『제주여성의 공간과 삶』,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

- 좌혜경 외(2006).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 진영일(저)(2007).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도서출판 보고사.
- 최용주 외(2005). 『아시아의 무속과 춤 연구』, 민속원.
- 최형철(저)(2007). 『박물관 속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 편집부(2001).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0). 『문예연감2000-200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1988). 『제주문화예술백서』,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제주
주도.
- 현길언(저)(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 홍석모(저), 정승모(역)(2009). 『동국세시기(1849)』, 풀빛.

<학위논문>

- 강지희(2005).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춘식(2008). 「제주해녀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범(2004).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은(2003). 「중·고등학교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도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아영(2009). 「현대무용 대중화를 위한 인식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94). 「제주도 무속무의 실체와 특이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죽엽(2009). 「포구락의 실제 비교분석을 통한 놀이문화적 가치인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수(2003).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아(2008). 「공연장브랜드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장과 소비자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국(2002).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연구: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수(2005). 「한국 궁중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 원필녀(1991).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훈(2008). 「지역축제 참가자의 만족 및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철후(1993). 「민속예술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훈일(2003). 「한국창작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인식조사와 발전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수이(1995). 「무속의식절차 과정 중에 내포된 춤 형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형지(1999). 「제주<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연(2003). 「공연장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석중(1993). 「한국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 강민석(2009). 제주도 내 기초예술활성화에 대한 제언.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8」.
- 김기원(1994). 제주도 공연예술 진흥책에 관한 소고. 「제행논총 2」.
- 김범훈(2009). 2009년 제주문화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에 필요한 것은. 「제주예총 21」.
- 박성배(2003). 제주회화의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 「제주조형예술연구」.
- 양순필 등(1986). 제주도내 특수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발전연구 2」.
- 양영웅 등(1990). 한국문화속의 제주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 「배달말 (34)」.
- 장효순(1996).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의식에 내재된 무용미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 좌혜경(2009).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회문화프로그램 개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8」.
- 최용철(2008).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전망.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7」.
- 현용준(1990). 제주도 전통문화 예술의 진흥. 「제주도연구 7」.

<정기 간행물>

- 이구슬(2006).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고찰」. 『문화경제연구』, 12월호.

<대담 및 인터뷰>

- * 고희송 - 제주문화재단 문화기획담당
- * 김순이 - 제주문화재 감정관
- * 김윤수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
- * 김창집 - (사) 탐라문화보존회 회장
- * 김희숙 - 전) 독립무용단 초대 안무자, 현) (사) 제주춤 아카데미 대표
- * 문무병 - 제주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 * 유경하 - 제주국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담당
- * 이창훈 -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
- * 정공철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운영위원

부 록 1

❖ 제주 민속 문화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 대담

<고희송>

문화재단에서 탐라순력도나 칠머리당영등굿, 해녀춤 등의 무용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먼저 저희 재단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다양한 문화사업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님으로 해서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단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독자적인 성격은 아니고 제주도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원래는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기금을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탐라문화제나 입춘굿놀이 같은 경우의 예산도 여기서 책정하고 집행하십니까?

그것은 이쪽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용, 연극, 음악 등의 일반 창작활동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격과 비슷한 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무용의 토대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연지원의 심사와 집행을 관장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가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육지로 나가시잖아요. 일단은 교육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용뿐만이 아니라 연극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술학과, 음악학과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 건축학과 정도가 어떤 정규 과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음악, 미술, 문학의 경우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러한 장르의 공통점은 제주도내 대학에 관련학과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약순환이죠. 예를 들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자체가 없으니 공급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수요측면에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안 이루어진다는 식이죠. 이처럼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것이 고민인거죠.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만들면 뭐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나서 활동할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주대학 내에 독립적인 예술대학이 없고 그나마도 관련학과가 인문대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구조

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전문적인 예술대학 신설이 논의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가 공과대학에 속한다는 시각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용이 독립되지 못하고 체육 안에 속해 있는 것만큼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나마 음악, 미술, 문학 쪽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무용 분야는 아직도 열악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활동할 예술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타지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그 이유도 결혼을 해서 왔다가 어차피 여기서 살 거니까 무용예술 강사를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한 수치가 80%에 육박합니다.

예술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주도 내에서 활동할 장도 열악하니까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열심히 교육하고자 하는 이유도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예술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지를 기름지게 하는 게 저희 재단의 목표입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은 발전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단적으로, 재단에서 바라보는 무용분야의 지원금 신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할

머니나 아줌마들이 잠깐 학원에서 배운 무용을 가지고 와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분들이 ‘동호회’라는 편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예총 같은 경우 단원의 30%는 비전문가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비전문가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작가들 중에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용분야의 경우 그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앞으로 무용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주도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재단은 무용에 대한 아카데미적이든가 이론적인 것보다 인식변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무용이라는 것이 특정계층에서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장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작업인 것입니다.

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트리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아트는 예술이고 리치는 ‘다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통해서 발표력을 높이려고 하는 목표치에 다가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변환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문화가 활성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향유하려면 우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트리치프로그램 본래의 취지입니다.

제주도의 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교육적 측면이라는 말씀인데 그 외에 정책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을 2-30년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나? 분석결과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던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우수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도출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유층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예술인들에게만 한 거예요. 이것은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사십시오’ 라는 셈이니 나중에는 직업예술인들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무용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지원정책은 펼쳐보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해진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예술 창작 작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

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용에서 다섯 분이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 작업을 위해 한 달이 걸린다면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10%로 빼고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지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 문제말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제주도가 예술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구조차가 60만이 채 안되다 보니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술가들한테 하는 말이 ‘우물 안의 개구리는 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작은 하되 창작된 상품은 육지로 가서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받더라도 공연을 꼭 제주도에서 하란 제약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1년에 집행하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무용분야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총지원금은 대략 15억 정도이며 무용공연은 5-6건으로 전체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무용단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젊은 무용가들이 새로운 무용들을 개발하고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은 작품을 창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강사들 중에 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모두 무용전공자들이고요. 그런데 전국무용제 같은데 나갈 때 무용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주도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용의 경우도 제주도만의 독특한 해녀춤이라든가 물허벅춤에 대하여 꾸준히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될 듯 싶은데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주도 문화는 단적으로 노동문화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하더라도 일단의 생각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타 같은 경우가 두들기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그러한 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물 중에 보면 악기의 체를 뒤집거나 국그릇 같은 것을 옆어놓고 놋그릇으로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활용이 쉽고 재미난 것을 개발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윤수>

칠머리당영등굿 과정에서 원래 씨드림과 마을도액막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책에는 마을도액막음을 먼저 하고 씨드림을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저희 보존회 같은 경우는 씨드림이 액막음보다 먼저입니다.

현재 칠머리당영등굿의보존과 전승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유네스코에까지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보존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승체계의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대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행사에서 칠머리당영등굿을 시연하실 때 그 긴 과정을 전부 연희하실 수는 없을 테이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행사 시간에 맞게 특정 종목만 잘라서 합니다. 요왕맞이면 요왕맞이, 본향뜰이다 초감제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한다면 하나하나에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초감제에서 30분이면 30분, 본향뜰 10분이면 10분, 요왕맞이면 한 30분, 이렇게 종목대로 잘라서 전체적인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보통 보존회에서 영등굿을 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처럼 행사에서 편집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초감제, 본향툇까지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요왕맛이입니다.

7가지 과장 중에서 춤 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어느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초감제, 요왕맛이, 본향툇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수자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존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수시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굿하러 가서 보고합니다. 대부분이 굿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외에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 전수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하고 싶으면 전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전수하고자 하는데 있어 따로 이 조건 같은 필요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라산 놀이패나 신나라 풍물패 같은데서 활동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전수나 이수 과정은 얼마나 걸리며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제약은 없습니까?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각자의 능력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지에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굿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주도의 칠머리당영등

곳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육지 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각 마을마다 영등굿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칠머리당영등굿의 경우는 전승이 잘 되고 있고 마을과 일반인, 회원간의 화합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면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재 지정 과정은 어떠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서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재청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결국 세부적인 모든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관할하는 거고 국가지정이 되기 전에는 지역보호 차원에서 얘기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고 문화재청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면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경로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칠머리당영등굿이 우리나라에서 곳으로는 처음이라는 게 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창집, 김순이>

흔히, 제주도에는 독특하고 전통적인 춤 문화가 없다고들 말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1965년도에 와서야 송근우 선생님의 의해 체계적인 정립이 시작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집: 예전의 제주도에서 춤 연회가 행해지는 것은 잔칫날 주로 했는데 특히 저녁에는 동네사람들 모셔다가 마당 한가운데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 소리 잘하는 사람의 경우 보통 설장구와 허벅장단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데 간혹, 남자 둘이서 추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춤은 탐라순력도의 정방탐승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배 한 쪽에서 춤을 추니깐 흔들리고 그러다보니 여자들은 무서워서 폭포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결국 남자 둘이서 마주보고 춤을 추게 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악단이랄까? 악공들이 흥에 취해 연주를 많이 하는데 요즘처럼 큰 북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춤이라면 무엇보다 무당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 형태는 대략 두 갈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학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교습되고 있는 현대무용적인 것과 송근우선생님이 하셨던 허벅춤 같은 것이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허벅춤 같은 것도 거리축제에서 보여지듯이 마스게임 형식의 눈요기감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 무속인들은 적어도 종합예술인들이라 말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김순이: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무속춤의 춤사위들은 일정한 게 아니라 각 장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전통춤사위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꼭 짚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선 복잡하게 뛰면서 하는 것을 도랑춤이

라 하여 화나거나 기쁘거나 하면 즉흥적으로 추게 됩니다. 가령, 도랑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것저것을 섞어서 안무를 해야 하는데 전통무속의 종류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춤도 그 효용성과 목적에 따라 명확한 춤사위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가 많아요. 우선 음악 쪽도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무용은 더 하지요.

칠머리당영등굿의 경우 도랑춤, 신칼춤, 신청계춤, 물감상춤 등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식절차이지 않습니까? 춤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창집: 분화가 덜 되어 있다고는 하여도 기본은 춤에서 왔다고 보아야지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종합예술의 형태이기에 옛날의 제(祭)를 통하여 무당이 춤추면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순이: 가락을 얻었을 땐 다 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행위나 요식절차라는 잣대로 놓고 본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문화와 사고를 염두에 둔다면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겁니다. 춤을 출 때, 우리도 모르게 음악을 빨리 치면 빨리 나와 버리게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하게 됩니다. 나아가 기도나 기원의 형태 또한 인간의 춤 행위를 통한 기원일 수도 있고 억울하면 해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용을 이해하여야 할 겁니다.

김창집: 무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체계가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무속인들에 의해서 계속 전승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한 춤이라고 여기고 있

는 현재의 승무를 봅시다. 지금은 비교적 정제, 절제되어 있지만 이 춤 또한 하나의 고대 신앙이요 종교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언젠가 집안사람의 49제 때 보니 스님이 와서 춤을 추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워 보일 수가 없어요. 워낙 춤을 잘 추니 멀리서 모셔왔다고 해요. 그 분이 바로 그 춤의 전문가인 셈이지요.

김순이: 그러한 춤을 보면 사람 마음이 정화가 되잖아요. 종교적인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춤의 원초적인 효과를 본 거예요.

김창집: 무언가 종교적인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볍게 나는 듯이 춤을 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용을 잘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 춤추는 것을 보면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도 신나서 같이 어울려 춘다고요.

김순이: 흥에 겨워지면 요새 사람들이 보기에 막춤으로 치닫는데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근래들어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그림들 중에 춤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장면을 끄집어내어 나름대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춤적인 요소들의 보존이라던가 정기적인 연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순이: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요소들이 이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회갑연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춤들이 추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탐라순력도의 그림에는 궁중무용의 형태와 모습이 보입니다. 무고춤이라던가 포

구락 같은 경우, 의물이 똑같고 악사나 왕이 앉아 있는 배치도 또한 중앙의 궁중무용과 아주 흡사하던데요?

김순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방에서 훈련된 기녀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냥을 갔을 때 사냥만 하루 종일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흥의 시간으로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사냥이 잘 되도록 샤머니즘적인 신명의 기원을 했을 터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참가자들의 장기자랑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기에 각 마을별로나 아니면 정의연, 대정연, 제주목 등등 해서 사냥 연회 놀이라던가 사냥복장으로 쫓고 쫓기는 행동들이 춤판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제주박물관에서 이러한 연회에 대한 정기적인 공연이라던가 재연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창집: 박물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박물관이 없었던 시기가 워낙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었던 터라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이: 중국 건륭황제의 인생경영이라는 책을 보면 건륭황제가 7번인가 8번 중국의 여러 군데 순력을 해요. 순력하는 동안 하루에 25리 이상은 안가고 나머지는 그 동네의 재미난 여흥거리로서 음악이나 춤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중과의 또 다른 소통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애초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귀의 성과는 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주지방에 대한 사료적인 근거에 대한 것은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까? 제

주지방의 춤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김창집: 탐라순력도 말고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주도 및 그 주변 도서의 환경과 풍속, 방언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분은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문고를 잘 타서 집에 돌아갈 때도 달랑 책 몇 권과 거문고 하나를 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미 300년 전의 일이고 보니 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김순이: 무당의 모든 복장이 관복에서 나온 겁니다. 관복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당의 모든 춤도 관에서 추던 것이 변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창집: 지금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농악도 육지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제주도 특유의 농악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통해 당시에 추어졌던 춤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순이: 제주 지방의 춤을 이야기 할 때 굿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을 맞아 들일 때까지 인간으로서 추는 춤이 있고 신이 내리면 신으로서 추는 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되어서 추는 춤도 있고 보니 일인 몇 역씩을 하게 됩니다. 대신, 점잖게 춥니다. 아주 간절하게 춘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제주도의 굿은 칠머리영등굿보존회 같은 곳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이: 요즈음 영등굿은 이제 원형이 많이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몇 번씩 돌아야 할 시간에도 그냥 그 앞에 멈춰 서서 얼쩡거리기 일쑤입니다. 잘못된 거죠. 사진을 찍던, 방송을 하던 상관없이 제 움직임 제대로 뽑아내어야 하는

데 말입니다.

김창집: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각종 행사에서 시연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행사의 시간에 쫓겨 거기에 맞추다보니 대부분이 생략되고 약식으로만 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굿 본래의 느낌을 찾기가 힘듭니다. 원래 굿을 할 때는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도 감정이 동화되어 같이 울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김순이: 요즘은 오히려 시골추세가 더 감동을 줍니다. 시골에는 시연이라는 게 없으니 제대로 하잖아요.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쪽 민속춤이나 문화의 원형보존을 위한 일정한 시스템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창집: 무용연구소라고 해서 있긴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예것을 창작화해서 춤을 추더라고요.

김순이: 옛날에는 마을에서 잔치할 때 으fp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굿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부조를 들고 가서 구경을 하고 끝나면 또 같이 춤추고 하기를 일년에 몇 번식을 했습니다. 그 때는 팔만 들어올려도 어깨가 들썩들썩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춤 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냥 플랜카드 하나 매달고 끝이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창집: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것이지요. 그리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미신이라고 해서 한동안은 곳을 못하게 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숨어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깐 쪽 해오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무용 이외에 제주도의 민속 문화라는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르는 없습니까?

국악 쪽에서 나름대로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본대 그것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환갑잔치날도 돈 주고 정체불명의 춤추는 단체들을 불러다가 놓고 말잖아요.

비전문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집: 그래서 가끔은 춤을 보다가도 원래 저 춤이 저랬었나 하는 의구심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포구락 같은 춤의 경우, 내륙에서 진주포구락은 보존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승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집: 부러운 일입니다. 그것 말고도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농악이나 가면춤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궁지로 삼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그러한 면이 부족합니다. 지리적 역사적 탕도 있을 겁니다. 예로부터 무엇을 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막고 나섭니다. 일제시대에는 문화말살정책이라고 해서 심지어 음력설도 못 세계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주도에 굿이라도 없었으면 민속 문화라는 것은 일찍이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에는 예부터 마을마다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병원구실도 했고 원시신앙이지만 마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당부터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점이 당이었던 셈입니다.

제주도에서 근래에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김창집: 예전에 한라문화제라고 불렀던 탐라문화제하고 입춘굿놀이가 오래되기도 했고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입춘굿놀이는 옛날에 관덕정에서 행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일제시대에는 한동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11년 전부턴가 민예총에서 옛날 기록을 근거로 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시청 현관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나무로 검은 소를 만들어 위풍당당하게 현관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탈이나 각시탈을 쓰고 제를 지내고 풍물을 놀면서 관덕정까지 걸어 갑니다. 일제시대의 사진을 보고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관광특구이니 이처럼 민속적인 것을 상품화 시켜볼만도 할텐데요?

김창집: 그게 바로 입춘굿놀이 정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하면 보통 2월 초하룻날 전날 와야 합니다. 옛날에는 선주들이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계속 해왔으니까 이러한 굿이 오래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도 한 겁니다.

모든 제주도 문화행사의 주가 되는 건 굿인 셈이네요?

김창집: 굿을 빼고 나면 무슨 미술전시회나 민속경연, 제주어말하기대회 같은 것밖

에 없습니다.

제주도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행정적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창집: 금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문화예술 지원금들이 전부 잘리고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단체들이 행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원예산문제도 문제지만 제주도 내의 대학에 무용과 하나가 없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창집: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신경을 꽤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박물관 건립 같은 대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가면 한국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립되고 예술종합학교 같은 것이 세워져 연구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도 '제주학'이라고 만들어서 특별한 제주어라든지 또 제주도 전통 무속의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면 크게 무엇을 꼽을 수 있으며 무용부분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김창집: 민예총이겠죠. 민예총 산하에는 문학, 미술, 놀이패, 사진, 민요 등등 다양한 장르의 단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무용만 없습니다. 무용을 민요나 한라산 놀이패 등에서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집: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민예총 행사에도 가보면 항상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예총관계자들하고 가족들뿐입니다. 젊은 신세대 가수가 온다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까 젊은이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무대나 장소 같은 것은 여유 있는 편입니까?

김창집: 대극장은 기획사가 관여하니까 어렵다하더라도 소극장은 괜찮은 편입니다. 학생문화원 소극장하고 문예회관 소극장은 공연을 할 때 비교적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주도에 쓸 만한 행사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음악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습니다. 육지나 해외의 단체들을 자주 불러오고 전국합창경연대회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창집: 뜻이 있는 전문가나 헌신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딪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대학의 동아리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된 전공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놀이패 한라산 같은 경우를 보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단체는 시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척박했던 7, 80년대에 서로 뜻을 모아 시대적 한을 풍자로써 풀어버리면서 나름대로의 진로를 찾은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김희숙>

제주도 춤 문화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맥을 이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도립예술단에서 오래 동안 활동을 했지만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절대적인 배타성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면 아예 원천적으로 관계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전통이 설 수 있고 어떤 맥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관행이 행정 책임자나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용단의 경우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만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결정자가 딱 있어서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오너가 계속 바뀌다보니 공무원들도 원칙이 없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도 결국은 배타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해녀춤, 칠머리당영등굿, 탐라순력도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문화재 위원들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들조차도 역사적 보존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선 전통춤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물허벅춤도 창작춤이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게 전통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겁니다.

제주도립무용단의 안무자 임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무용단 자체의 독창적인 레퍼토리 개발은 하고 있습니까?

결정권자는 도지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래 실무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아야 옳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립무용단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레퍼토리가 있고 이제는 어쩌면 그것을 보존하고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매방선생님, 정재만선생님 등등 훌륭한 분들이 내려와 훌륭한 기량들을 전수시켜 주셨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혜택을 입은 사람 중의 하나이며 후학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제주도춤이라고 하면 해녀춤, 물허벅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춤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주도 설화를 가지고 했습니다. 제주도 풍경을 그리다 보면 물허벅춤, 해녀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 때마다 배경에 따라서 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태왁 같은 것을 들고 해녀들이 작업하는 거지만 허리에 차고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무속만 해도 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이신 김윤수선생님 같은 분들의 춤추는 모습만 봐서는 스텝이 이렇다 저렇다 따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워낙 오래 춤을 추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단지 소도구만 달라질 뿐, 발추임새나 이런 것은 다 똑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춤추는 사람들에 의해 점차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하신 그대로 정리밖에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대예술로서 재창조해 하는 게 바로 후학들의 몫입니다.

누구나 문제점은 알고 있는 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헛갈립니다. 그리고 피치 못해 올바른 얘기를 할라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 배제가 되기 일쑤입니다. 자기 힘을 키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무용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제주도내 대학에 무용과를 개설하고 여러 무용단체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의 무용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6년째 교류 공연을 가는데 거기에는 민속춤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전문대학은 많잖아요. 도에서 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괜찮을 텐데 예전에 이러한 생각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결국 연극영화과에 밀려버렸습니다. 그 때 제가 주장한 것이 굳이 무용이라고 확정짓지 않더라도 제주민속예술이라는 범주에서 칠머리당곳에 나오는 특이한 연물 같은 것부터라도 연구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해녀춤 같은 경우라도 저에게 배워서 서울로 간 제자들의 춤은 도내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춤하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기억나시는 행사나 작품이 있으십니까?

섬 문화축제가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작품은 굉장히 제주도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자마을 낙천 쪽에 풀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집 짓는 그것을 가지고 무대에 올려보았습니다. 춤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기보다 짚줄 놓고 하는 노동의 과정을 약간만 다듬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의 비디오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까?

1986년도 제주시립예술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무용수들이 없어서 무용학원 원생들로 충당했습니다. 출연료도 없었고 행사 때마다 조금씩 주어지는 돈으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1-2년 지나니까 시에서 연습실을 내주었습니다. 현재의 공설운동장 수영장 바로 옆의 조그마한 연습실 이었는데 그것도 너무나 좋아서 신나게 출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문예회관 극장이 생겼고 도립이 재단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찬조금도 나왔습니다. 당시 무용수들의 봉급이 13만원, 안무자가 2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제주도립무용단 안무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무용이란 것이 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춤 문화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것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정형화된 도립예술단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업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무병>

생각했던 것보다 제주도의 민속 문화의 현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그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예술적이라고 하는 춤이 정형화되기 전인 원래 상태의 곳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 원석부터 하나하나 춤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재창조를 해야합니다.

곳의 원형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접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제주도의 민속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환경적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제주도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제주도내 예술대학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대학이 5개쯤 있습니다. 만약 그 5개의 대학에 예술대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술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은 연극판, 내일은 무용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 민속문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주도에는 양반문화가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

기 힘들지만 아마도 제주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소작농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그들이 ‘우리 놀겠다. 휴가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술도 받아주고 돼지도 잡고 한 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게 안 됩니다. 제주도는 다 개개인이 소작농도 없고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가 육지에 올라가서 밭 메다가 또 쉬었다가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서로 어울려 노는 것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태고적부터 양반 같은 여유와 자태는 희박했다고 보아야 옳겠죠.

이러한 제주의 특성이 정착된데 또 다른 연관성은 없습니까?

제주도에서 양반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교적인 봉건사회의 질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속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쪽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는 본래 계급적 구분이 없습니다.

중앙집권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서민적이면서 탐라국이라는 독자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최고의 중죄인들이 오는 유배지였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 관점은 많이 달라집니다. 선후가 어떻게 되었든 그들은 한때 중앙에서 높은 벼슬과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광해군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오지 않았습니까? 추사 김정희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록 양반사회가 형성되진 않았지만 사회 그 자체의 정신 속에는 다 녹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제주도 민속예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주도는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밭에 가는 것도, 바다에 가서 일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중심의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되었으니까 양반 지배계급을 형성하진 않았지만 무속사회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곳을 통해서 모든 예술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곳은 다 있기 마련인데 제주도의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데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영등굿을 두고 바람의 축제라고 말합니다. 영등할망이 무슨 신이냐 하면 바람의 신입니다. 계절 중 마지막 꽃샘추위를 가지고 오는 그 바람이 시베리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와 꽃을 피우고 봄을 알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꽃샘추위와 관련해 바람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것이 축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등굿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바람의 축제인 셈입니다. 세상천지에 바람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등할망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례지만 신 자체는 바람, 바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의 축제가 제주도의 해양문화와 함께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바람을 가지고 굿을 하는 민족이라니 정말로 멋들어진 말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의 아이디어고 그것이 먹혀들어 가니 신나는 일 아닙니까? 굿이 왜 중요합니까. 직접 굿을 하는 심방들도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선생님도 같이 작업을 하셨습니까?

내가 곳을 연구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봐왔던 것이었기에 무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쓰는 작업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안사인선생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 서류 작성할 때에도 바람애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제주도의 영등곳에 대한 꿈 해몽은 내가 한 건데요. 아마도 그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도 어느 정도 덕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곳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영등곳은 이렇게 서북 계절풍이 불어오는 데서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심방이 차지하는 예술적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심방의 능력 중 대표적인 것이 예인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술적인 기질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심방을 따라가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지에는 남사당패라도 있지만 제주도에는 그런게 없으니 예술적 기질을 주체 못하는 사람은 남사당패 따라 나서듯 심방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심방의 춤사위 하나하나 속에서 감동하기도 하고 밤새 회초리 맞으면서 춤을 배우고 악기를 치면서 사제지간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도제요 예술인 겁니다.

선생님은 제주도 무용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구 제주에 제주대학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건물이 폐쇄되었는데 그 때 그것을 예술대학으로 만들었으면 딱 좋았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제주 무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문화컨텐츠로써 제주의 춤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춤판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소재로 해가지고 거창한 무용극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경제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한 단계 격이 높은 사회가 되려면 예술하는 사람이 품위 있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예술이 지금 북경에 모여듭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경제와 예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것은 예술도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개념을 초월해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프로는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수단과 어떤 작전이 있을지라도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예술계 분야의 지원은 어떤 편입니까?

쉽게 말해 좋은 편이 못됩니다. 진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문예진흥기금도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유경하>

탐라순력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쉬운 일례로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탐라순력도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카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과거의 제주도나 행정관청의 모습을 묘사하는 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병사나 관리, 예기들의 연희형태 등을 설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탐라순력도의 활용가능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그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정방탐승의 경우, 그 장소의 풍경을 부채 위에 그림으로 그린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험교육프로그램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중의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탐라순력도 전체 그림 중에 8-9개 그림에 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

구락, 무고 등이 그것인데 이를 통해 볼 때 18세기 제주도 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중점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탐라순력도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악, 복식, 무용 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적 실무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로의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프로그램 외에 박물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탐라순력도의 다양한 장면을 전시관 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상영하는 동시에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그 내용을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라순력도에 등장하고 있는 포구락이나 무고 등의 춤을 따로이 시뮬레이션화해서 상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훈>

- 인터뷰 대신 설문문항에 대하여 메일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

1. 제주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1)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2009년까지는 많은 축제들이 매년 거행되었지만 2010년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2011년에는 더더욱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큰 축제는 일축제, 들불축제, 입춘굿놀이,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태우여름축제, 4.3위령제, 억새꽃축제, 제주마축제, 최남단방어축제 등이 있습니다.

2)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행사와 그렇지 못한 문화행사에서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서술한 축제들은 제각각 행하여지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보조금 수령하는 축제는 1, 2개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지역 문화콘텐츠가 모자라 차별화가 안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축제의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3)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은 각 장르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역적 특성은 거의 없고 제주마축제와 방어축제, 들불축제 등이 그나마 특색있는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4) 현재 서로 융화되고 있거나 앞으로 융화될 수 있는 장르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사들을 구조조정하고 재창조하여 집중예산을 투자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연구, 검토해 볼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주 향토유형, 무형문화를 재창조하여 민속과 무용, 놀이를 현대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제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입니까?

예술 강사들이 교육내용을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삼입하고 확대하며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 예술교육 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부여야 할 것이다.

2. 제주민속무용에 대한 인식

1) 가장 대표성을 띠는 민속무용은 어떠한 종목입니까?

물허벅, 해녀춤, 무속춤 등이 있습니다.

2)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민속무용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위의 세 가지 춤은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작품으로 공연할 때도 있습니다.

3)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노력과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각 종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각 공연 단체마다 그 때마다 재창작하여 공연하고 있으며 논문이나 무보가 가끔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탐라순력도는 도립무용단에서 공연했지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녀춤은 창작춤이지만 물질 의상과 도구를 활용하며 외부사람들의 호응도가 컸습니다. 칠머리당영등

곳의 경우는 무용작품으로 연구, 정리할 가치가 크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4) 제주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입니까?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 제주민속무용은 전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예산지원과 발표까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식

1) 제주도립무용단이 지니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주도립무용단은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한 무용단체입니다. 따라서 직업무용단으로 무용인들에게 작품성과 도덕성의 위상이 크고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2)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현재적 위상은 어떠합니까?

제주도립무용단의 위상은 아주 열악합니다. 창단 20년 동안 내부적으로 조용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3) 타 지역의 무용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두드러지는 장, 단점은 무엇입니까?

도립무용단원들이 젊다는 것과 제주소품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단원들 개개인의 숙련도가 약하며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 제주도립무용단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입니까?

무용수 개개인이 기본기초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성과 함께 도덕성도 길러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정공철>

‘한라산’이라는 놀이패에서 오래 동안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알다시피 육지에서는 7, 80년대를 거치면서 탈춤이 꽤나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탈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당극도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굿 공부를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가 대학시절이었고 그 때부터 무작정 굿판에 쫓아다녔는데 그 핑계로 망나니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왕할 거라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평생을 마당판에서 살 작정을 했던 겁니다.

무용이라는 측면에서 굿을 바라볼 때 정형적인 춤동작을 뽑아 낼 수 있을까요? 굿 공부라는 것이 1-2년 가치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며칠씩 가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굿을 했다하면 짧아야 하루 종일이고 열흘씩, 보름씩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굿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접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오랜 시간동안 연마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경지의 높낮이가 판단됩니다. 즉, 심방의 자질이 평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방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훈련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심방이라는 자격을 얻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긱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예능이 갖춰지면 ‘너는 이제 심방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신긱을 합니다. 그런데 떡하고 술하고 섞어놔서 아주 먹기 고약한 술이 있는데 이것을 스승이 만들어서 주면 이것을 마시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써 스승과 제자가 부모자식지간이 되는 겁니다. 신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말은 아주 쉬워 보이는데 그 과정이 보통 보름이 걸립니다. 돈도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칠머리당영등긱 같은 경우는 전승체계나 재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다다라 있습니다. 영등긱보존회 쪽에서야 당대에는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될 가장 심각한 것은 50대를 넘긴 제가 거기에 가면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제주긱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운영 조직표 상으로는 젊은 사람들도 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은 제대로 된 심방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처럼 곳에서 어떤 마당놀이의 원리를 배우고자 기능을 습득하는 차원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이라는 게 사실, 보유자가 되거나 전수교육 조교 정도가 되면 전수교육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유자에게 약 150만원, 조교에게 약 50만원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전승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겨우 사무실 운영비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요. 특히, 제주도 심방들은 글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심방을 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자기 이름 겨우 쓰는 정도여서 곳을 하러 가면 그 집안의 나이나 주소 같은 것을 대신 읽어줘야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정도가 되면 아예 거기에 전념활동을 할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된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심방이 되는데 10여년 정도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예를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게 너무 힘드니깐 심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하기 마련이죠. 그 이유가 바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곳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힘들었거든요.

곳에서 나타나는 춤동작 중에 무용과 접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춤 쪽에는 문외한이라서 무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곳을 배울 때의 교수방식이 ‘이거는 어떤 춤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어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해라’는 식이니 더더욱 그렇죠. 소리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곳의 경우 2, 30년 후 전승보존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이것이 또 돈과 결부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심방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의 직업부터 조사하는데 그게 제일 난망한 일입니다. 저희 집이야 이제는 뽀뽀하게 밝힐 정도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곳을 하려면 보름이 넘을 정도로 오래동안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고정적인 동작의 틀 같은 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주로 절하는 동작이나 문 열리는 동작처럼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춤은 왜 이렇게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얘기가죠. 그래서 문무병 박사님이 제주도굿춤이라는 책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명칭은 처음 선생님이 배우실 때부터 이미 붙어있던 것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붙인 이름들입니다. 제가 처음 춤을 배울 때 있던 명칭은 지금 기억으로 수록춤이라는 것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산회상 때 긴 도포 같은 것을 입고 바라를 들고 춤추는 것이 수록춤입니다.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는 셈이네요?

고전무용을 배우듯이 발은 이렇게 디더라 손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없이 무조건 따라 해라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후배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때 ‘봉산탈춤에 의사위추듯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죠.

무용전공자들 수련을 해서 용어 정의에 대한 공부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용전공한 사람이 춤만 배워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무슨 사실을 하고 어떤 신한테 무엇을 하고 그래서 이 춤은 그 때 추는 거다’ 이러한 것을 모두 이해하려면 결국 그 사람도 거의 심방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심방이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굿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춤이나 사실 몇 개를 따 와가지고 마당놀이에 대입하고 하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방이 된 겁니다. 심방이 되려고 하면 한 두 가지 배운 게 아닙니다. 춤은 물론이고 소리에다 악기, 그리고 굿의 순서까지 익히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솔직히 소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집집마다 굿하는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애드립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10년이란 세월도 턱없이 없다고 봐야할 겁니다. 제가 입문한지 벌써 2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칠머리당영등굿을 놓고 문무병선생님께서서는 바람축제라고 말씀하시던데 선생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옛날 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나아가 요즘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축소화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축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하는 쪽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제주도 문화예술의 기반이 아주 빈약한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이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지원의 대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때는 그러한 것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원칙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는게 만만하게 다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 예산 전액을 가져다 부어도 안 됩니다. 집중과 균형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 것과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만 하더라도 그냥 말썽 없이 골고루 나눠 줘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인적자원이나 인식의 토대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술이나 음악에 비해 무용분야가 열악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무용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춤을 하려면 중,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고 대학에도 관련학과가 없다보니 무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육지로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돌아와도 활동할 바탕이 없으니까요. 제주도립무용단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출난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 무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이 어디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솔직히 2000년도 초반, 제주도 민예총에 무용분과를 만들려고 노력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장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연극은 무용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극단도 10개 이상 되니까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 년에 작품 하나도 못 올리는 극단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공연 횟수만 보더라도 한라산 놀이패 한 극단이 하는 수만도 못합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대학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신 개인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대학에 유사한 학과라도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주 대학에 문화일류학과를 만든다고 했다가 교수들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한 손가락에 배불릴 생각 말고 무용이든 굿이든 민속학이나 문화일류학과 같은 통합적인 사고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의 신설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의 농고나 상고같은 학교들이 이제는 관광고나 예술산업고 같은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나온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고급실업자만 양성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놀이패 한라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적 욕구보다는 사실 시대상황적 욕구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으로 남아있고 단원들의 단결수준도 어떤 예술단체보다 강한 편이지요. 물론 20년이 넘다보니까 예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연마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시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규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대학에

관련학과를 신설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학교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립무용단이 유일한 무용단체인데 그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역할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제주곳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안무가들이 제주도만의 특성 있는 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든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지요. 가끔씩 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는 하지만 1, 2주의 단발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면 흥내도 못내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것이지요.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외지인이 물어볼 때는 저라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무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없습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결과물에 답을 하거나 보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찾아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진실 된 응원군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자성과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셔야 할 겁니다.

심방들이 입는 옷이 관복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입

니까?

언젠가 심방들이 입는 복식에 대해 원고지 5-6매 정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저럴 때는 저런 옷을 입는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무조신이 초공본풀이라고 하는 본풀이에 나오는데 거의 뭐 젓부기삼형제가 과거 급제를 해서 옷을 받는데 아마도 관복이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배가 튀어 오르면 뱃부기, 가난해서 글 쓸 종이가 없으니깐 제를 편편하게 눌러놓고 거기에다 글씨를 쓰면서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젓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사자의 복장, 애를 낳게 해주는 선신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옷에 대해서 자세히 구전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제작된 탐라순력도를 보면 궁중의 형식을 따른 연희장면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사회상은 어땠습니까?

제주도라고 다른 데하고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당시 탐라순력도의 주인공인 이형상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교조적인 유교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심방들은 농사를 안 짓는거야. 게다가 음사라고 해서 굿을 아주 음탕한 제사로 여기고 당오백 절오백을 불사르고 말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탐라순력도를 탐라착취도라고 말합니다. 이 행사 때면 보통 고정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500명 정도면 한 마을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군막을 치더라도 목사나 고위관료들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적출해가지고 귀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말이 500명이지만 거기에 따라 붙는 인원까지 치면 아마도 동원 인원이 천 여 명에 이를 겁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해봐요. 소 잡고 돼지잡고 그런 거는 다 현지 공급이었으니 그 동네는 거덜이 날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설화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관기들이 뛰어난 기예능을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여기서는 주경야기(晝耕夜妓)입니다.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기생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제주도에서 7-80 먹은 여자분들은 거의가 다 담배를 씹니다. 주경야기했던 유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력 당시 동원되어 춤을 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굿과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17-8세기 말에 제주도하고 육지와의 문화예술 교류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춘굿놀이에도 보면 제주도 탈이 아닌 육지 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송당에 가면 광산김씨 집안에 내려오는 본풀이가 있는데 광대 조상 본풀이라고 해서 광산김씨 조상이 서울로 가서 동지 벼슬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연히 광대들 노는 것을 재미있게 보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당에 데려가 공연을 시켰는데 막상 제주도에서는 재미가 없었던지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집안의 머슴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들이 몇 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떠나면서 그 집안 처마에다가 함박꽃하고 삼색물색이라고 해서 빨강, 파랑, 노랑천을 처마에다가 찢어놓고 가버립니다.. 그 일이 있던 후부터 광산김씨 집안에 줄불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 광대들을 박접한 죄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풀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옵니다. 줄 잘 타는 누구, 춤 잘 추는 누구, 소리 잘하는 누구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춤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감제에는 군문 열리는 춤밖에는 별다른 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많은 것은 요왕맞이인데 왜냐하면 저승길을 치고 댕고, 바닷길을 치고 댕는 노동의 것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씨드립 다음에 마을도액막음입니까 아니면 마을도액막음 다음에 씨드립입니까?

굿이라는게 이 절차가 제일 먼저다 저 절차가 제일 나중에다 하는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요. 애를 못 낳는 집이다 하면 불도맛이를 먼저 합니다. 물론 초감제를 맨 처음에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칠머리당영등굿 7가지 과정 중에서 춤 적인 요소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본향뚝입니다. 본향뚝의 본향신들은 대부분 장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완장처럼 동채거리라고 해가지고 엑스자로 두르고 입장을 합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들어 오냐면 장군이기 때문에 (물론 장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삼천병마를 거느리고 일만 개의 깃발을 나부끼는데 그 광경을 두고 ‘작은 자갈이 큰 자갈을 이뤄서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주지방의 굿과 다른 지방의 굿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굿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기본은 심방이 이어주고 죽은 사람들을 편히 해줌으로써 산 사람이 편해진다 하는 겁니다. 동네마다 중요시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정도의 차이지요. 그런데 육지 굿의 경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집안 조상신도 아닌데, 가령 최영장군이나 관운장 같은 굿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굿은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들만을 청하고 모십니다. 예를 들면 일월맞

이라는게 있는데 일월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직책, 직업을 가졌던 조상들이 일월조상입니다. 옛날에 사냥을 잘하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은 산신을 꼭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애가 없어 손이 귀하다 하면 삼신, 불도맛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대학교를 시험을 보게 됐다하면 책불이라고 해서 글에 능통했던 조상을 모시는 식입니다.

원초적으로 일상과 밀접한 신들만을 모시는 거네요?

책불이라는 건 제주도에만 있는 것으로 책과 가까웠거나 침을 놓았던 의원과 같이 공부를 했던 조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조상들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런 조상들은 오십시오 하고 초감제 때 청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진 신들을 모십니다. 구체적으로 본향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니까 아주 융성희 대접을 합니다. 이것을 잘 못했을 때 피부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거나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주 춤이라고 하면 굿춤이 우선이지만 그 것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녀춤 또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통춤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녀춤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송근우라는 양반이 처음 정립을 한 것인데 그 양반은 그래도 자기 철학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류들이 지금에 와서 점점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행정, 교육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용의 경우도 가서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화제가 탐라문화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입춘
곳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탐라문화제는 예산이 20억인데 입춘곳은 2박 3
일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때는 입춘곳보존회를
임의단체라 해서 행정적 지원이 끊길 뻔 했습니다. 겨우 민예총에서 맡기로 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무엇이나면 이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행사의 지
원금은 받지를 못합니다.

제주도 곳으로 칠머리당영등굿 이외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자기 집에서 하는 곳은 한 7-8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심방집에서 하는 곳, 아
까 신굿이라고 하는 것은 14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칠머
리당영등굿은 제주도 곳의 10만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큰 곳, 작은 곳, 앓은 곳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당굿 칠머리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주도에 당이 한 500개쯤 있고 지금도 굿을 하는 데가 약
300개쯤 있는데 칠머리당영등굿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많은 곳중에 굳이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칠머리당영등굿이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이유는 도시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농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승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지도교수이셨던 현용준선생이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에는 기반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제주대학 내에 국문과도 없었고 국어교육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이러한 연구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까운 선배가 우리의 두목 노릇을 하신 문무병 선생입니다.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그 분을 통해 나중에는 채희완선생까지 참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수놓음이라는 극단을 만들었는데 그 극단을 만들고 나서 채희완선생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지요. 이후에 이외에도 김지하, 김영동, 황석영, 김민기, 임진택 등등 소위 탄따라하고 하는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는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작굿으로 만드신 작품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고 몇 작품 있기는 한데 아직은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지금도 몇 작품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지요. 특히 굿 과정에 나오는 사설은 국문학적으로 꼭 정리하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 록 2

질적연구를 위한 예비 설문문항

I.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1.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행사와 그렇지 못한 문화행사는 각각 무엇이 있으며, 그 차이가 생겨난 이유를 서술해주시시오.
3.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은 각 장르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4. 현재 서로 융화되고 있거나 앞으로 융화될 수 있는 문화예술장르로는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주시시오.
5.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주문화예술에 대해 연구 및 검토해 볼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서술해주시시오.
6. 제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측면에 대해 각각 서술해주시시오.
 - 교육적 측면
 - 정책적 측면
 - 행정적 측면

II. 제주민속무용에 대한 인식

1. 제주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민속무용은 어떤 종목입니까? 또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민속무용은 어떤 종목입니까?
2. 1번 문항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종목과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인지 서술해주시고, 연관성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주시시오.
3.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래의 종목에 대해 각각 서술해주시시오.
 - 탐라순력도
 - 해녀춤
 - 칠머리영등굿
4. 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외에 개발 가능한 민속무용이 있다면 어떤 민속무용이 있는지 서술해주시시오.
5. 제주민속무용이 다른 것과는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어떠한 점들을 들 수 있습니까?
6. 제주민속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감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서술해주시시오.

7. 제주민속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측면에 대해 각각 서술해주시시오.
- 교육적 측면
 - 정책적 측면
 - 행정적 측면

Ⅲ. 제주도립예술단에 대한 인식

1. 제주도립예술단이 지니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제주도립예술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현재적 위상은 어떠합니까?
 3. 제주도립예술단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타 지역의 무용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두드러지는 장, 단점은 무엇입니까?
 5. 제주도립예술단이 개발, 전승시킬 수 있는 춤의 종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이유를 서술해주시시오.
 6. 제주도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여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측면에 대해 각각 서술해주시시오.
- 교육적 측면
 - 정책적 측면
 - 행정적 측면

부 록 3

제주 문화예술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기꺼이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제주 문화예술의 현황과 문제점 극복에 대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의 평소 생각에 비추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빠지면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사항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0. 6.

대학교 대학원

전공

(연락처:)

I.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세 이상~30세 미만 ③ 30세 이상~40세 미만
④ 40세 이상~50세 미만 ⑤ 50세 이상

3. 제주도를 방문하신 목적은 ?
①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 ② 제주도 거주
(제주도민이면서 여행이 목적이면 ②번에 체크해주시요.)

II.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 1-1. (☞ 위 3번에서 ①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 제주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타 지역의 의식, 축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
 - ② 방문지의 사회에 섞여 그곳의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해보고자 하는 탐험적 동기
 - ③ 즐거운 분위기나 집단적 흥분감, 일체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
 - ④ 행사의 예술적인 내용을 즐기고자 하는 예술 향수의 동기
 - ⑤ 직접 참여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동기

1-2. (☞ 위 3번에서 ②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 제주 문화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된 효과가 있다면?

- ① 관광시즌을 연장하고 관광지를 확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② 제주도 고유의 문화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활용
- ③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지역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 기대
- ④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 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창조

2. 귀하가 알고 있는 제주도 민속무용 작품, 무용수, 무용 단체가 있습니까?

- ① 그러한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 ② 없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3. 탐라에 부임한 지방관이 제주를 동→남→서→북으로 순회한 뒤, 거행했던 행사 장면을 화공 김남길의 손을 빌려 화첩으로 옮겨놓은 『탐라순력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처음 들어본다
- ② 모른다
- ③ 약간 안다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4. 제주에서는 음력 2월을 서북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오시는 달’, 즉 영등달이라 하여 영등바람을 맞이하여 마을의 신당에서 굿을 벌이는데 이러한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처음 들어본다
- ② 모른다
- ③ 약간 안다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5. 제주해녀들이 거칠고 힘든 바닷 일을 하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 양태에서의 놀이적인 형상에서 유래되어 예술로써 조형적으로 동작화된 『해녀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처음 들어본다
- ② 모른다
- ③ 약간 안다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제주도의 민속 무용이 다른 장르의 무용들(발레, 재즈, 한국무용 등)과 내포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7. 제주도 민속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혹은 관람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 ①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 ②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문화적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
- ⑤ 관심이 없어서

Ⅲ. 제주도립무용단에 대한 인식

1.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 자원화 하여 제주민속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창단된 제주도 도립예술단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처음 들어본다
- ② 모른다
- ③ 조금 안다
-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제주도립예술단이 제주도 고유의 전통 예술을 발굴하고 자원화하여 제주도를 대표하는 무용단이 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다른 무용 공연과의 차별성 부재
- ② '제주도'적인 소재 발굴을 통한 작품 개발의 미흡
- ③ 전문 인력과 재정 부족
- ④ 관심과 지원 및 홍보 부족
- ⑤ 열악한 공연시설

3.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한국무용의 공연 횟수가 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립예술단에 의한 한정된 공연
- ② 대중의 관심 부족
- ③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행사의 일시적 효과
- ④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부족
- ⑤ 작품 기획 등 시스템상의 미흡성

IV. 제주 민속 무용의 보존 방안

1. 제주도 민속 무용의 원형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능 보유자에 의해
- ②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 ③ 행정상의 규제에 의해
- ④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 ⑤ 기타 ()

2.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 제주도 민속무용의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수자의 부족
- ② 전수체계의 미비
- ③ 제도상의 문제
- ④ 원형자료의 미비
- ⑤ 대중의 관심 및 인식의 부족

4. 『탐라순력도』는 도첩의 형태로 박물관에만 있을뿐 무용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공연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승, 보존의 형태로 원형 그대로를 지키며 답습
- ② 계승, 발전의 형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5. 『탐라순력도』를 복원하여 무용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통무용에 대한 교육
- ② 전통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재구성
- ③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정립
- ④ 작품기획 등 시스템의 점검
- ⑤ 재정적인 지원

V. 제주 민속 무용의 계승·발전 및 대중화 방안

1. 귀하는 제주 민속무용의 계승, 발전을 통한 대중화 노력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로서 고유의 재산이 될 수 있다.
- ② 문화산업의 하나로써 상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정서와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여가문화 창달로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지역과 국제간 문화교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제주 민속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강화
- ② 공연시설 등 편의시설의 확충
- ③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등의 개발
- ④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
- ⑤ 축제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3. 현재 제주 민속무용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지나친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만을 고려
- ②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의 미비
- ③ 안내 및 해설 체계의 미흡
- ④ 행사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및 차별성의 부재
- ⑤ 정책적 지원 미흡

4. 『칠머리 당굿』이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인의 참여 기회 확대
- ②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이용한 새로운 매력의 창출
- ③ 다양한 관광상품과의 연계성 추진
- ④ 전문연구요원의 확보
- ⑤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

5. 『해녀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 무용으로 정착되기 위한 대중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형화된 해녀춤의 정립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의 도입
- 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 ③ 해녀 박물관과 해녀문화축제의 적극적인 홍보
- ④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아쿠아로빅 댄스 형태로의 보급화
- ⑤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

6.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어떤 경로로 통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 ① 사람들의 입소문
- ② 길거리의 광고나 포스터
- ③ TV나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
- ④ 인터넷
- ⑤ 기타

7. 제주 민속무용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가 활성화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의향이 전혀없다
-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아직은 생각 없다
- ④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⑤ 참여할 의향이 매우 있다

*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 록 4

제주지역 문화예술 공연 일람(1999-2006)

1999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1.1	성산일출제 해맞이 공연	성산읍 일출봉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2.4	탐라굿, 입춘굿 놀이재현	관덕정 광장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2.28	'99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덕천옥장 내 현장무대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3.6-13	제주 허니문 어게인페스티벌	해변공연장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3.30	시와 음악과 무용의 만남	문예회관 소공연장	김희숙외 3인 출연	한국창작
4.6	왕벚꽃 잔치	제주종합경기장내 광장	축하공연 제주도립 예술단	종합
4.11	제1회 해설이 있는 일요발레	문예회관 대극장	지젤 파키타, 빠 드 까뜨르 中에서	발레
4.21	제주도립예술단	국제공항	큰산 너른 바다 공연	종합
4.23	찾아가는 예술단	대정고등학교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5.4	중문 칠선녀 축제행사	중문천제연폭포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7.18	예지무용단	문예회관 대공연장	토끼이야기, 이어도 환타지, 어울림	한국창작
7.30	탐라 그 민속무전	문예회관 대공연장	일이어, 놀이어, 춤이어	한국창작
8.9-15	박경숙 전통무용 연구원	천자연폭포 야외공연장	남국의 푸른바다	한국전통
9.15	제 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예향운동장	제주도립예술단	종합
9.16	제38회 한라문화제-민속무용의 향연	예향운동장	제주도립예술단	
9.29	한양무용단	문예회관 대공연장	발레, 현대, 한국무용의 만남	종합
10.3	서귀포 칠십리축제	천자연폭포 주차장	제주도립예술단	한국전통
10.4	강원국제관광박람회	박람회장 주공연장	제주도립예술단 큰산 너른 바다	한국창작

10.21	제주춤 아카데미-해조음	문예회관	전국무용제 제주도 대표작	한국창작
11.10	돈키호테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국립발레단 순회공연	발레
11.20	제 24회 삼성효행상 시상식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예술단 축하공연	한국전통
11.26	바다침묵, 탐라의 맥박	문예회관 소극장	김희숙 출연	한국창작
12.27	4.3특별법 제정기 제주도민 한마당	신산공원		종합
12.28	문화예술인 대화합축제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예술단	종합

2000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연명	장소	내용	부문
3.22	놀이무용단 공연	서귀포 학생문화원		한국무용
4.28	제주도립 무용단 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5.26	제주도립, 대구시립무용단 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5.28	천진블어린이 무용단 공연	제주 민속관광타운		종합
5.28	제주어명무용단 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7.2	제주발레 스텝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발레
7.20-8.30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 탐동해변 공연장		종합
7.28-29	예지무용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7.29-8.19	현대무용단 주-a 공연(여름문화축제)	제주 조각공원	매주 주말	현대무용
7.31	청소년 해변무용축제	해변공연장(탐동)		종합
8.28-29	예지무용단 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탐동해변공연장(춤-오름)		한국무용
9.11-12	‘바다의 울림’ 공연	서귀포 천지연 폭포일대		종합
10.16	이연심의 움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0.18	동방기무단 초청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중국민속
11.4	한양무용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11.7	한양무용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11.18	김희숙의 춤	홀리데이인 크라운 프라자 호텔		한국무용
12.22	제주도립무용단 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12.26	살롬 선교발레단(안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12.27	제주 창작 무용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2001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3.1	(사)제주민속관광공연	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	<탐라의 찬가>	한국무용
3.15	예시무용단 제주춤작가 <춤, 오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3.18	일본 분리쿠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외국무용
5.15	제주의 몸짓 2001 춤,춤,춤	제주문예회관	제주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안무-김정학/후원-제주문예진흥원	한국무용
5.19-6.17	제주 섬문화 축제	오리별, 한라공연장	국립후양기무용단(하롱베이), 마오리공 연단(뉴질랜드), 제주도립예술단 등	종합
5.31	제주 전통 어명무용단 제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7.2	제주발레스텝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7.16	미산어린이발레단 공연	제주해변공연장	<흑조>, <젠지노의 꽃 축제> 등	발레
7.31	제2회 전국청소년 해변무용축제	탐동 해변공연	제주동여중, 서울덕원예고, 전주 예고 등	종합
8.7	제주도립예술단 공연	가파도 가파초교 운동장	<삼다꽃춤>	한국무용
8.8	해설이있는발레-조윤라 발레공연	제주 신라호텔	<빠 드 까트르>, <지나간 기억 의 그림자>등	발레
8.15-18	전미레 재즈댄스무용단 공연	신제주 탐동 아외공연장		재즈댄스
9.23	한 중 합동무용공연	서귀포 천지연 특설무대	주최- 한국무용협회	외국무용
10.9	한라문화제-젊은 안무기들의 무용제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11.23-25	서울발레시어터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느영나영>안무-제임스전	발레
11.30	제주도립예술단 제2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2001연괴 혼>안무-김정학	한국무용
12.2	제주창작무용제	제주민속관광타운		종합

12.16	박재근 서울발레단-해성이 있는발레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빌푸르기의 밤>등	발레
12.22	춤여정 40년 이년십의 춤	서귀포 학생문화원	<섬에서 부르는 소리춤>등	한국무용

2002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11.7-9	도립예술단 특별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공무원을 위한 공연	한국무용
1.14	유후인 겐다이코 제주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종합
4.25-26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섬 연가>안무-김정학	한국무용
5.12	제9회 천진불 어린이 무용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5.19	월드컵성공기원 무용축하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민속무용단 코퍼안빌레사이어	종합
5.20	한민족예술의 밤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6.1	제주민속무용단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	2002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축하공연	한국무용
6.7	출디숨무용단 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7.27	소외지역공연	제주도 가파도	주최-한국무용협회 제주지부	전통무용
7.29	도립예술단 특별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8.3	소외지역공연	제주도 우도초등학교 강당	<부채춤>등	전통무용
8.9-10	비비리의 꿈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한구굿용
8.21	제3회 청소년 해변무용제	제주시내 탑동 해변공연장		종합
8.25	일이어 노래여 춤이어	제주도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		종합
9.8	제28회 명무면인전 초청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춘앵전><번뇌>등	전통무용
9.20	2002 추석맞이 제주민속공연	제주도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		전통무용

11.13	고3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
11.28-29	도립예술단 제25회 정기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붉은영혼>	한국무용
12.26	제주창작 무용제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이지은<나는 떠나고 있다>	한국무용

2003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2.6	제주도립예술단 특별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부채춤> <장고춤>외	창작무용
3.12	스탐무용단 발레 페스티벌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3.26	제5회 제주전통어머무용단 정기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전통무용
5.18	천.가.연 댄스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현대무용
7.23	제주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세계로향한 바람의 나라>	창작무용
9.28	제주어머무용단 발표회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전통무용
10.5	김복희 무용단 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현대무용
10.21	네덜란드 청소년 인트로 댄스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현대무용
11.30	제주도립예술단 제27회 장기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돌의 무늬>	창작무용
12.7	예술공장 두레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귀향>	창작무용

2004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연명	장소	내용	부문
1.17	흔비무용단 창단기념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바람춤, 한량무, 장고춤, 혼, 바다·새, 자유	창작무용
1.30-31	2004정원대보름 들불 축제	제주북군 예월읍 새별오름 특설무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2.22	정미영 창작발레 페스티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숲으로, 멜로디, 캣츠, 봄을 기다리며, 화려한 외출 등	발레
3.17	찾아가는 제주도립예술단	서귀포시 삼정여자고등학교		전통무용
3.28	UNEP 특별집행이사회 초청공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4.11	발레 하우스 무용발표회	한리아트홀 대극장		발레
4.29	찾아가는 예술단 한림읍 민속오일장	제주특설무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5.4-7	월드클럽 챔피언십공연	나인브릿지 골프장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5.7-9	발레 뮤지컬 '인어공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5.8	제3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초청공연	한라체육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5.14	제10회 서귀포 칠선녀 축제공연	천제연폭포 야외무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5.16	ADB 연차총회 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5.28	세계로 향한 우리춤Ⅲ-한국 그 춤의 향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예술단 제28회 정기공연	창작무용
6.13	제11회 천진불어린이무용단	제주민속관광터온	장고춤, 검무, 부채춤, 동심, 원투쓰리포 등	종합
6.23	제주 2004 무용축제 '전통춤과 신무용의 만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강미선 기인무용단, 김문숙, 제주도립예술단	
7.3	여성주간 기념행사 식전공연	한리아트홀	출연-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7.11	반야소년 소녀무용단 제7회 정기공연	탐동 해변공연장	꽃과 나비, 하양무, 부채춤, 선녀무, 장수춤, 휘모리 등	전통무용
8.11	제6회 김희숙무용이카테미 발표회	한리아트홀 대극장	장고춤, 숨비소리, 무속, 성부풀이, 비바리(물허벅춤) 등	종합

8.20	찾아기는 예술단 남제주군 공연	남국여성회 야외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8.21	찾아기는 '수월노을축제'	제주북군 한경면 고산 특설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8.21	제5회 전국해변 무용축제	탐동 해변공연장	주최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시회	종합
8.26	제34회 한국의 명인무전	한리아트홀 대극장	안시향-준영전, 한영자-남도곳거리, 임영화-가야금산조, 김지원-살풀이춤 등	
8.30	꿈나무들의 발레 페스티벌	문예회관대극장	주최 발레스텝	발레
9.11	제11회 아시아태평양 류머티스 학술대회 초청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9.16	서귀포 칠십리 축제	천지연 광장 상설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9.17	중국 사천성 가무단 초청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주최 제주도문화진흥원	기타
9.18	제주 마 축제 초청공연	제주경마공원 특설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9.20	전국체전 선화예비채화	한리산 백록담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9.21	전국평생학습 축제초청공연	해변공연장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0.3	제43회 탐라문화제 무용제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주최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종합
10.3	자미수현현대무용단 마을춤 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전복임실의-회다지춤, 정읍의-단속굿춤, 고창의-모양성답성 놀이춤 등	전통무용
10.14	찾아기는 예술단 '제주교도소 공연'	제주교도소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0.20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초청공연	한라체육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0.26	제8차 세계 한민족 상공인대회 초청공연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1.2	ICEIMS2004국제 학술대회 초청공연	라나다호텔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1.11-13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문화행사	BEXCO특설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1.24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 대회 축하공연	신라호텔 한라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1.25-27	김문숙 지역순회공연	제주도여성회관	가사호접	창작무용
11.26-27	2004 신나는 예술여행	남제주여성문화회관	주최(사)한국무용협회	전통무용

	전국순회공연	김정문화회관		
12.3	2004 전국학교도서관대회 식후공연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2.8	2004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축하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12.17	2004 크리스마스살롱선교단 발레공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12.30-31	러시아극립키예프발레단 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 라홀	백조의 호수	발레
12.31	2005 성산일출제 초청공연	일출봉 야외무대	출연 제주도립무용단	창작무용

2005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1.24-27	200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연찬회 초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28	세계평화의 섬 지정 축하공연	그랜드호텔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2.9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설명회공연	사인빌리조트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2.18	2005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개막공연	북제주군 애월 새별오름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4.5	한국 푸르덴셜 보험사 기업연주 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4.19	봄맞이 축제	김정문화회관	재즈댄스, 풍물경연 외	종합
4.30	도민체육대회 개막축하공연	북군종합운동장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5.1	2005 제주예술인축제	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	무용 및 기타 공연	종합
5.3-6	월드컵 챔피언쉽 골프대회 초청공연(개, 폐막식)	나인브릿지 골프장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5.7	제주시 어버이날 행사 초청공연	한라 체육관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5.11	제주발레스텝 무용단 11회 정기공연	한라아트홀	<파키타><에스메랄다><마을 처녀><과랑새><열정>외	발레
5.12-17	섬 주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무용공연 '재미있다! 우리춤'	주최 손인영 NOW 육관	무용단	
5.21	토요예술한마당 '신명으로의 초대'	제주목관아 연희 각 앞마당	출연 풍물굿패 신나락, 놀무용단 외	전통무용
5.21	제4회 서귀포종합 예술제	서귀포 천지연 야외공연장	노들실버 무용단<부채춤>, 황운성<살풀이>외	종합
5.30-6.3	아시아 태평양 주니어골프 선수권대회 초청공연 (개, 폐막식)	오라퀀트리클럽, 그랜드호텔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6.1	APEC통상관회의 축하공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6.10	제주평화포럼 축하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7.2	2005 예술인 향연	제주민속 관광타운 탐라극장	출연 탐라예술단, 제주 민속예술단, 오름무용단 외	종합

7.2	제주헤라스밸리단 회원 발표회	제주도 탐동 해변 공연장	퓨전밸리 및 한국 가디그밸리 축 하공연 외	기타
7.5	제8회 국제청소년 연합회(IYF)세계대회 초청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7.6	대한전자공학회 주최 ITC-CSCC 2005초청공연	신라호텔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7.8	제5회 제주국제생활 체육 태권도 대회식후 공연	제주도 탐동해변 공연장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7.19	제5회 서귀포 여름무용축제	서귀포 천지연 야외공연 장	주최(사)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 회	전통무용
7.20	창작무용<유자꽃피는마을>	서귀포 천지연 야외공연 장	1막-나원을 꿈꾸다, 2막-유자꽃 피는마을	창작무용
7.20-8.9	2005 한여름밤의 애변축제	제주도 탐동 해변 공연 장	뿔미루무용단, 숨비무용단, 제주 민속무용단 등	종합
7.25-26	제주도립예술단 제30회 정기공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오름의 바람-평화>	창작무용
7.30-8.27	일출봉의 흥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야외무대	출연 오름민속무용단, 칠십리예술 단, 헤라스밸리댄스 외	종합
8.4-5	찾아가는 제주도립 예술단	제주도 감녕해수욕장, 협 재해수욕장	<해너춤><바람춤><바람춤> <바람춤>	창작무용
8.21	제6회 전국청소년 해변무용축제	제주도 탐동 해변 공연	주최 (사)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 회	종합
8.27	제주도 용연야밤축제	용연 구름다리 일대	출연 제주탐라예술단의외	종합
8.30	한국석유화학회의 초청공연	롯데호텔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9.5-13	제14회 전국무용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주최 (사)한국무용협회	종합
9.3	국제 구강 임플란트 학회 하갈대회 초청공연	롯데호텔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9.6	아시아 태평양 측정학 협력기구 국제 심포지엄 초청공연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9.7	제6회 제주전통어명무용단 '탐라의 초상, 어머니의 이름으로...'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	<부채춤><살풀이><장고춤> 외	전통무용
9.9	제8회 이중섭예술제	제주 서귀포 이중섭미술 관 야외무대	김복희 안무 <달과 까마귀>	현대무용
9.16	제주민속공연	제주해변공연장	김희숙무용단 제주춤 모음 외	전통무용
9.21	청소년 문화예술한마당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민속놀이, 라틴댄스 외	종합
9.28	제11회 서귀포 칠십리 축제	서귀포 칠십리 야외공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개막축하공연	장		
10.1-5	제 44회 탐라문화제	신산공원 특별무대	개막공연 및 무형문화재 축제, 무용제(화관무, 입춤, 살풀이 외)	종합
10.3	홍신자웃는돌 무용단 공연	한리아트홀	<순례>	현대무용
10.5	제44회 탐라문화제무용제 '제주 무자개의 큰과 부산 새대 테 발래의 만남 2005 한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주최(사)한국무용협회제주도지회	종합
10.14	우정의해-한일민속예술교류공연 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회의 창립총회 문화행사	제주도 문예회관	1부-일본 오키나와현 하에비루정 공연단, 2부-제주도립예술단공연	기타
10.22	유람선 암스테르담호 초청공연	신라호텔 한라홀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0.24	유람선 암스테르담호 초청공연	유람선내 극장무대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1.3	홍신자 '웃는돌 무용단 공연	한리아트홀 대극장	<순례>	현대무용
11.16	200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하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1.24	제주도립예술단 제31회 정기공연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비념 2005>	창작무용
11.26	영맥II-박경숙의 춤세계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탐 라홀	<미나리> <승무> <진쇠춤> <자화무> <남천무>외	전통무용
12.11	시물놀이 하리아트 '신명, 타악의울림	한리아트홀 대극장	<복춤> <소고춤> <입춤>외	전통무용
12.15	제13회 춘사영화제 개막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2.15-22	찾아가는 제주도립예술단 '춤으로의 여행-한국 그리고 제주	제주여중, 제주영지학교, 대정여고, 도남초교	<참꽃의속삭임> <해녀춤> <대 바지춤> <학춤> <검은꽃춤>외	창작무용
12.23	평화양로원 위문공연	평화양로원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12.31	제 13회 성산일출제 초청공연	성산일출봉 야외무대	출연 제주도립예술단	창작무용

2006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 연 명	장 소	내 용	부 문
1.21	'한일 우정의 해2005'기념 오키나와예술단·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비념2005>외	창작무용
2.3	찾아기는 도립예술단 공연	남제주군체육관		전통무용
2.4	세계결식아동을 위한 살림선교단 발레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발레
2.10-11	도립예술단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개막축하공연	북제주군 새별오름 특 설무대		전통무용
2.23	이지연 발레단 발표회	한라아트홀 대극장	<해적>, <파키타>외	발레
4.22	2006 제주방문의 해 150만명 돌파 축하 한마당 제주도립예술단 공연	서귀포 중문 제주컨벤 션센터(IOC) 탐라홀		창작무용
4.23	open mind제주 스트리트댄스 합합공연	제주도문예회관소극장	주최 스트리트댄스 연합회	기타
4.24	일본 민요집단 '허부샤' 공연	한라아트홀 대극장	일본 민속무용	기타
5.9-6.17	2006 찾아기는 문화활동사업 '우리춤, 멋과 흥으로의 초대'	조천체육관,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회관무><소고춤><입춤><도살 풀이><부채춤>외	전통무용
6.10	발레하우스 정기공연	한라아트홀 대극장	주최 발레하우스	발레
6.30-7.2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구 찾아기는 문화활동 '산남에 부는 춤향기'공연	삼매봉, 송악산과 문부 공원 복식관 등	주최 한국무용 협회	창작무용
7.8-15	2006 찾아기는 문화활동 '우리춤과 멋의 어울림'공연	성산일출봉 야외무대, 애월상고 체육관 등	숨비무용단, 제주오름민속무용단, 제주민속예술단 등	종합
7.9	한인회 무용단 제1회 정기공연	탐동 해변공연장	<회관무><들춤><부채춤><허튼 춤><물동이>외	전통무용
7.19	김정희 제주춤연구회 '사랑과 평화의 춤'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은광연세>	창작무용
7.28	제주도립예술단 제32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해류>	창작무용
8.3-4	'평화의 춤은 파도를 타고'공연	제주시 해변공연장	주최 오름무용단, 숨비무용단등	종합
8.5	조승미발레단 발레콘서트	제주시 해변공연장	주최 조승미발레단	발레
8.10-11	강희선 조선무용연구소 무용단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독립의 꽃 유관순>	창작무용

	'날새'초청공연			
8.12	제주 재즈댄스 페스티벌	천지연칠십리 공연장		기타
8.25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창작춤과 우리춤의 향연'공연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가디립의 변주II>외	창작무용
8.28	김은희무용단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섬..여인>외	창작무용
8.28	류무용단, 댄스인제주무용단 합동공연	제주시탐동해변공연장	<숨비바다>, <탐라꽃춤>,<춤주는섬>, <페스티벌>외	창작무용
9.9	제주용연아범 재현 축제 제주춤 연구소 김정희공연	제주시 용연계곡	<다시찾아온 평화>	창작무용
10.13-18	제45회 탐라문화제	신산공원특설무대	출연 서울시 무용단 제주도립예술단 외	종합
11.18	일본 민간예능단체 기타쿠니 공연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	<츠키루 무용>	기타
11.18	무용단 '댄스인제주창단공연' '춤으로 보는 가을풍경'	한라아트홀 대극장	<드마&그랑>,<발레리나의꿈>,<가을소나타>,<별빛요청> 등	종합
11.25-26	제주도립예술단 제33회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풍몽-바람의 꿈>	창작무용
12.13-15	백현순&대두무용단 '찾아기는 문화-한국춤순회공연'	한라아트홀소극장 토평 청소년문화회관 등	<영남검무>,<입춤>,<달구벌덧매기춤>, <복춤>	전통무용

2006년 제주 춤공연 일람				
일시	공연명	장소	내용	부문
1.21	OPEN MIND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 소극장		기타
3.7	제15회 발레스텝그랑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 대극장	양광발레재즈, 지젤, 백조의호수, 사랑의인사 등	발레
4.22	I LOVE SUNNY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 대극장	라틴댄스	기타
5.11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한리의 술바람	은상학교 아외무대	자청무와 한리의 북소리, 태평 무, 등	종합
5.12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홍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특설 무대	제주민속무용, 재즈댄스, 감천물 들이기 등	종합
5.19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홍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제주민속무용, 재즈댄스, 감천물 들이기 등	종합
5.26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홍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제주민속무용, 재즈댄스, 감천물 들이기 등	종합
6.2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더불어 사 는 춤의 세계	서귀포 여자중학교	태평무, 한량무, 해녀춤, 살풀이, 경기민요 등	종합
6.2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더불어 사 는 춤의 세계	추사적거지	태평무, 한량무, 해녀춤, 살풀이, 경기민요 등	종합
6.2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홍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제주민속무용, 재즈댄스	혼합
6.3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더불어 사 는 춤의 세계	천지연광장	태평무, 한량무, 해녀춤, 살풀이, 경기민요 등	종합
6.4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더불어 사 는 춤의 세계	정혜재활원	태평무, 한량무, 해녀춤, 살풀이, 경기민요 등	
6.9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홍과 멋의 향연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제주민속무용, 재즈댄스	종합
6.9	해녀민속예술공연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 공원내 박물관광장	해녀노래, 멸치후리는노래, 해녀 영원하라 등	종합
6.27	네팔주한대사관설립기념-네팔왕실국 립무용단 초청공연	한라병원	네팔전통무용	기타
7.1	제6회서귀포여름무용축제	서귀포천지연아외공연	꽃의요정, 프레스코 태평무, 환 희그리고사랑 등	종합
7.13	20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산지천예 술미당-무용협회	산지천분수광장	소고춤, 부채춤, 검무 등	전통
7.13-14	제주도립예술단 제34회 정기공연-세 계향한 제주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대극장	도립예술단-설문대할망	창작

7.14	2007상설프로그램산지천예술마당-1004 재즈댄스	산지천분수광장	스트리트댄스	기타
7.14	제주화산섬&용암동굴UNESCO등 재축하공연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제주민속무용, 현대무용, 재즈댄스	종합
7.16	2007찾아가는문화활동-우리춤과멋의어울림	제주학생문화원	화.검무, 소고춤, 회관무, 한량무, 무채춤, 장구춤 등	종합
7.28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일출봉의 흥과 멋의 어울림	성산일출봉특설무대	화.검무, 소고춤, 회관무, 한량무, 무채춤, 장구춤 등	종합
7.29-30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남의체출향기	천지연, 중상절리, 삼매봉	해녀춤, 타이타닉, 물허벅춤, 난타, 무예의바람	종합
8.3	2007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춤은 파도를타고	탐동해변공연장	재즈라인 컴퍼니, 제주시사회무용단 등	종합
8.4	2007한여름밤의해변축제-바다의 꽃	제주해변공연장	회관무, 입춤, 천학무, 꽃춤, 한량무, 도살풀이	종합
8.17	20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산지천예술마당- 제주춤이카데미&헤리스밸리	산지천분수광장	제주향기, 무친, 부채춤, 향, 윙밸리	종합
8.18	20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산지천예술마당	산지천분수광장	if, fell love, All nite, 살사댄스 등	기타
8.23	숨비민속무용단 정기공연	탐동대변공연장	한화무, 회관무, 꽃춤, 입춤, 물허벅, 한량무, 교방무 등	전통
8.24	20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산지천예술마당- 무용협회	산지천분수광장	소고춤, 부채춤, 검무 등	전통
8.25	20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산지천예술마당- 흥의예술단	산지천분수광장	기전, 시나위, 판굿, 해녀춤, 모듬북, 좌고 등	종합
8.27	제2회댄스인제주무용단 정기공연	탐동해변공연장	아이리이크쇼팽, 화랑무, 살풀이, 장고춤, 한량무 등	종합
8.31	2007찾아가는 문화활동-우리춤과 멋의 어울림	성산중학교 체육관	화.검무, 소고춤, 회관무, 한량무, 무채춤, 장구춤 등	종합
9.2	2007찾아가는문화활동-한라의솔바람	성산일출봉특설무대	지화무, 진쇠굿거리춤, 살풀이와 한라의복소리 등	종합
9.9	제1회 제주국악대공연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대극장	한화무, 회관무, 제주민요, 교방무, 진도북춤, 부채춤 등	종합
10.3	혼비무용단정기공연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대극장		전통
10.9	제46회탐라문화제-무형문화재축제 태평무	구좌읍해녀박물관	태평무, 한량무, 해녀춤, 살풀이, 경기민요, 숨비소리 등	종합
11.5	한국무용협회서귀포지부2007무대지원 공연작품-태동	김정문화회관	태동, 허튼살풀이춤, 숨비소리, 소고춤 등	창작
11.10	박경숙 춤세예-영매3	서귀포김정문화원	승무, 진쇠춤, 신칼대신무, 부토 주	종합
11.11	박경숙 춤세예-영매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승무, 진쇠춤, 신칼대신무, 부토 주	종합

		홍분부대극장	제주홍공연 등	
11.16	2007신나는예술여행 무용순회공연 제주공연	조천체육관	제주무용단, 제주민속무용단 이 건미, 박경숙 등	종합
11.16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출봉의 홍과 멧의 어울림	함덕중학교 체육관	화.김무, 소고춤, 회관무, 한량무, 무 채춤, 장구춤 등	종합
11.24	제주도립DPnfeks 제35회정기공연- 단(丹)장(粧)물과사람의노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 대극장	제주도립예술단	종합
12.01	댄스인제주무용단 수험생을 위한 공 연	신성여자고등학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제주민 속무용	종합
12.2	댄스인제주무용단 수험생을 위한 공 연	신성여자고등학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제주민 속무용	종합
12.16	이지연무용단-클래식과 창작발레의 만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 홍분부 대극장	지젤 돈키호테, 에스크-제주바 다의 눈물	발레

ABSTRACT

Realization of extinctive pending issue on Jeju Island's Dance
culture and research of development solution to overcome

Ch'ae, Hyöung-ji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In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ndition in Korean dance culture, the Jeju dance culture is surely more different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disparity than any areas. As there are recognition of cultural result through the interchange in centralism, however anachronism is last to overlook in the view of life circular function. And the result ascertains the contradiction in identity and poor vitalization of Jeju dance culture expresses concretely extinctive issue as the follows.

Firstly, despite the fact that Tamna sullyeokdo, which has the appreciation of art as a court dance, has a strong possibility of modern restoration and succession, it is limited to simple space experience or history knowledge to be instilled.

Secondly, Chilmuhridang-youngdeng-good which contains unique incantation and dance culture i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in UNESCO and the value highly appreciates either at home or abroad, but the widespread effort to public is extremely weak since only a few people who connect with the heritage passed down the dance and preserve it.

Thirdly, Haenyeo dance is a symbol of strong will for the divers who keep their lives with strong spirit even in persecution history and barren environment. However, its true value is being died out since the reality is limited only to their reenacting superficial fishing act through Haenyeo museum.

To overcome these realistic contradiction and seek for the future development solution of Jeju island culture and dance, following results was drawn by reviewing expert's opinion and conducting overall awareness survey on Jeju island residents and tourists using the expert's opinion result.

1. In the view of administration staffs, the cause of depression and lack of vitalizations of Jeju island culture was reason to be blamed on field performers and audience. Field performers and scholars claimed the fundamental reason to be lack of system by unprepared administration.
2. Public cognition on Jeju island's folk dance work, dancers, organization etc. was low that people's lack of attention and understanding were picked as the most typical reasons.
3. As for the tourists visiting Jeju island, their motivation to have interest in

Jeju cultural arts were appeared in order of direct participation, good use of spare time, contacting local residents, experiencing excitement and sense of unity, etc.

Not paying attention on preserving traditions is a definite problem, but following traditions itself also is a threatening mistake. merely, we should not be overconfident by the reason of it being ours and not neglect the old tradition. As for the culture is even so. Especially, there should be a extra attention on folk culture. If the current divided attention kept being left behind, then its end is to directly connected to extinc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for popularization and overcoming the current issu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1. Setting up fundamental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of Jeju dance art by establishing a new department for dance in Jeju island universities.
2. Inducing participation of Jeju folk dance by advertising in television and radio since mass media gets the absolute support in public relations.
3.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and various interesting programs which can join cultural experience with diverse group of Jeju residents as well as visitors and build the fundamental system of dance education to change public attitude and vitalization on Jeju folk culture at same time.
 - 1) There should be a diversifying opportunity for enjoyment of Jeju folk cultural arts, and it needs to be connected to a sense of pride for Jeju

island residents.

- 2)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art school through elementary to high school is needed, and the accompanying education should be followed.
- 3) There should be a effort on designating diverse folk dance to cultural asset in order to let the legacy continue for Jeju dances.
- 4) There should be a need of creating occupations for those talented people who went to Seoul to come back to the island by nurturing professional groups.

Subject word : Folk culture, Jeju island dance culture, Tamna sullyeokdo,
Chilmuhridang-youngdeng-good, Haenyeo dance